

| 2021 古漢學 Conference

# 古文字로 이해하는 동아시아 古代

홍익재단



2021 古漢字 Conference

# 古文字로 이해하는 동아시아 古代

- 일시: 2021년 8월 20일(금) 13:00~18:00
- 장소: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
- 주관·주최: 홍익재단

홍익재단



## 프 로 그 램

접수 [13:00-13:30]

개회식 [13:30-13:50]

사회: 나행주(건국대)

개회사 문치웅(홍익재단 이사장)

행사소개/내빈소개

제1부

사회: 김미라(고려대)

제1발표 [13:50-14:20] 神의 지칭 대상과 관련 한자와의 의미 중첩 분석

- 김정남(단국대) 토론: 성시훈(성균관대)

제2발표 [14:20-14:50] 『三國遺事』古朝鮮條 기록에서 “古”의 의미와 그 기간

- 이경숙(공주대) 토론: 황신애(서울신학대)

제3발표 [14:50-15:20] ‘伯’에 관한 小考

- 신세리(조선대) 토론: 김정남(단국대)

휴식 [15:20-15:40]

제2부

사회: 윤순일(고려대)

제4발표 [15:40-16:10]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

- 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

- 박성우(홍익재단) 토론: 조용준(인민대)

제5발표 [16:10-16:40] 출토문헌 자료에 보이는 ‘服’과 ‘五服’에 관한 내용

- 土山盤 명문의 ‘服’과 西周 시기 ‘服制’의 ‘名’과 ‘實’

- 이유표(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신세리(조선대)

제6발표 [16:40-17:10] 先秦시기 年月日 표기방식에 대한 고찰

- 『三國遺事』古朝鮮條의 紀年 표기방식을 함께 논함

- 박재복(경동대) 토론: 이유표(동북아역사재단)

종합토론 [17:10-17:50]

사회: 양원석(고려대)

폐회 [17:50-18:00]

사회: 나행주(건국대)



2021 古漢字 Conference  
古文字로 이해하는 동아시아 古代

목차

【제1발표】 神의 지칭 대상과 관련 한자와의 의미 중첩 현상 분석.....	3
▶ 김정남(단국대)	
토론: 성시훈(성균관대)	
【제2발표】 『三國遺事』 古朝鮮條 기록에서 “古”의 의미와 그 기간.....	41
▶ 이경숙(공주대)	
토론: 황신애(서울신학대)	
【제3발표】 ‘伯’에 관한 小考.....	55
▶ 신세리(조선대)	
토론: 김정남(단국대)	
【제4발표】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	83
- 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	
▶ 박성우(홍익재단)	
토론: 조용준(인민대)	
【제5발표】 출토문헌 자료에 보이는 ‘服’ 과 ‘五服’에 관한 내용.....	113
- 士山盤 명문의 ‘服’과 西周 시기 ‘服制’의 ‘名’과 ‘實’	
▶ 이유표(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신세리(조선대)	
【제6발표】 先秦시기 年月日 표기방식에 대한 고찰.....	133
- 『三國遺事』 「古朝鮮」조의 紀年 표기방식을 함께 논함	
▶ 박재복(경동대)	
토론: 이유표(동북아역사재단)	





---

제1부

【제1발표】 神의 지칭 대상과 관련 한자와의 의미 중첩 현상 분석

▶ 김정남(단국대)

【제2발표】 『三國遺事』 古朝鮮條 기록에서 “古”의 의미와 그 기간

▶ 이경숙(공주대)

【제3발표】 ‘伯’에 관한 小考

▶ 신세리(조선대)

---



# 1 神의 지칭 대상과 관련 한자와의 의미 중첩 현상 분석

김정남(단국대 일본연구소)

## 목 차

1. 서론
2. 문헌 용례와 역대 주석을 통해 살펴본  
'神'의 지칭 대상
3. 의미지도를 통해 본 '神'의 훈고학적 해석
4. 결론

## 1. 서론

한자는 고대 서양의 라틴어나 희랍어와 비교해볼 때, 한자가 표현하는 의미 영역이 제한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 多義性으로 인해 하나의 字가 지칭하는 대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품사와 시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한자로 쓰인 문장에서 특정 한자가 지칭하려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맥락에 의존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한자가 표현하는 의미 영역이 제한적이지 않음”은 하나의 字가 여러 대상을 지칭하는 一字多義의 傳注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여러 字로 표현하는 多字一義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밝다”는 뜻의 한자는 ‘明’, ‘亮’, ‘晃’ 등이 있으며, “보다”는 ‘見’, ‘視’, ‘看’, ‘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한자들이 “밝다” 또는 “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한자마다 고유의 의미 영역이 존재한다. 그래서 임의대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예를 들어, “이르다”, “다다르다”, “도착하다”를 뜻하는 ‘至’와 ‘到’는 의미가 유사하지만, 그 용도와 함의는 다르게 나타난다. ‘至’는 완전히 끝의 의미로서의 “다다르다”이며, ‘到’는 다다르기는 했지만 앞으로 진행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진행형”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언어적 논리와 논증보다는 직관과 깨달음을 중시했던 고대 동아시아 사회의 전통이 언어와 문자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sup>1)</sup> 이와 같은 현상은 ‘神’이나 ‘祭’가 天神과 祭天으로 고대 통치와 관련하여 높은 존재나 대상에 사용되던 字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의미 확대가 되고 더 복잡다단하게 나타난다.

‘神’은 역대로 절대적 위치의 존재 또는 만물 조화주(造化主) 위치의 존재, 형이상학적 지고무상(至高無上)의 존재를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고대에는 주로 역사와 제례에서 최고의 존칭 대상으로 사용되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그 절대성을 활용, 응용하고자 한 종교, 신화, 철학 등의 분야로 확대 사용된 한자이다. 그러므로 역사와 제례에서 위대한 통치자의 존칭으로, 또는 제례의 대상이 된 神은 자형의 발생 단계부터 강력한 절대성을 내포하였기 때문에 시대변천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 경의로운 업적을 이룬 대상에 대해 ‘□□신’으로의 분화는 다양하게 파생되어왔다. 古今을 통틀어 ‘神’의 본의는 허신(許愼)이 정리한 절대적 위치의 존재로서의 “天神”, 또는 “창조주”이다. 한편, “天神”이나 “창조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 역할, 현상 등을 표현할 때도 ‘神’을 사용했다.

‘示’와 ‘申’으로 구성된 ‘神’은 서주 청동기 금문에서는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반해 商代의 갑골 복사 중에서는 ‘神’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번개”를 뜻하는 ‘申’이 문맥에 따라 ‘神’과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에 대한 숭배 차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가 점차적으로 발달하고 대규모의 문명권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개념은 새롭게 분화되고 기존에 없던 개념이 새롭게 창출되기 마련이다.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인간의 사유 체계가 유기적으로 변화하면서 ‘神’으로 지칭하는 대상이나 의미 영역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神’의 시작은 구체적 대상의 명칭이었던 “天神”이었으나 현재와 같이 ‘초자연적 존재’, ‘종교적 대상’, ‘□□신’에 해당하는 추상적 대상으로 지칭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속에서 점차 本義에서 파생된 引伸義로 인하여 다의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대상들이 ‘神’의 의미 영역 속에 포함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

1) 김상환, 박영선 엮음, 『사물의 분류와 지식의 탄생』, 서울, 이학사, 2014년 1월, 42~43쪽.

다. 동아시아 고대 문헌의 용례를 살펴보면 ‘神’이 지칭했던 대상은 “천신”, “창조주”를 뜻하는 “神” 뿐만 아니라 이후 의미 확대된 “자연”, “조상”, “음양의 기운”, 또는 “신기한 현상”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들을 지칭하는 한자는 ‘神’ 외에도 다수 존재했다.

본고는 ‘神’이 지칭하는 대상을 시대별 출토 자료와 고대 문헌의 용례를 통해서 구분, 분류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훈고학적으로 ‘神’이 지칭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특정 字에 대해 시대별로 변화된 의미 영역과 다른 한자와의 연관성을 통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한자를 사용하는 동양 고전의 바른 해석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현재 사용하는 의미만을 고집하며 고전을 해석한다면 문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본뜻과 관련 없는 오역을 초래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 2. 문헌 용례와 역대 주석을 통해 살펴본 ‘神’의 지칭 대상

본 장에서는 현재 확인 가능한 문헌 용례와 주석을 통해서 ‘神’이 지칭하는 대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神’에 포함된 여러 지칭 대상을 구분하는 작업은 문헌의 정확한 독해와 더불어 ‘神’을 포함한 각종 개념어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여지가 크다.

### 2.1. 天神

許慎은 『說文解字』에서 ‘神’을 “天神”으로 정의하고 “만물을 이끌어내는 자(引出萬物者)”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지금의 “최고 위치 존재에 대한 존칭” 또는 “절대자”의 의미로 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史記』 「五帝本紀」와 「周本紀」, 「封禪書」 등에서 “天神”은 통치와 제례의 최상위 정점에 위치하며, 국가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핵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고대의 절대왕권 국가 체계에서 제왕들에 의해 국가적 행사로 거행된 제례에서 그 대상은 그들의 시조 또는 선조, 전통성의 근본으로 삼고자 하는 제왕들을 대상으로 한 것을 보면 천신은 그에 부합하는 위치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례의 대상 존칭이 “상제”와 “천신”이다. 제사

는 고금을 막론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살았던 구체적인 조상 또는 국가의 정통성의 근본으로 삼고자 하는 선대의 제왕에 대해 지내는 것이 추상적인 막연한 대상에 대해 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시기별 “天神”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정통성의 근본, 숭배에 대한 기록을 통해 그 위치를 이해할 수 있으며, 정치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 이후 ‘神’은 天에 대한 가치의 훼손으로 그 고유한 존경의 대상에서 벗어나 추상적 개념의 대거 등장으로 인해 의미가 한층 더 다양해지고 파생적 의미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漢 이후에도 ‘神’은 天을 대표하는 거의 유일한 존재로 여겨졌다. 『禮記』 「禮運」 “列於鬼神”에 대해 鄭玄은 “神者, 引物而生”이라고 했으며, 『淮南子』 「精神」 “役使鬼神”에 대해 高誘는 “天神曰神, 人神曰鬼”라고 했다. 특히, ‘神’을 “天神”으로 해석한 주석가는 高誘 외에도 삼국 시기 오(吳)의 위소(韋昭), 당(唐)의 공영달(孔穎達), 육덕명(陸德明), 장수절(張守節), 이현(李賢)과 청(淸)의 왕빙진(王聘珍), 유보남(劉寶南) 등이 있다.<sup>2)</sup> 『說文』과 『淮南子』에서 설명하듯이 神의 의미는 天神이고 天神은 神이라 하여, 훈고의 反復互訓 관계가 성립되어 神이라 하면 오직 天神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한자로 ‘河’와 ‘江’이 있다. ‘河’는 원래 황하(黃河)만을 가리키는 한자이고 ‘江’은 장강(長江)만을 의미하였다. 이후 물줄기에 대한 이름을 붙이면서 △△河 또는 ○○江의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河’와 ‘江’이 쓰임은 ‘神’이 천신(天神)을 지칭하던 것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神’으로 확대 적용된 것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

허신의 정의 및 “天神” 관련 주석에서 언급한 “절대자”, “天을 대표하는 존재”의 실제 면모는 무엇일까? 고대 동아시아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天神”이 天을 대표하는 위치로 규정하였으며, 천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절대자의 권위를 인정한 것인가? 선진 문헌과 시기별 출토 자료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분석,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神’字는 갑골문에서는 아직 보고된 것이 없으며, 서주 청동기 금문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 자형이 등장하기 전의 번개로부터 비롯된 ‘申’은 날씨와 관련된 자연 현상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이다. 허신이 언급한 “만물을 이끌어내는 자”로서의 天神에 가장 근접한 대상으로는 서주 이전 하상대(夏商代) 기록에 “上帝”가 있다. 상대 갑골복사에 기록된 商의 절대권자에 대한 체계는 모두 4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첫 번째가 “上帝”이다. 商의 여러 신

2) 宗邦福·陳世鏡·蕭海波主編, 『故訓匯纂』, 北京, 商務印書館, 2003年 7月, 1598쪽.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上帝는 통치, 날씨, 전쟁, 농업 수확량 등의 국가 중대사와 관련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 “自然 현상”이다. ‘風’, ‘申’과 같은 농사와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 현상의 대상을 말한다. 세 번째는 自然神 성격을 지닌 “祖上”이다. ‘岳’, ‘河’가 대표적이며 기후, 농업 수확량, 전쟁에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로 自然神과 관련 없는 “祖上”이다. 일반적으로 “高祖”로 표현되는데 왕족을 비롯하여 혈연관계인 귀족까지 포함한다. 또한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商 왕실에 기여도가 큰 “伊尹”과 같은 신하 역시 “祖上”으로 모시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위와 같은 商代 신앙 체계가 上帝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朱鳳翰은 갑골 복사를 토대로 위 4가지 신(神)의 역할을 구분한 바 있다. 점을 치는 정인(貞人)이 사안에 따라 길흉 여부를 묻는 대상이 각기 다른 점에 착안한 것인데, 예를 들면 왕의 안위 여부에 대해 점을 칠 때는 오직 上帝에게 길흉 여부를 묻고 왕 이외의 다른 왕족들과 관련된 사항은 自然神과 관련 없는 祖上神들에게 길흉 여부를 물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sup>3)</sup>

유형	구체 명칭	기상	수확량	왕위의 안정	왕의 건강	전쟁	귀족	왕비·후궁	후손
절대권자	上帝	○	○	○	○	○			
자연	土	○	○						
	方	○	○	△					
	岳	○	○	○		○			
	河	○	○	○	○	○			
조상	王亥	○	○	○		○			
	上甲	○	○	○	○	○	○		
	직계조상	△	△	○	△	△	△		
	직계조상의 배우자				○	○	○	△	△
	개국공신 및 충신	△	△	△	○	△			

上帝는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이지만 위의 표를 살펴봤을 때, 上帝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도 존재한다. 한편, 上帝와 ‘岳’, ‘河’ 등의

3) 朱鳳翰은 본래 岳과 河를 자연신과 조상신의 성격을 겸비한 신으로 구분하여 모두 4가지 부류로 구분했으나 본문에서는 이 두 신을 자연신으로 분류했다. 표 안의 ‘○’는 권한이 있을 경우를 뜻하며 ‘△’는 일부 영향을 미칠 경우를 뜻한다. 자세한 내용은 朱鳳翰, 「商周時期的天神崇拜」(『中國社會科學』1993年 第4期, 193쪽) 참고.

조상은 영향력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商代 당시의 上帝는 유일신 체계의 “절대자”라기보다는 비교적 강한 영향력을 지닌 의지하는 존재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만물을 창조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天神의 개념은 周代에 부각되었다. 周 역시 마찬가지로 上帝가 신앙 체계의 정점에 위치하나 商의 上帝와 성격이 다르다. 周의 上帝는 그 밖의 대상과 명확한 종속 관계를 형성한다. 『國語』 「周語中」에서 양왕(襄王)이 조상의 행적을 언급하는 내용 중에 “昔我先王之有天下也，規方千里以爲甸服，以供上帝山川百神之祀，以備百姓兆民之用，以待不庭不虞之患。(옛날 우리 선왕께서 천하를 차지하고 사방 천리를 정하여 전복으로 삼고 상제, 산천, 백신에게 제사 지내는데 물건을 공급하고 억조창생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비축하여 의외의 재앙을 대비하도록 했다)”이 있다. 제사를 올리는 주체를 “上帝”, “山川”, “百神”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또한, 周 勵王 시기의 『胡鐘』에도 “惟皇上帝百神保余小子。(상제와 백신이 나를 보우한다)”가 있다. 商의 자연신과 조상신에 해당하는 여러 신들을 “百神”으로 포괄하여 上帝와 구분했다.

이처럼 上帝를 “百神”과 구분지어 표시하는 이유는 上帝만의 고유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上帝는 周 왕실과 백성을 보호한다. 上帝와 인간의 중개자는 하늘의 아들이자 백성의 부모인 왕이다. 『詩經』 「文王」의 “有周不顯，帝命不時，文王陟降，在帝左右。(주가 드러니자 앓을까, 상제의 명이 때에 맞지 앓을까, 문왕의 오르내리심이 상제의 좌우에 계시니라)”에 문왕이 上帝와 직접 소통하는 대목이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문왕이 덕을 갖추었고 上帝의 기준에 충족했으며 天命을 그에게 집중되면서 천하의 백성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商이 멸망하고 周가 흥성하게 된 이유는 바로 上帝의 보호에 있었다. 이와 같은 믿음은 西周 초기뿐만 아니라 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西周 중기 『史牆盤』(集成10175)의 “上帝后稷宥保受天子縮命，厚福豐年.”과 西周 후기의 『師詢簋』(集成4342)의 “監保我厥周與四方，民無不康靜”에서도 上帝의 보호를 받아 풍년을 맞이하고 백성들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周가 신봉한 上帝는 商의 上帝와 달리 正義를 추구하며 옳고 그름(是非)을 명확히 가릴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商代 갑골 복사에 출현하는 上帝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영험함을 지녔으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명확히 인과 관계를 따져 파악하기 힘든 면이 많았다. 그래서 재난과 화를 피하기 위해 제사를 올리거나 신의 의중을 묻는 점복 행위에



집중하는데 周 이후로는 上帝가 이성을 갖춘 人格神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尙書』와 『逸周書』에 周公의 연설 중에 上帝가 무슨 이유로 商을 멸망시키고 周를 선택했는지 설명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多士」에서 湯이 商을 건국한 이후로 백성을 위한 정치와 정성스러운 제사로 上帝의 요구에 부합하였으나 紂王 이후로 자행된 무절제하고 방탕한 정치로 인해 商은 재앙을 내려 받고 멸망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즉, 上帝는 자의적으로 천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갖춘 존재이므로 正義와 是非에 따라 보호할 대상을 선별하며 周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훌륭한 왕조이자 국가인 것을 강조한 셈이다.

周의 上帝는 商에 비해서 인격신의 면모가 강화됐다. 그렇다면 周의 신앙 체계 속에 商의 上帝가 지닌 자의적이고 영험한 능력은 사라진 것일까? 上帝와 더불어 周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바로 “天”이다. 天과 상제가 같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朱熹는 『詩集傳』에서 「正月」의 주석에 “上帝, 天之神也. 程子曰, 以其形體謂之天, 以其主宰謂之帝.”라고 했다. 이 주석에서 上帝는 天에서 통치행위를 하던 위치의 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문헌의 용례를 보면 周 이후로 天과 上帝는 주희가 파악한 동일성과 더불어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天은 上帝와 달리 천하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감지하여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보다 큰 대상으로 여겨졌다.

『詩經』 「文王」과 같이 인간과 소통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같은 작품에서 “하늘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上天之載, 無聲無臭)”고 하기도 했다. 이처럼 파악하기 힘든 대상인 하늘이 上帝와 달리 周를 보호하기보다는 주로 재앙을 내리거나 예측하기 힘든 행동을 한다. 『詩』 「正月」을 보면, “하늘이 나를 위태롭게 함이 나를 이기지 못할까 걱정하는 듯 하네. (天之抗我, 如不我克)”라며 염려하는 문구가 있다. 그래서 하늘은 끝없는 자기 수양과 도덕적 행동을 통해서 견제하고 경외시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예기치 못한 재앙을 내리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부 작품에서는 원망의 대상으로도 형상화시켰다.<sup>4)</sup>

4) 하늘이 견제와 경외의 대상으로 형상화된 용례는 『詩』 「文王」 “命之不易, 無遏爾躬. 宣昭義問, 有虞殷自天. (천명이 바뀌지 않으면 그대에게 대가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바른 명성을 밝게 하여 은나라로 천명이 옮겨갈 것을 걱정하라)”이다. 『詩』 「雨無正」 “浩浩昊天, 不駿其德. 降喪飢饉, 斬伐四國. 昊天疾威, 弗慮弗圖. (넓고 넓은 하늘은 은덕이 일정하지 않다. 난리와 흉년을 내리시고 천하 사람들을 서로 싸워 죽게 하셨다. 하늘이 위엄을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재앙을 내리는 주체로 설정되었으며, 『詩』 「蓼莪」 “父兮生我, 母兮鞠我. 拊我畜我, 長我育我.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西周 말기까지 上帝와 하늘은 서로 공존하며 동일한 대상으로까지 인식되다가 춘추 시기 이후부터 인격신의 면모를 지닌 上帝와 초월적 대상으로서의 하늘이 결합된 “절대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이것이 허신이 언급한 “天神”이다. 天神은 이성적 판단과 더불어 인간의 감지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 특징까지 지녔다. 여러 神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권능을 가진 대상으로 형상화된다.

전래 문헌에서 묘사된 天神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조상신이나 귀신의 상대 개념으로 절대적인 존경의 위치에 있다. 『周禮』에 등장하는 天神에 대한 기록을 보면 천하의 “人鬼”, “地祇”와 상대 개념으로 天의 대표격으로 표현되었다. 鄭玄은 『周禮』의 天神은 “五帝”와 “日月星辰”과는 구분하기도 했다. 『國語』 「周語下」에 靈王이 穀水를 막으려는 시도를 태자 卞이 만류하는 간언 중에도 『周禮』와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분하여 부당성을 강조한다. 바로 “度之天神，則非祥也。比之地物，則非義也。類之民則，則非仁也。”인데 “天神”, “地物”, “民則”은 『周禮』의 “天神”, “地祇”, “人鬼”와 같은 논리 구조상 동일하다. 주목할 점은 세 단계 중 天神은 언제나 제일 먼저 제시된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판단 기준 중에서도 가장 중시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전래문헌의 天神이 上帝, 하늘, 자연신 등을 포괄하는 범칭의 성격이 있다면 2005년 발표된 상박초간 『三德』의 天神은 上帝, 하늘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 대상을 지칭했다. 이는 춘추 시대 이후로 天神이 “절대자”, “창조자”를 표현했던 유력한 증거이다. 『三德』의 “天神”이 이와 같은 의미를 표현했다고 간주하는 근거는 “天常”과 “天禮”이다. 두 가지 개념어 앞에 ‘天’을 더한 것은 단순한 자연관이나 종교관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天’은 자연 법칙과 도덕론, 종교론을 모두 반영된 종합적 표상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이 구축한 질서 체계에 해당하는 “天道”와 인간이 구축한 관념 체계인 “人道”를 결합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연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며 이룩한 유기체로 인식했다.<sup>5)</sup> 王中江은 孟子, 荀子로 대표되는 인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는 전국 시기에 天神과 같이 종교성이 짙은 용어를 사용해 神意論을 펼친 것은 참고 가치가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6)</sup> 전래문헌만으로는 확인할

顧我復我，出入腹我。欲報之德，昊天罔極。(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를 나를 기르시니, 쓰다듬어 길러주셨고 키워 감싸주셨네. 돌아보시고 돌아보시며 드나들며 나를 돌보아 주셨으니 이 은혜 갚고자 하나 하늘이 무정하시네)에서는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정을 봐주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고 있다.

5) ‘天’의 의미에 대해서는 박성우·문치웅의 「출토자료를 통해 본 ‘天’의 本義와 변천 연구」(『중국어문논총』 97輯, 2020년 2월, 23~52쪽) 참고.

6) 王中江, 『簡帛文明與古代思想世界』, 北京大學出版社, 2011年 3月, 158~177쪽.

수 없었던 天神의 의미 변천 과정이 『三德』을 통해서 중간 고리를 확인하게 된 셈인데, “天常”과 “天禮”는 개인 수양의 차원을 넘어 천하와 국가의 존망과 질서 유지에 관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天神은 권력과 더불어 통치, 도덕적 헤게모니까지 장악한 절대자라고 볼 수 있다.

## 2.2. 祖上神

2.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절대자”, “창조주”로서의 天神은 주대와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천하에 확고히 정립된 개념이다. ‘神’이 天神을 지칭하는 대상으로 정착한 이후 특정 분야에서 ‘□□神’이라는 확장된 표현들도 다양해 졌는데, 그 중에서도 출현 빈도가 높은 대상은 바로 “祖上神”과 “自然神”이다.

商族은 先代의 왕이 사망하면 하늘로 승천한 후, 上帝와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祖上神이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上帝와 더불어 이 조상신에게도 길흉 여부를 묻는 점을 쳤다. 이는 호칭에도 반영되는데 上帝뿐만 아니라 사망한 先王을 지칭할 때 ‘帝’를 사용했다. 上帝와 구별하기 위해 ‘王’을 덧붙인 “王帝”가 있으며 선왕 중의 특정 인물에 ‘帝’를 추가한 경우도 있다. “父乙帝”, “帝丁”, “帝甲”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인 용례는 아래와 같다.

貞父乙帝…… 二告 『合集』2204  
甲戌卜, 王曰貞勿告于帝丁 『合集』24982.2  
貞其自帝甲有延 『合集』27437.2  
貞其先帝甲其弘 『合集』2347.1

전래문헌에도 이와 비슷한 명칭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용례는 아래와 같다.

帝乙立, 殷益衰 『史記』「殷本紀」  
至于帝乙 『尚書』「多方」  
商王帝辛大惡于民 『國語』「周語」

西周 금문에도 祖上神의 구체 용례로 “文神”, “先神” 등이 등장한다. 또한 ‘神’ 단독으로 祖上神을 뜻하기도 한다. 이 용법은 ‘神’을 포함한 구절 앞뒤

로 上帝 또는 하늘이 쓰였을 때 祖上神으로 해석 가능하다.<sup>7)</sup>

祖上神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禘’ 제사이다. 조상을 신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식이 형성된 시점은 서주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 禘 제사의 형식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示’와 ‘帝’로 구성된 “禘”는 현재까지 『說文』에 수록된 소전체 ‘禘’가 가장 오래된 자형이다.

갑골문은 제사 동사 ‘帝’가 다수 보이는데 그것이 禘 제사의 발단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sup>8)</sup> 서주 금문은 ‘畝’를 빌어 禘 제사와 관련된 의식을 표시했다. 禘 제사는 周代동안 비중 있게 거행된 제사 의식이다. 전래 문헌에서는 이 제사의 과정이나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예는 없다. 漢 이후부터 禘의 실체에 대한 각종 해석들이 제기된다. 첫 번째로 “時祭”이다. 사계절마다 올리는 제사 중의 하나로 여겼는데 孔穎達이 『禮記』「王制」에 주석을 달면서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했다. 두 번째로 “大祭”이다.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라고 했다. 대표적으로 鄭玄이 禘 제사를 大祭로 해석했으며, 이 밖에도 杜預, 朱熹가 鄭玄과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세 번째는 “郊祭”이다. 하늘에 올리는 제사라고 했다. 이 견해도 鄭玄이 제시했는데 『禮記』 일부 구절을 해석하면서 제시한 견해이다.

鄭玄이 문자상으로 동일한 제사를 경우에 따라 “大祭”와 “郊祭”라고 달리 해석한 점은 석연치 않다. 우선 “郊祭”는 문헌에서 광의와 협의로 구분한다. 광의는 수도의 사문(四門) 밖에서 지내던 제사이다. 그 대상은 天地, 山川, 日月 등이다. 『漢書』「郊祀志」가 그 예이다. 협의는 四門 중에서도 남쪽에서 지내던 제사이다. 이 제사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로 동지(冬至)에 남쪽에서 거행하던 제사이며, 하나는 夏代 曆法을 기준으로 정월 경칩 후에 상제에게 풍년을 기원하며 올린 제사이다.<sup>9)</sup> 이 중 경칩 후에 올린 郊 제사는 후직(后稷)과 配祭로 모셔진다.<sup>10)</sup> 후직은 또한 周의 始祖이므로

7) 『幽公盥』: “天釐用考, 神復用福祿, 永孚于寧. (하늘은 장수하게 하시고 신은 다시 복과 녹봉을 내리니 영원히 안락을 누리다.)”와 『大克鼎』(集成2836): “肆克口于皇天, ..... 天子明哲, 口孝于神. (그래서 皇天에게 口 할 수 있었고, ..... 천자가 명석하고 사리 판단이 뚜렷하여 신에게 孝德을 행하셨다.)”가 관련 용례이다.

8) 관련 연구 성과 중, 詹鄞鑫의 「禘禮辨 - 兼釋卜辭“帝”禮及“粵”禮」는 방대한 출토문헌 용례와 전래문헌 및 주석까지 인용하여 세밀하게 분석했다. 詹鄞鑫는 많은 용례를 통해서 商代 “帝”가 제사 동사로 사용됐을 경우 “禘” 제사와는 관련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주로 四方神을 포함한 자연신에 올린 제사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2.3절 자연신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9) 『孔子家語』「郊問」: “孔子曰, 郊之祭也, 迎長日之至也. 大報天而主日, 配以月, 故周之始郊, 其月以日至, 其日用上辛. 至於啟蟄之月, 則又祈穀于上帝. 此二者, 天子之禮也.”

10) 『禮記』「明堂位」: “是以魯君, 孟春乘大路, 載弧韜. 旗十有二旒, 日月之章. 祀帝于郊, 配以后稷, 天子之禮也.”

한 이후에 禘와 연관 지어 해석한 것이다. 한편, ‘禘’와 ‘郊’가 연이어 등장한 용례가 있다. 『禮記』「祭法」에서 “有虞氏禘黃帝而郊嚳，祖顓頊而宗堯。夏后氏亦禘黃帝而郊鯀，祖顓頊而宗禹。殷人禘嚳而郊冥，祖契而宗湯。周人禘嚳而郊稷，祖文王而宗武王.”와 같이 전설상의 인물에게 올리는 제사는 ‘禘’이며 직계 조상 앞에 ‘祖’와 ‘宗’으로 등급을 표시한다. 이 사이에 배치된 ‘郊’ 다음의 인물도 신화적 요소를 지닌 인물들이다. 그래서 ‘禘’와 ‘郊’를 같은 성격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용례들로 인해서 禘를 郊와 연관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잘못 해석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갑골 복사와 서주 금문을 조사해보면 위의 時祭, 大祭, 郊祭 중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 商代는 禘 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식은 없으며 문자상으로 관련 깊은 ‘帝’는 왕이 1년 중에 어느 한 계절 중이라도 거행할 수 있는 제사였다. 上帝 외의 자연신에게 주로 제사를 올리는데 갑골 복사에 기록된 대상도 상당히 다양하다. 제사 중 희생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특징이 있다. 西周 시기 禘 제사는 여름과 가을 두 계절에 종묘에서 조상신에게만 올리는 제사로 탈바꿈한다. 초기에 周王만이 제사를 모셨으나 이후 ‘公’ 뿐만 아니라 일반 신하까지도 제사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사 중 희생을 바치며 보상을 받기도 한다. 두 시기에 거행된 禘 제사 관련 용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 a. 갑골 복사

丁未卜王帝(禘)于兕 『合集』1140  
 惟帝(禘)岳 夬 『合集』8330正.2  
 己巳卜賓貞帝(禘)于西 『合集』14328正  
 □申卜貞方禘寧摧九月 『合集』14370丙.1  
 貞帝(禘)惟羊 『合集』15981.1  
 丙戌卜貞惟犬又豕帝(禘) 『合集』15983.2  
 壬辰卜王余帝(禘)茲無祀六月 『合集』15959正

#### b. 서주 금문

王畜(禘), 用牡于大室, 畜(禘)昭王, 刺御, 王賜刺貝卅朋, 天子萬年, 刺對揚王休, 用作黃公尊鬯彝, 其孫孫子子永寶用. 『刺鼎』(集成 2776)  
 延□□邦賓, 丕裸, □□用牲畜(禘)周王武王成王. 『小孟鼎』(集成 2839)  
 公畜(禘)辛公祀, 卒事亡, 公蔑繁曆, 賜宗彝肆車馬兩. 『繁卣』(集成 5430)

갑골 복사의 禘 제사는 “兗”, “西”, “岳”, “寧” 등과 같이 자연신, 四方神을 위해 거행됐으며, 제사 시기도 “九月”, “六月”로 표시된다. 또한 양, 개, 돼지와 같은 제물을 바치지만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경우는 없다. 이 중 “岳”은 자연과 조상 성격이 결합된 특수한 경우이다. 서주 금문의 예문 중에 禘 제사는 “昭王”, “武王” 등의 조상이며 제사를 올리는 주체가 『刺鼎』은 “王”이지만 『繁卣』는 “公”이다. 제사를 올리는 주체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禘 제사는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天神” 관념이 등장하기 전에 商, 周 시기에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를 이어주는 제사였으며 그 중에서도 祖上을 위한 제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 2.3. 오방신(五方神)

상족(商族)은 해[日], 달[月], 별[星辰], 강[河], 산[岳] 등을 자연신으로 여겼다. 갑골 복사를 살펴보면 이와 더불어 동모(東母), 서모(西母), 사방(四方)을 담당하는 자연신과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四方風]도 자연신으로 모셨다. 갑골 복사에서 자연신을 통칭(通稱)하는 표현으로 “帝臣”, “帝使”가 있다. 사방(四方)과 중앙 지역[中]을 담당하는 오방신(五方神), 바람[風], 하천[江], 구름[雲]을 “帝臣” 또는 “帝使”로 칭한다.

갑골복사에서 “帝五臣正”, “帝五工臣”, “帝五臣”이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전래본에도 자연현상과 동물을 상징으로 한 토템을 써서 오방(五方)의 틀에 대입하여 설명한 내용이 있다. 『左傳』「昭十七」의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다.

秋，郟子來朝，公與之宴，昭子問焉。曰，少皞氏鳥名官，何故也，郟子曰，吾祖也，我知之，昔者黃帝氏以雲紀，故爲雲師而雲名，炎帝氏以火紀，故爲火師而火名，共工氏以水紀，故爲水師而水名，大皞氏以龍紀，故爲龍師而龍名，我高祖少皞，摯之立也，鳳鳥適至，故紀於鳥，爲鳥師而鳥名，鳳鳥氏歷正也，玄鳥氏司分者也，伯趙氏司至者也，青鳥氏司啟者也，丹鳥氏司閉者也，祝鳩氏司徒也，鷦鷯氏司馬也，鵙鳩氏司空也，爽鳩氏司寇也，鶡鳩氏司事也，五鳩，鳩民者也，五雉爲五工正，利器用，正度量，夷民者也，九扈爲九農正，扈民無淫者也，

가을, 담자가 와서 조현하여, 공이 그에게 연례를 베풀었다. 소자가 물어 말하기를 “소호씨가 새 이름으로 관직명을 지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담자가 가로되, “우리 조상이라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 황제씨는 구름으로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각 부에 우두머리를 모두 雲으로 명명했고, 염제씨

는 불로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火로 명명했습니다. 공공씨는 물로 일을 기록해서 水로 명명했습니다. 태호씨는 용으로 일을 기록해서 용자로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선조 소호씨가 즉위했을 때 鳳鳥가 날아왔습니다. 이에 새로 일을 기록해 鳥로 관직명을 삼게 되었습니다. 봉조씨는 천문역법, 현조씨는 춘분과 추분을 관장했고 백조씨는 하지와 동지를 관장하고 청조씨는 입춘과 입하 단조씨는 입추와 입동을 관장했습니다. 추구씨는 백성의 교도를 담당하고 저구씨는 법제를 담당했으며 시구씨는 수리와 토지를 담당하고 상구씨는 도적 검거 담당입니다. 골구씨는 농사 담당이었습니다. 이상 五鳩는 백성을 모아 영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五雉는 다섯 분야의 공정(工正)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물과 도구를 편리하게 하고 도량을 통일하여 백성을 고르게 했습니다. 九扈는 아홉 분야의 농민 담당 관장이 되었고 백성을 제어하여 백성들이 방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黃帝”, “炎帝”, “共工氏”, “大皞氏”가 각각 구름과 불, 물, 용을 통해서 관직명을 기록하고 郊子의 조상인 고조(高祖)는 새를 통해서 관직명을 기록했다고 했다. ‘鳩’와 ‘鳥’를 이용하여 각각 다섯 가지 명칭을 부여하는데 이 다섯 가지 명칭을 종합한 “五工正”은 갑골의 五方과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예는 “五雉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西方은 鷩雉, 東方은 鷩雉, 南方은 翟雉, 北方은 鷩雉, 伊洛의 남쪽은 翟雉이다”라고 했다. 즉, “五工正”은 다섯 방향의 구역을 담당하는 관직이다.

인간 세계와 마찬가지로 上帝와 오방신은 군신 관계로 구성되며 다섯 방향으로 구분하는 구역을 관장하는 “帝五臣正”, “帝五工臣”, “帝五臣” 등으로 표현한다. 관련 갑골복사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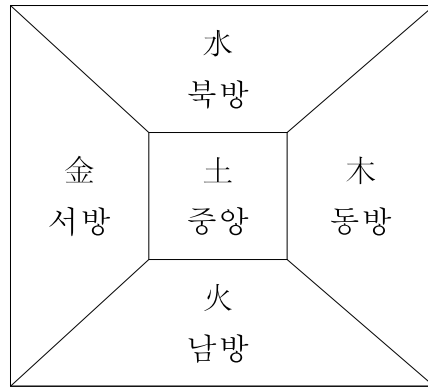
王有歲于帝五臣正惟無雨	合集30391.2
侑于帝五臣有大雨	合集30391.3
其寧于帝五工臣, 于曰告	屯南930

이들과 『史記』의 오제(五帝)가 같은 위상을 지니는데 천신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史記』에서 上古史의 五帝는 天에 소속을 두고 있다고 하였으며, 五帝와 관련하여 천신은 가장 고귀한 자로 太一이라 불렀다. 또한 천신은 五帝의 보좌를 받고 정사를 하는 위치의 인물이라 하였다.<sup>11)</sup> 이것은

11) 『史記』「封禪書」 “天有五帝, 天神貴者太一.” 「索隱」 “太一佐曰五帝”

天地의 최고의 위치에 천신이 있고 그 아래로 천하를 다섯 지역의 오행으로 나누어 5명의 책임자를 두고 보좌하도록 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천하에서 五帝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전국시대부터이다. 五帝와의 관계에서 천신은 太一 또는 泰一이라 높여 불리졌으며, 五帝는 천신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五帝 개념의 등장은 전국시대와 진한대에 천하의 독자적인 역사관을 만들면서 생겨난 것으로, 하, 은, 주 三代까지도 그 개념이 없던 것이다. 또한 五帝라 칭해진 인물들이 그들이 살았던 시기에 제왕적 위치에 있었다는 근거는 거의 없다.<sup>12)</sup> 『春秋左傳要義』에서도 天에서 五方に 책임자를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다.<sup>13)</sup> 五帝는 黑帝, 赤帝, 靑帝, 白帝, 黃帝라 불리는 오방 지역의 책임자를 의미한다. 고대에 방위의 표현은 오행의 요소인 水、火、木、金、土를 이용하여 각각 북, 남, 동, 서, 중앙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정의하였다.<sup>14)</sup>



위의 그림과 같이 천하의 지역을 오행을 이용하여 다섯 방위를 정하고 각각에 대해 상징색을 순서적으로 水에 대해 흑색(黑色), 火는 적색(赤色), 木은 청색(靑色), 金은 백색(白色), 土는 황색(黃色)을 배정하였다. 五帝는 오행 지역의 책임자로 상징색을 이용하여 칭호를 정하여 帝로 한 것이다. 또한 다른 별칭으로는 각 지역의 다스림의 덕치를 기준으로 하여 五德王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천신과 오행의 책임자들과의 관계를 조직관계구조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 가능하다.<sup>15)</sup>

12) 문치웅, 『『史記(史記)』「五帝본기(五帝本紀)」에 나타나는 인물관계 기록의 문제점』, 『동아시아고대학』40, 2015, 173~194쪽.

13) 『春秋左傳要義』 卷 7, “天有五方之帝.”

14) 문치웅, 위의 논문.





이 표를 통해 볼 때 천신은 천지를 오방의 다섯 지역으로 나누고 五帝 또는 五德王이라 불린 책임자들을 두고 통치를 한 것이다. 『史記』 『秦始皇本紀』에 의하면 五帝들의 통치 범위는 지방 천리에 해당한다.<sup>16)</sup> 또한 최고 통치자가 직접 다스리는 구역을 甸이라 부르는 기내구역이다.<sup>17)</sup> 이 기내구역은 중앙으로부터 사방 천리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천신은 甸 지역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기내구역의 밖은 다섯 지역에 대해 五帝들을 통해 관리하도록 한 것이 된다. 이러한 통치 체계의 존재성은 고대국가 형성초기인 요와 순의 활동 시대에 천하에서 이루어진 治水사업을 통해 확인된다.<sup>18)</sup> 치수사업의 결과로 재편된 천하 행정구역을 五服제도를 통해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오복제도의 기본적인 체계가 오방의 다섯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한 방식과 일치한다.

五帝 또는 오덕왕으로 칭해진 인물들 중에서 고대사에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위인은 土 지역의 책임자중 한 명인 黃帝로 불린 현원과 金 지역의 책임자로 白帝로 불린 소호가 있다. 특히 소호는 금덕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삼국史記』에서는 소호에 대해 신라인들은 그를 근본 조상으로 여겼다고 하였다. 또한 김유신 장군과 김수로왕도 소호의 후손이라고 전해진다.<sup>19)</sup> 이것은 당시 신라와 가야인들이 소호를 자신들이 선조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호와 황제를 포함한 五帝의 인물들은 『史記』와 『書經』, 『帝王世紀』, 『皇王大紀』, 『白虎通義』를 포함한 다수의 고대 기록 문헌에서 상고사의 인물들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헌들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은 모두 역사적

15) 문치웅, 위의 논문.

16) 『史記』 『秦始皇本紀』 “昔者五帝地方千里.”

17) 『書經』 『禹貢』; 『大宇源』 “甸” 字.

18) 『書經』 『禹貢』 문치웅, 김은진, 「고대국가 형성 초기에 이루어진 치수사업과 그 내용」 『고조선단군학』 30, 2014, 81~111쪽.

19) 『三國史記』卷 41 列傳 1, 金庾信 上. “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故姓金庾信碑亦云軒轅之裔少昊之胤則南加耶始祖首露與新羅同姓也.”

존재로 기록되었다. 만약에 이러한 인물들이 현대적 시각에서 역사적 존재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하여 부정된다면, 위의 문헌들 역시 모두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근거는 없다. 소호와 공손 황제는 활동 시대가 치우와 같은 시기에 해당한다.<sup>20)</sup>

五帝와 천신 관련 문헌에서 현대의 지리적 구분처럼 지역적 범위 구분은 없다. 당시는 天地未分前의 시기이므로 고조선 건국전후의 동아시아 역사에 등장하는 나라이름은 단군왕검의 조선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중국의 문헌 기록에서도 그들만의 선조들에 대한 나라이름의 나타나지 않는다. 소호도 가락과 신라인들의 시조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가 활동한 지역은 오행의 金 지역인 지금의 중국 서방지역이다.<sup>21)</sup> 그러므로 한국의 천신과 중국의 천신은 결국 동일시대 동일 인물에 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그 호칭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史記』에서는 또한 천신에 대해 太一이라 칭하고 있다. 『史記索隱』 「封禪書」에서 천하의 천자들이 太一에게 제를 지냈다고 하였으며, 太一은 천신의 별명이라고 하였다.<sup>22)</sup> 太一은 天一, 地一과 더불어 상고시대의 가장 위대한 제왕으로 인식되었으며, 그중에서 太一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겼다. 太一은 다시 『史記』의 다른 편인 「孝武本紀」에서는 천신은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 泰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sup>23)</sup> 천신은 왕조의 제왕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위인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문헌의 기록을 통해 천신은 동아시아 고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왕으로 여겨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고대 제례에 대한 기록의 분석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 3. 의미지도를 통해 본 '神'의 훈고학적 해석

2장은 각종 문헌에서 '神'이 지칭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면 3장은 각종 주석서 및 자서(字書)에 수록된 '神'의 훈고학적 연구 성과를 총망라하고 훈고학적으로 '神'과 연결된 한자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神'의 의미

20) 『史記』 「五帝本紀」 “於是黃帝乃徵師諸侯與蚩尤”; 문치웅, 『『史記』 「五帝本紀」에 나타나는 인물관계 기록의 문제점』, 『동아시아고대학』 40, 2015, 173~194쪽.

21) 문치웅, 『『史記』 「五帝本紀」에 나타나는 인물관계 기록의 문제점』, 『동아시아고대학』 40, 2015, 173~194쪽.

22) 『史記索隱』 「封禪書」 “古天子祭太一 太一天神也; 最貴者太一.”

23) 『史記』 「孝武本紀」 “天神貴者泰一, 泰一佐曰五帝.”

영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sup>24)</sup> 2장에서도 살펴봤듯이 ‘神’은 “天神”, “조상신”, “오방신”등과 같이 추상적 의미를 표시하는 한자이다. 이 의미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3장에서는 “의미지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의미지도”는 관련 언어를 수집하여 의미항을 추출하고 의미간의 관계 여부에 따라 선형 구조 또는 위계 구조 등으로 배열하여 상관관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언어 형식을 하나의 공간 속에 배치하고 이를 가시적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현대 중국어에서 접속사 또는 개사로 쓰이는 ‘和’, ‘跟’, ‘同’, ‘與’의 의미 영역을 비교하거나 현대 중국어 ‘和’, ‘跟’, ‘同’, ‘與’와 한국어 ‘와’, ‘~랑’, ‘하고’를 대응시켜 각 언어가 지닌 의미상의 특징을 구체화시킬 수도 있다.<sup>25)</sup> 한편, 갑골문 이후로 끊임 없이 사용된 ‘以’의 의미 변천 및 문법화 과정을 의미지도의 공간 속에 표시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다.<sup>26)</sup>

‘神’의 의미 유형 및 관련 한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도 의미지도는 유용하다. ‘神’의 시대별 의미 변천 양상뿐만 아니라 ‘神’과 훈고학적 관련 있는 여러 한자와의 관계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훈고학자의 해석을 종합해보면 ‘神’은 “하늘(天)”, “천신(天神)”, “귀신(鬼神)”, “신묘(神妙)”, “헤아릴 수 없다(不測)”, “형체 없음(無方)”, “정신(精神)”, “혼백(魂魄)”, “조상(先祖)”, “이름 지을 수 없다(無名)” 등으로 정의 내려진 바 있다. 이 의미들과 연관성이 큰 한자를 같은 의미 지도 속에 배치하여 의미간의 상관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3.1. “절대신” 계열 의미군 - 帝, 天

‘神’이 “절대신”의 의미를 표현하기 시작한 시기는 전국시대이다. 그 전까지 주로 ‘帝’와 ‘天’으로 “절대신”을 표현해왔다. 이 한자들의 본뜻과 의미

24) 여기에서 제시한 “훈고학(訓詁)”은 고대 문헌에 기록된 의미를 해석하는데 쉬운 말로 어려운 의미를 해석하거나 옛 말을 지금의 말로 번역, 방언을 표준어로 해석하는 작업까지 포함하는 학문 분과를 뜻한다. ‘訓’은 해석하여 통하게 한다는 뜻이며 ‘詁’는 고대 언어를 뜻한다. ‘神’은 『說文解字』의 정의대로 “天神”으로 해석하지만 이로부터 파생 또는 확장된 의미를 모두 포괄하므로 구체적인 의미항을 추출하는 작업 역시 “훈고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3장에서 진행할 해석을 “훈고학적 해석”으로 특징한다.

25) 김승현, 「현대중국어 유의어의 의미특징과 유형학적 분석 - ‘和’, ‘跟’, ‘同’, ‘與’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86집, 2020년 02월.

26) 류동춘, 「甲骨文과 金文 속 ‘以’의 의미지도」, 『한중언어문화연구』 86집, 2016년 02월.

파생을 살펴보면서 ‘神’과의 의미상 접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3.1.1 帝

‘帝’의 자형과 의미의 기원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갑골문 ‘帝’는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신적 대상이다. 周代 이후로 ‘天’이 등장하기까지 ‘帝’는 지금의 절대신만큼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신적 능력을 보유한 대상이다. ‘帝’는 씨족 사회 단계의 종교 관념을 반영한 한자이다. 그 당시 씨족 사회 구성원은 출중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씨족의 대표가 되고 존경과 숭배를 받게 되면 사후(死後)에도 그의 혼령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단을 보호해준다고 믿었다. 『禮記』 「曲禮下」에서 이와 관련된 구절을 확인할 수 있다.

君天下，曰天子。朝諸侯，分職授政任功，曰予一人。踐阼臨祭祀，內事曰孝王某，外事曰嗣王某。臨諸侯，眡於鬼神，曰有天王某甫。崩，曰天王崩。復，曰天子復矣。告喪，曰天王登假。措之廟，立之主，曰帝。天子未除喪，曰予小子。生名之，死亦名之。 .

천하를 다스리면 천자라고 한다. 제후의 조회를 받고 자리를 나누고 정사를 주면서 일을 맡기면 나 한 사람이라고 한다. 조계에 올라서 제사에 임할 때 종묘의 제사는 효왕 아무개라고 하고 밖의 제사일 때 사왕 아무개라고 한다. 제후에 임하여 귀신에게 축문을 읽을 경우는 유천왕 아무개 보라고 한다. 천자가 봉하면 천왕봉이라고 한다. 초혼할 때 천자여 돌아오소서라고 한다. 천자의 상을 제후의 나라에 부고할 때 천왕이 승하하셨다라고 한다. 사당에 모시고 신주를 만들 때 제라고 한다. 천자가 거상하여 아직 제상하지 않았을 때 나 소자라고 하며 살아서 그렇게 명하고 죽어서도 역시 소자라고 한다.

이 문단은 군주의 호칭을 언급하는데 살아 있을 때와 사후의 호칭에 관한 내용이다. 천자가 사망한 후에 사당에 모시어 신주를 세운 후부터 ‘帝’로 칭한다고 했다. ‘帝’는 신적 대상이기 전에 조상신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 관념이 씨족사회의 조상신 숭배의 전통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禮記』 「祭法」 “有虞氏禘黃帝而郊嚳，祖顓頊而宗堯。夏后氏亦禘黃帝而郊鯀，祖顓頊而宗禹。殷人禘嚳而郊冥，祖契而宗湯。周人禘嚳而郊稷，祖文王而宗武王”은 가까운 조상뿐만 아니라 먼 조상까지도 집단에 기여한 조상이라면 모두 제사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언급된 黃帝, 嚳, 顓頊, 堯, 舜 중에서 “黃帝”를 제외한 다른 인물의 이름 앞에 ‘帝’를 붙여 “帝嚳”, “帝

顓頊”, “帝堯”, “帝舜”이라고 했으며, “黃帝”와 더불어 “五帝”로 칭하기도 했다.<sup>27)</sup>

춘추 시대 이후 ‘帝’는 신격화된 조상신 외에도 다양한 의미로 파생되기 시작했다. 그 의미들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a. 天, 天帝, 上帝

‘天’의 뜻으로 ‘帝’를 해석한 사례는 『詩經』, 『周易』 등의 유가 주요 경전부터 제자서, 역사서, 漢 이후의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비록 지금과 같은 전지전능한 절대자의 의미는 아니지만 ‘帝’는 이미 商代 갑골문에서 가장 높은 위치와 강한 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던 존재였다. 西周 이후로 그 지위를 ‘天’이 대신하면서 “帝=天” 관계가 성립되면서 “天帝”, “上帝”와 같은 명칭도 파생됐다. 구체적인 해석 사례를 보면 정현(鄭玄)은 『詩經』 「皇矣」 “既受帝祉”의 ‘帝’를 ‘天’으로 해석했다. 공영달은 『周易』 「益」 “王用享于帝吉”의 ‘帝’를 ‘天’으로 해석했다. 두예(杜預)도 『左傳』 「昭公七年」 “以佐事上帝”의 ‘帝’를 ‘天’으로 해석한다. 성현영(成玄英)은 『莊子』 「養生主」 “古者謂是帝之縣解”의 ‘帝’를 ‘天’으로 해석했다. 이로부터 더 나아가 ‘天’의 속성, 행위 등으로도 풀이하는데 주희(朱熹)는 『詩經』 「文王」 “克配上帝”의 ‘帝’를 “하늘이 주관하여 맡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휴(何休)가 『公羊傳』 「成公八年」 “其稱天子何? 元年, 春, 王正月, 正也. 其餘皆通矣”를 해석하는데 공자(孔子)의 발언을 언급하며 “덕이 하늘과 일치하는 것을 帝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처럼 ‘帝’와 ‘天’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상고 시기 가장 강력한 신적 능력의 보유자로서의 ‘帝’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b. 君, 君主

‘帝’가 조상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 세계를 주재하는 강력한 신적 능력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인간의 인식 범위 밖에서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이제는 인간 세계 안으로 편입되기 시작한다.

27) 『大戴禮記』 「五帝德」에서 공자와 재아(宰我)가 오제(五帝)에 속하는 각 인물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재아는 질문할 때마다 항상 ‘帝’를 이름 앞에 추가해서 호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사년(傅斯年)이 “商代의 ‘帝’는 바로 帝嚳이며 상대 사람들의 옛 조상이다.”라고 한 이후부터 商代, 西周 시기 ‘帝’와 조상 간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다. 호후선(胡厚宣), 주봉한(周鳳瀚) 등의 연구를 통해서 ‘帝’가 추가된 조상은 개별 종족의 신이 아니라 “天神”의 성격을 지닌 모든 종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대상으로 개념화된다.

『爾雅』 「釋詁上」에서 “帝, 君也.”로 해석했다. 『戰國策』 「趙策三」 “且王之先帝”의 ‘帝’를 포표(鮑彪)는 ‘帝’와 ‘王’, ‘皇’을 “人君”의 존칭으로 설명했다.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을 ‘王’으로도 지칭하는데 그 차이점을 구분한 사례도 있다. 손성연(孫星衍)은 『尚書今古文注疏』에서 『尚書』 「堯典上」 “曰若稽古帝堯”에 대해 “夏, 殷은 태어났을 때 王이라 칭하고 묘당에 들어가면 서부터 帝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史記』 「高祖本紀」에서 ‘王’과 ‘帝’의 호칭을 두고 漢 고조(高祖)와 제후, 장상들 간의 간청과 사양이 오고 간다. ‘帝’를 호칭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고조의 말에 제후와 장상은 “미천한 평민에서 포악무도한 역적을 주살하고 천하를 안정시켜 공을 세운 자에게 땅을 분배하고 왕후로 봉하였으니 대왕이 이와 같은 존칭을 받들지 않으면 모두가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sup>28)</sup> 이로서 ‘帝’는 한 이후로 인간 세계를 통치하는 최고의 지위에 부여하는 명칭으로 정착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c. ‘諦’

‘帝’를 ‘諦’로 해석한 대표적인 사례는 허신(許慎)의 『說文解字』이다. 허신은 ‘帝’를 “살피다. 천하를 통치하는 호칭이다”로 해석했다. 이 해석은 인간 세계의 범주와 관련 없이 최고 통치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설명한 것이다. 주준성(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에서 “帝는 덕에 임하고 형벌을 제정하여 본보기로 삼으며 능히 행할 수 있는 천도를 말하고 실천에 옮기며 살핀다.”라는 『風俗通』의 구절을 인용했다. 허신보다 이와 같은 해석이 먼저 언급된 문헌은 『白虎通』이다. 「號」에서 “帝, 諦也”는 『說文解字』의 해설과 일치하는데 후한 시기 장제(章帝)가 박사와 유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내린 결론을 허신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 3.1.2 天

‘天’은 본래 갑골문 단계에서 사람의 정수리를 뜻했던 자형이었다. 이와 동시에 정수리 위의 “하늘”도 지칭하면서 현재까지 하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자로 활용되고 있다. ‘天’은 西周 청동기부터 천체 공간으로서의 “하늘”과 더불어 商代 ‘帝’가 가진 최고신의 측면을 상당 부분 계승했다. 하지만 거북

28) 『史記』 「高祖本紀」: 正月, 諸侯及將相相與共請尊漢王為皇帝. 漢王曰, “吾聞帝賢者有也, 空言虛語, 非所守也, 吾不敢當帝位.” 群臣皆曰, “大王起微細, 誅暴逆, 平定四海, 有功者輒裂地而封為王侯. 大王不尊號, 皆疑不信. 臣等以死守之.” 漢王三讓, 不得已, 曰, “諸君必以為便, 便國家.” 甲午, 乃即皇帝位汜水之陽.”

점을 통해 帝의 의향을 파악했던 商과 달리 西周 시기 ‘天’은 점복이나 주술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그 소통의 매개체는 바로 ‘德’이다. 『詩經』 「雨無正」의 첫 구에서 “浩浩昊天，不駿其德。降喪飢饉，斬伐四國。昊天疾威，弗慮弗圖。(넓고 넓은 하늘은 은덕이 일정하지 않으시어 난리와 흉년을 내리시고 사방의 나라를 참하고 정벌하게 했다. 하늘이 매서운 위엄을 보이시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행동도 모호하지 않아서이다.)”라고 한 것은 하늘이 인간의 행동이 올바른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상벌을 내린다고 하였다. 또한, 『尚書』 「康誥」 “惟時怙冒，聞于上帝，帝休，天乃大命文王。(이로서 문왕의 다스림이 사방에 퍼지고 상제에게 알려지니 상제는 좋게 여기셨고 하늘은 이에 문왕에게 큰 명을 내리셨다.)”에서도 하늘은 통치자를 정하고 명을 내리는 존재로 묘사되는데 ‘帝’와 사실상 구별점을 찾을 수 없는 동일한 신적 존재로 상정되어 있다.<sup>29)</sup> 사실상 인간 세계의 통치자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겼다.

이처럼 ‘天’이 商代 ‘帝’를 대신하게 된 주요 원인은 인간의 사유 능력이 ‘帝’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발전했기 때문이다. 씨족 사회의 조상신 숭배, 자연신 숭배 과정에서 형상화된 숭배 대상이 ‘帝’라면 ‘天’은 씨족 사회 규모가 아닌 국가 단위의 사회를 조정할 수 있는 종교의 등장과 함께 출현한다. 즉, 생산력이 발전하고 잉여 물품에 대한 사유화가 진전되면서 씨족 사회의 숭배 대상으로는 여러 부족의 연합체 성격인 국가를 통제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대상을 숭배 대상으로 상정하기에 이르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여러 신을 숭배했던 다신교적 종교관에서 ‘天’ 중심의 세계관으로 전환된다.

‘天’에 이와 같은 각종 추상적 관념이 부여되기 시작한 시점도 이와 맞물리는데, 『周禮』 「天官」 “天官冢宰第一”에 대해 가공언(賈公彥)은 “만물을 통합하여 다스린다. (統理萬物)”고 설명했다. 『詩』 「鶴鳴」 “聲聞於天”에 대해 정현(鄭玄)은 “높고 먼(高遠)” 존재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天’을 ‘氣’와 연계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尚書』 「洪範」 “天時使得正用五紀”에 대해 공영달은 “하늘은 기가 쌓여 있어 그 모양에 형태가 없다. (天是積氣，其狀無形)”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해석은 『周易』, 『莊子』, 『論衡』 등의 내용으로부터 비롯되었다. 『莊子』 「天地」 “천지수대”에 대해 육덕명은 “원기가

29) 성시훈, 「先秦 시기 『尚書』의 사상적 특징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년 4월, 24쪽,

처음 분리될 때 맑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 天이 되고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 地가 되었다고 했다. 『論衡』 「談天」도 “天, 氣也.”라고 했다.

추상적 요소가 가미되고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가 형성되면서 이와 같은 하늘의 형상은 더욱 더 다양하게 묘사된다. 다수의 학파가 ‘天’에 인격적 요소를 추가하는데 유가가 가장 대표적이다. 공자와 맹자 모두 기본적으로 ‘天’은 인간의 불가침 대상으로 상정하면서도 인간의 도덕적 의지에 따라서 하늘이 그에 부응한다고 강조했다. 『論語』 「八佾」에서 왕손가가 군왕보다 실력가를 가까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공자는 “獲罪於天, 無所禱也.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할 곳도 없다)”라고 한 바 있다. 주희는 이 구절의 ‘天’을 ‘理’로 해석하여 가치 판단의 기준, 도리로 해석하기도 했다. 『孟子』 「梁惠王下」에서 등문공이 제나라가 설(薛)에 성을 짓는 것을 두려워하자 맹자는 “옛날에 태왕이 빈 땅에 머물 때 적인이 쳐들어왔고 도망가서 기산 밑에 살았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인 것이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후세 자손들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군자가 나라를 세우고 자손에게 전함이 계속 될 수 있느냐, 업적을 이루는가는 하늘에 달렸습니다. 군주께서 저와 같은 일을 어찌할 수 있으셨습니까, 힘써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昔者大王居邠, 狄人侵之, 去之岐山之下居焉. 非擇而取之, 不得已也. 苟為善, 後世子孫必有王者矣. 君子創業垂統, 為可繼也. 若夫成功, 則天也. 君如彼何哉? 彊為善而已矣)”라고 대답했다. 단순히 하늘의 뜻을 받드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하늘의 의지를 일부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점은 묵자 역시 강조한 바 있다. 묵자는 유가의 논 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천자와 지배층뿐만 아니라 중간 계층과 백성까지 확대해서 언급하며 그 주요 전제를 『墨子』 「天志上」에서 “然則天亦何欲何惡? 天欲義而惡不義.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하늘은 의로움을 바라고 불의를 싫어한다)”라고 제시한다.<sup>30)</sup>

30) 『墨子』 「天志上」 “天子為政於三公諸侯士庶人, 天下之士君子固明知, 天之為政於天子, 天下百姓未得之明知也. 故昔三代聖王禹湯文武, 欲以天之為政於天子, 明說天下之百姓, 故莫不牒牛羊, 豢犬彘, 潔為粢1盛酒醴, 以祭祀上帝鬼神, 而求祈福於天. (천자가 삼공, 제후, 장군, 대부, 사인, 서인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천하의 군자들이 본래 분명히 알고 있으니 하늘이 천자를 올바르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천하의 백성이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옛날 하, 은, 주 삼대의 성군인 우, 탕, 문, 무는 하늘이 천자를 올바르게 하는 것을 천하의 백성에게 명확히 해설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풀로 소와 양을 기르고 곡식으로 개와 돼지를 기르지 않음이 없었으며 정결하게 제수용 곡물과 술을 준비하여 상제와 귀신에게 제시지내고 하늘에 복을 구하고 빌었다)”



도가는 인격과 하늘의 속성에 대해 철저히 분리했다. 장자는 ‘天’을 자연의 ‘道’와 하나로 보고 “따라서 좋아하는 것이 하나이고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하나이다. 일치하는 것도 하나이며 일차하지 않는 것도 하나이다. 일치하는 것이 하늘과 같은 무리가 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람과 같은 무리가 된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이기지 않을 때 이런 사람을 진인이라고 한다(故其好之也一, 其弗好之也一. 其一也一, 其不一也一. 其一, 與天爲徒. 其不一, 與人爲徒. 天與人不相勝也, 是之謂真人.)”라고 했다. 이러한 관념은 하늘이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순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순자는 「天論」에서 하늘과 인간의 구분에 밝은 사람을 “지인(至人)”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장자가 말한 “진인”과 순자의 “지인”은 하늘과 인간 세계를 분리한 상황에서 상정한 인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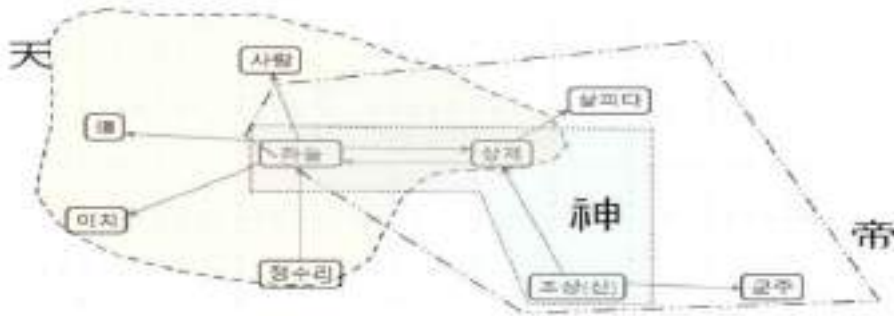
漢 武帝 이후 유학이 독존(獨尊)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하늘에 대한 인식은 동중서의 “天人相關論”으로 종합된다. 이 이론은 유가의 도덕적, 인격적인 하늘과 災異 사상을 강조했던 묵가의 하늘을 종합하여 내놓은 것이다. 이 점은 이미 천명(天命)을 내리는 천신(天神)보다 하늘과 사람의 관계 문제에 주목한 공자로부터 시작된 화두였으나 漢 이후부터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를 전개했다. 특이한 점은 공자가 제기한 화두는 하늘보다는 실제 인간 사회에 주목하고자 했으나 동중서 이후의 “天人” 관계는 다시 ‘天’을 중심으로 종교적 색채가 짙어지고 신학(神學)적 요소까지도 반영된다. 『春秋繁露』 「基義」의 “王道之三綱, 可求於天.”, 「四時之副」의 “王者配天, 謂其道. 天有四時, 王有四政, 四政若四時, 通類也, 天人所同有也.” 등이 그러한 예이다.

송대 이후 발생한 신유학(新儒學)은 ‘天’과 ‘人’을 하나로 보았다. 즉, 이전까지는 하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인성(人性)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근원을 두는지를 고찰해서 수양 방식과 방향을 결정했다면 신유학은 ‘天’과 ‘人’은 본래 하나이므로 “天道”가 바로 “心性”이라는 본체론을 주창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주희이다. 주자는 『中庸章句』에서 “博厚配地, 高明配天, 悠久無疆.”에 대해 “聖人與天地同體”라고 설명했다. 천지의 속성과 성인의 속성을 동일하게 본 것이다. 또한 주희는 하늘을 자연의 하늘 외에도 “所當然”으로 대표하는 “법칙과 질서”의 하늘, “所以然”으로 대표하는 “근원”으로서의 하늘로 구분했다.

종합하면, ‘天’은 ‘地’와 구별되는 자연 구성 요소를 표현하면서 ‘帝’와 더불어 절대 능력을 지닌 신의 의미로 사용됐다. 춘추 시기 이후부터 공자가

‘天’과 ‘人’ 중에서 ‘人’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天’은 ‘道’와 같은 정치적, 윤리적 범주에서 논의되었다가 동중서 이후로 다시 종교적 색채가 가미되면서 ‘神’과 유사한 지위를 회복한다. 이후 신유학의 “本體論”이 대두되면서 “天=人” 등식이 성립된 후,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심성은 동일한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상 ‘帝’, ‘天’으로 표시하는 의미들과 ‘神’과의 의미 관련성을 의미 지도로 작성해본다면 아래와 같다.



### 3.2. “조상” 계열 의미군 - 祖

‘神’은 西周 시대에 조상신을 지칭하는 한자로 쓰이기도 했다. 商代 이후로 “조상”을 표현했던 한자 중 대표적인 한자는 ‘祖’이다. 3.2는 “조상”, “선조” 의미 범주를 중심으로 ‘祖’의 본뜻과 의미 파생을 살펴보면서 ‘神’과의 접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上帝”에 대해 몇 가지 더 언급해볼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商代 당시의 사람들은 “上帝”가 일정한 거처가 없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직접 제사를 받지 않는 대상으로 간주했다. 세 번째로 “上帝”는 아주 먼 직계 조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부족의 시조는 신격화되어 “上帝”와 동일시하기도 했는데 곽말약(郭沫若)은 商代의 “上帝”를 “帝嚳”으로 보고 한 사람이 자연계의 절대신이자 商 부족의 시조라고 했다.<sup>31)</sup> 즉, “上帝”는 추상적 개념의 표현이고 개별 부족의 먼 조상으로 간주하는 관념은 실존적 측면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모호한 경계는 ‘神’과 ‘祖’의

31) 郭沫若, 『青銅時代』,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5年 2月, 9쪽.

용법 차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示’와 ‘且’로 구성된 ‘祖’는 춘추 시기부터 출현한다. 갑골문과 서주 금문은 ‘且’로 ‘祖’를 표시했다. 『說文解字』에서 ‘祖’는 “始廟”로 정의했다. 단옥재는 ‘始’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新)’이며 두 번째는 ‘멀다(遠)’이다. 즉, “始廟”는 “새로 만든 사당” 또는 “먼 조상의 사당”. “최초의 사당”의 뜻이다. 단옥재가 제시한 해석은 갑골문과 서주 금문 단계에서 ‘祖’ 대신 사용된 ‘且’를 통해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且’는 현재까지 정확한 기원을 알 수 없는 자형이지만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

첫 번째 가설은 “고기를 얹는 도마”를 본뜬 자형이다. 이 가설은 『說文解字』에서 “바치다(薦)”로 정의한 내용에 근거했다. 단옥재, 왕국유(王國維), 임의광(林義光)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로 ‘祖’의 초기 자형이다. 이 가설 또한 『說文解字』의 정의를 근거로 삼는데, 고기를 얹은 도마는 제사 올리는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로 간주한다. 완원(阮元)이 대표적이다.<sup>32)</sup> 세 번째 가설은 남성 생식기이다. 곽말약은 『說文解字』의 정의가 부정확하다고 간주하고 이 자형이 동물의 수컷 생식기의 외형을 본떴다고 주장했다.<sup>33)</sup> 네 번째로 “흙으로 빚은 항아리”이다. 첨은흙(詹鄞鑫)은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통해서 ‘且’가 도기 중 “흙으로 빚은 항아리”를 본뜬 상형자라고 했다. 특히 ‘酒’의 ‘酉’가 바로 술 항아리를 본뜬 자형에 착안하여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항아리를 뒤집은 형상을 조상신의 우상으로 삼았을 가능성과 두 번째로는 ‘酉(酉)’와 구별하기 위해 이 자형을 뒤집어 ‘且(且)’로 표시했을 가능성이다.<sup>34)</sup>

이 가설들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각각의 가설들 모두 조상과 관련이 깊다. 제사의 대상으로서의 조상과 더불어 남성 생식기를 통해서 혈연으로 이어지는 연관 관계로 조상과의 관련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神’은 인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측면으로부터 절대자와의 연관성에서 조상을 지칭했다면 ‘祖’는 후손들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조상을 언급한 것이다. 전래 문헌 상의 ‘祖’ 용법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a. 조상

현재 ‘祖’의 대표 의미는 조상이다. 직계 조상뿐만 아니라 신격화된 옛 시

32) [清]阮元, 鄧經元(點校), 『研經室集』「釋且」, 中華書局, 1993년.

33) 郭沫若, 『甲骨文字研究』, 科學出版社, 1962년 11월.

34) 詹鄞鑫, 『神靈與祭祀』, 江蘇古籍出版社, 1992년 6월.

조(始祖)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한자이다. 조상은 시대 간격이나 직계, 방계 등의 차이로 인해서 또 다시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우선 ‘始’로 해석한다. 『易』 「小過」 “過其祖”에서 왕필(王弼)은 ‘祖’를 ‘始’로 해석했다. 공영달은 『中庸』 “仲尼祖述堯舜”의 ‘祖’를 “시작(始)”으로 해석했다. “시작”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穀梁傳』 「僖公十五年」은 “始封必爲祖”라고 해석했다. 봉지(封地)를 하사받은 것을 기준으로 시작을 정했다. 『史記』 「孝文本紀」의 “蓋聞古者祖有功而宗有德”에 대해 배인(裴駟)은 응소(應邵)의 해석을 인용하여 “천하를 얻은 자를 始라고 한다”고 했다. 『爾雅』 「釋詁上」도 “祖, 始也”라고 정의했는데 형병(刑柄)은 이에 대해 “종묘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기도 했다. 『玉篇』 「示部」는 『說文解字』와 달리 “祖, 父之父也.”로 해석했다. 고염무(顧炎武)는 『日知錄』에서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 위의 조상 모두를 지칭한다”고 했다. 『儀禮』 「聘禮」 “卿受于祖廟”의 ‘祖’를 정현은 “王父”로 해석하기도 했다.

## b. 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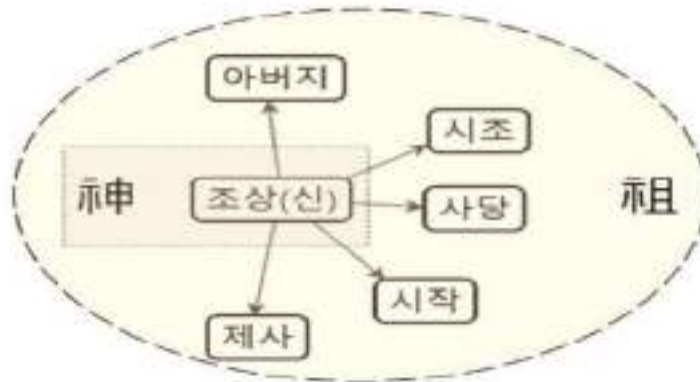
‘祖’는 조상과 관련된 공간을 지칭하기도 한다. 『說文解字』의 정의도 “始廟”이다. 『周禮』 「匠人」 “左祖右社”의 ‘祖’를 정현은 “宗廟”로 해석했다. 『漢書』 「韓安國傳」 “이렇게 때문에 옛 군주는 일을 도모할 때 반드시 ‘祖’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안사고(顏師古)는 이 ‘祖’를 “祖廟”로 해석했다. 유일(兪樾)은 『諸子平議』 「荀子四」 “封之於宋, 立其祖”의 ‘祖’는 ‘廟’가 본의라고 했다.

‘祖’를 해석하는데 ‘廟’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당 내의 공간 배치와 관련 있다. 즉, 사당 내에 제사를 올리는 조상의 모형과 시대별 조상의 위패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당의 주전(主殿)에서 시조(始祖)를 비롯한 여러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데 시조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조상의 위패를 나열한다. 부족 또는 가문에 따라 위패의 숫자가 달라지는데 적게는 10대(代) 안팎에서 많게는 몇 십대(代)의 위패를 모신다. 이를 통해서 가문의 위계질서와 종법(宗法)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사당의 규모도 사회 계급에 따라 규모를 지정했는데 『禮記』 「王制」 “天子七廟, 諸侯五廟, 大夫三廟, 士一廟”와 같이 신분별로 보유할 수 있는 사당의 개수도 지정한 내용을 볼 수 있다.

### c. 제사

‘祖’는 제사를 뜻하기도 한다.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관습은 이미 商代부터 시작되었으며 조상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하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성대하고 엄숙하게 진행됐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은 조상이 신체만 잃을 뿐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인간 세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의 자손들을 지키거나 벌을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祖’가 제사의 일종으로 해석되는 경우 “祖祭”로 해석한다. 상여가 나가기 전에 노신(路神)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儀禮』 「既夕禮」 “出祖釋輶”에 대해 정철은 “祖는 시작(始)이다. 聘享의 예를 받을 때 국문 밖으로 나가 거행한다. 수레와 기병들을 멈추고 술과 포를 풀어 도제에 바치니 거행의 시작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미 고인이 된 조상이 살아 있는 상태가 아닌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상태의 시점에서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한편, 『左傳』 「昭公七」에서 ‘祖’가 길에게 지내는 제사 용법으로 사용된다. 회맹을 앞둔 소공이 꿈에서 양공이 ‘祖’ 제사를 올리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 꿈의 해석을 두고 채신(梓慎)은 양공 또한 주공이 노신에게 제사 올린 사례를 들며 가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자복(子服)은 양공이 노신이 되어 길을 이끈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sup>35)</sup> 제사를 받는 대상 역시 주공이나 양공 등의 조상이라는 점에서 ‘祖’와 ‘神’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고대 중국인의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祖’로 표시하는 의미들과 ‘神’과의 의미 관련성을 의미 지도로 작성해본다면 아래와 같다.



35) 『左傳』 「昭公七」 “公將往，夢襄公祖。梓慎曰，君不果行，襄公之適楚也，夢周公祖而行。今襄公實祖，君其不行。子服惠伯曰，行。先君未嘗適楚，故周公祖以道之。襄公適楚矣，而祖以道，君不行何之。三月，公如楚。鄭伯勞於師之梁，孟僖子為介，不能相儀，及楚，不能答郊勞。”

### 3.3. “귀신” 계열 의미군 - 鬼

‘鬼’와 ‘神’은 분리되지 않고 이음절 어휘로 사용되기도 하며 서로 혼용하여 “鬼=神”의 관계를 성립하기도 한다. 또한 ‘鬼’는 긍정적 의미를 가진 ‘神’과 구분하여 부정적 의미를 표현하기도 했다. 사물 또는 현상을 이항 대립 관점에서 구분하여 고찰하는 서구 철학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실제로 각종 선진 문헌에서 이와 같은 용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禮記』「中庸」의 “子曰, 鬼神之爲德, 其盛矣乎!”, 『墨子』「明鬼下」의 “雖有深谿博林, 幽澗毋人之所, 施行不可以不董, 見有鬼神視之.”는 이음절 어휘 “鬼神” 관련 용례이다. 『說文』「鬼部」에 속한 ‘魘’는 ‘神’으로 해석하는데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님과 동시에 하늘의 뜻을 인간 세상에 전달하는 공포스러운 존재였던 “번개(申)”를 ‘鬼’와 결합시킨 자형이다. 허신은 이 자형을 “신령스럽다”로 해석하여 긍정적 의미를 반영했고 ‘神’과 같은 개념의 한자로 파악하기도 했다. 이처럼 ‘鬼’와 ‘神’과 유사한 의미를 공유했던 한자이다. 아래 구체적 용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3.3.1 鬼

‘鬼’ 역시 ‘神’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대상을 실존하는 대상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만들어진 자형이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본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영삼은 이전 연구 성과와 갑골문 용례, 『說文』「鬼部」 부속자를 귀납하여 ‘鬼’의 본의를 분석한 바 있다. 그는 ‘鬼’가 처음부터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것을 개념화하기 위해 출발한 글자라고 추측했다. 자연물을 상형하는 방식으로 추상적 의미를 표현했던 ‘神’과 달리 ‘鬼’는 인류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극복하기 어려운 “죽음”에 대한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가정한 것이다. “공포에서 유래한 낯섦”에서 “이상하다”, “낯설다”라는 서술적 개념 외에 “귀신”이라는 명사적 개념이 등장했고 “이상하다”, “낯설다” 등의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鬼’, ‘異’, ‘畏’ 등으로 분화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의 가설은 “사람과 비슷한 이상한 동물의 형상”, “사람의 몸체에 커다란 머리를 가진 이상한 것”, “얼굴에 철가면을 쓴 모습”, “가면을 쓴 채 돌림병을 몰아내는 방상시와 같은 제사장의 모습” 등으로 해석했으나 공통적으로 사람의 형상에 가면을 쓴 형상이 ‘鬼’ 고

문자 자형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추정 은 마왕퇴(馬王堆)에서 발견된 관의 그림이나 산해경의 여러 귀신이 사람의 몸에 이상한 얼굴로 형상화된 모습에서 확인 가능한데, 낮은 공포를 공포로만 대하지 않고 자신에게 더 우호적으로 전환하고자 제사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으므로 기존의 ‘鬼’에 ‘示’를 더했다고 분석했다.

『說文』 「鬼部」 부속자도 귀신에 대한 부정적 개념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며 긍정적 개념과 중립적 개념도 포함하는데 그 예로 신령스런 귀신을 뜻하는 ‘魘’, 양의 기운을 뜻하는 ‘魂’, 음의 기운을 뜻하는 ‘魄’, 오래된 정령을 말하는 ‘魍’, 귀신의 모습을 뜻하는 ‘魑’, 귀신을 신봉하는 풍습인 ‘魑’, 신령스러운 동물을 말하는 ‘魑’ 등이 있다.

하영삼의 분석은 ‘鬼’의 기원뿐만 아니라 ‘神’과의 연계성이나 중국 고대 종교 관념을 살펴보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周禮』에서 제사 대상을 “天神”, “地示”, “人鬼” 세 가지로 구분하고 『說文』에서 ‘鬼’를 “人所歸爲鬼(사람이 돌아가야 할 바를 鬼라고 한다)”고 해석했다. 『禮記』 「祭義」는 “眾生必死, 死必歸土, 此之謂鬼. (중생은 반드시 죽으며 죽으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鬼라고 한다)”고 했다. 『周禮』에서 ‘鬼’를 사람과 연계하고 『說文』과 『禮記』는 사람이 죽어 형성되는 대상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조상신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다.

한편, ‘鬼’를 일종의 기운(氣運) 또는 영혼(靈魂)으로도 해석하기도 했는데 정현(鄭玄)은 『禮記』 「樂記」의 “幽則有鬼神”에서 ‘鬼’를 “현명한 지혜가 지닌 정기(賢知之精氣)”라고 정의했다. 또한 『禮記』 「禮運」 “列於鬼神”에 대해서도 “정신과 혼백이 돌아가는 것(精魂所歸)”으로 해석했다. ‘鬼’를 기운이나 영혼으로 해석하는 용례는 『論衡』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訂鬼」편에 ‘鬼’를 기운의 관점에서 해석했는데 “사람을 병들게 하는 기의 일종(人所見得病之氣也)”, “오래된 사물의 정기(老物精也)”, “귀신의 출현은 사람을 닮은 요기(鬼之見也, 人之妖也)” 등이 있으며, 「論死」편은 “귀신은 음양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음기는 사물을 거슬러 돌아가기 때문이 이를 鬼라고 한다. (鬼神, 陰陽之名也. 陰氣逆物而歸, 故謂之鬼)” 등이 그 예이다. 이 관점은 귀신 역시 천지, 자연의 질서 속에 포함된 요소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자연신의 의미 영역과 관련성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후 주희의 “鬼神論”은 鬼·神·魂·魄·陰·陽·理·氣 여덟 가지 기본 개념을 토대로 정립되기도 했다.

이처럼 ‘鬼’가 표현하는 의미는 조상신과 자연신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

렵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으며 전국 시대 제자학과 사이에서도 ‘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 유가는 ‘鬼’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예(禮)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경의 예로서 귀신을 대했다. 『論語』「雍也」의 “務民之義，敬鬼神而遠之，可謂知矣. (백성의 의로움에 힘쓰고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한다면 가히 안다고 할만하다)”, 「先進」의 “未能事人，焉能事鬼. (아직 사람을 능히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능히 섬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추상적 형태로 이해하면서 직접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으려 했다. .

도가는 무신론에 입각한 “도론(道論)”을 역설했던 학파이므로 上帝나 하늘, 귀신 등도 도의 작용 여하에 따라 존재한다. 『老子』 4장에서도 “道沖而用之，或不盈，淵兮似萬物之宗. (도는 텅 비어 있지만 계속 쓰여지며 항상 가득 차는 법이 없다. 심오하다. 만물의 뿌리인 것 같다)”와 같이 “도(道)”를 정의했으며 그에 이어서 “吾不知誰之子，象帝之先. (나는 그것이 누구의 주석인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상제의 조상인 것 같다)”라고 파악했다. 上帝마저도 “도(道)”의 작용 하에 존재하는 대상일 뿐이며 도의 신묘함을 뒷받침해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유 방식은 장자(莊子)로도 전승되어 다른 학파와 달리 종교적 사유를 배제하고 인간과 자연 세계의 관계를 해석하고자 했다.

귀신(鬼)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논의했던 학파는 묵가이다. 묵가의 핵심 사상은 겸애(兼愛)이다. 겸애를 실현하기 위한 사상적 토대는 하늘의 뜻인 “天志”이다. 하늘이 왕을 비롯한 통치자를 감시하고 세상 사람의 학식과 말들을 살펴본다고 생각했다. 감시한 후 좋고 나쁨에 따라 상벌을 시행하는데 그 임무를 귀신이 담당한다고 했다. 귀신의 종류에 대해 『墨子』「明鬼」下에서 “子墨子曰，古之今之爲鬼，非他也，有天鬼，亦有山水鬼神者，亦有人死而爲鬼者. (묵자왈, 옛날과 지금 귀신으로 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의 귀신이 있고 또한 산수의 귀신이 있으며 사람이 죽고 난 후 귀신이 된 것도 있다)”로 구분했고 “今若使天下之人，偕若信鬼神之能賞賢而罰暴也，則夫天下豈亂哉? (만약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이 현명한 자를 상주고 포악한 자를 벌한다고 믿게 한다면 천하가 어찌 어지럽겠는가?)”와 같이 귀신의 공통 임무를 규정했다. 묵가는 귀신의 존재를 전지전능한 하늘의 뜻을 보좌하여 상벌을 시행하는 신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鬼’는 漢 이후부터 ‘神’의 반의어 용법처럼 사용했다. 긍정적인 의미는



‘神’으로 귀속되고 부정적 의미는 ‘鬼’로 귀속된 것이다.

이상 ‘鬼’으로 표시하는 의미들과 ‘神’과의 의미 관련성을 의미 지도로 작성해본다면 아래와 같다.



### 3.4. “영혼” 계열 의미군 - 魂, 靈

‘神’은 본래 번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번개와 같은 기후를 통해서 인간이 파악하기 힘든 현상이나 그 현상을 주관하는 대상을 지칭하게 되었다. 현재의 “절대신”뿐만 아니라, 절대신을 지칭하기에 앞서 “천신(天神)”, “조상신(祖上神)”, 천신 이외의 여러 다양한 신을 뜻하는 “百神”, “群神” 등이 구체적인 대상에 속한다. 이처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거시적 세계 뿐만 아니라 미시적 관점, 다시 말해서 개인이나 특정 사물의 개체와 관련된 특수 현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즉, 절대신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개인 또는 특정 사물을 지배하는 대상을 지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두 한자 ‘魂’과 ‘靈’을 통해서 ‘神’의 또 다른 의미 영역을 살펴본다.

#### 3.4.1 魂

‘魂’은 ‘云’과 ‘鬼’로 구성된 자형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출토자료에서는 ‘云’과 ‘鬼’의 조합으로 구성된 자형은 찾아볼 수 없다. 『說文解字』에 수록된 ‘魂’이 가장 이른 시기의 자형이다. 허신은 이 자형을 “陽氣”로 해석했다. 비록 이 자형은 출토 자료에 없으나 통가 용법으로 출현한 용례는 있다. 淸華簡 『祭公』 3호간 ‘魂’은 ‘員’과 두 ‘虫’로 구성된 자형으로 정리자는 이

자형을 ‘𩇛’로 예정한 후, ‘魂’으로 해석했다.<sup>36)</sup> ‘云’과 ‘員’은 전국 시대 초간에서 서로 통가된 사례가 많다. 광점초간과 상박초간의 『緇衣』에 쓰인 ‘員’은 모두 ‘云’으로 해석한다. 주준성(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에서 ‘魂’의 가차자로 ‘員’을 제시하기도 했다.<sup>37)</sup> 따라서 ‘𩇛’은 ‘魂’으로 해석할 근거는 충분하다. 이 자형이 포함된 구절 역시 “나의 몸은 아직 여기 있지만, 나의 혼은 우리 소왕이 계신 곳에 있어 천명을 모를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朕身尚在茲，朕魂在朕辟昭王之所，亡圖不知命)”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신체와 대비를 이루는 대상을 표시한다.

전래문헌의 ‘魂’ 역시 신체와 대비를 이루는 대상을 지시하는데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左傳』「昭公七」“사람이 태어나면 비로소 변화되는 것을 ‘魄’이라고 하고魄이 생긴 후에 그 양기를 ‘魂’이라고 합니다. (人生始化曰魄，既生魄，陽曰魂)”에 대해 두에는 “陽의 신기(神氣)”라고 해석했다. 또한 『楚辭』「大招」“魂魄歸來”에 대해 왕일(王逸)은 “陽氣의 정수이다. (陽之精也)”라고 해석했다. 고유(高誘)도 이와 비슷하게 해석하는데 『呂氏春秋』「禁塞」“費神傷魂”의 ‘魂’은 “사람의 양의 정기(人之陽精)”라고 했으며 “양의 정기를 ‘魂’이라 하고 음의 정기를 ‘魄’이라고 한다. (陽精爲魂，陰精爲魄)”라고 구분하기도 했다. ‘魂’은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상태가 변화하고 이동하는 특징을 설명하기도 했다.

『左傳』「昭公七」“魄이 생긴 후에 그 양기를 ‘魂’이라고 합니다. (既生魄，陽曰魂)”에 대해 공영달은 “存亡既異，別爲作名，改生之魂曰神，改生之魄曰魂”로 해석했다. 한편, ‘魂’을 정의하는데 학자에 따라 ‘精’, ‘氣’를 사용하는데 『論衡』「紀妖」는 “夫魂者，精氣也.”로 정의해서 인간의 생존을 좌우하는 정신적 측면과 기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魂’과 ‘神’을 연결 짓는 주석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大戴禮記』「曾子天圓」“陽之精氣曰神”에 대해 노변(盧辯)은 “神爲魂”으로 설명했다.

### 3.4.2 靈

‘靈’의 고문자 자형은 ‘巫’ 대신 다른 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춘추 시대 초기의 『秦公罇』 ‘𩇛’는 ‘靈’과 ‘心’으로 구성된 자형이며, 춘추 말기 『庚壺』 ‘𩇛’는 ‘示’로 구성됐다. 전국 시기 이후로는 ‘玉’으로 구성된 자형도 등

36)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 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 中西書局, 2010년 12월, 174쪽.

37)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中華書局, 1984년 6월, 790쪽.

장한다. 詛楚文 『湫淵』 ‘靈’, 『陶彙』 9.88 ‘靈’은 모두 ‘玉’으로 구성된 자형이다. 『說文解字』에 수록된 ‘靈’ 역시 ‘玉’으로 구성된 자형이며 허신은 “靈은 무당으로 옥으로 신을 섬긴다.(靈巫以玉事神)”로 정의했다. 또한 이를 보충하기 위해 ‘巫’로 구성된 ‘靈’도 흑체로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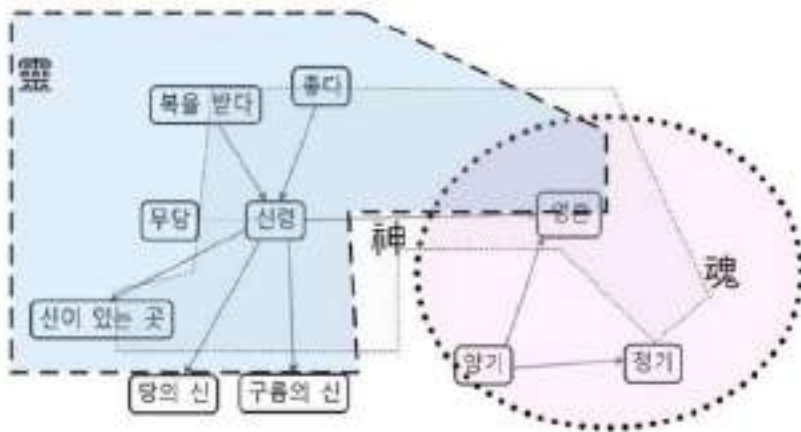
허신의 정의와 별도로 춘추 시기 고문자까지 종합한다면 ‘靈’은 무당의 의미로 고정되기 이전에 ‘心’, ‘示’를 통해서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양수달(楊樹達)은 『積微居金文說』의 「庚壺跋」에서 “금문의 ‘示’로 구성된 ‘靈’이 ‘신령’을 표시하는 본자이며 허신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자형”이라고 했다. 전래문헌에서 ‘靈’을 ‘神’ 또는 “신령(神靈)”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神’과 관련된 용어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尚書』 「泰誓上」 “惟人萬物之靈”에서 공안국(孔安國)은 ‘靈’을 ‘神’으로 해석했다. 위소(韋昭)는 『國語』에 쓰인 ‘靈’에 대해 대부분 ‘神’으로 해석하는데 『晉語七』의 “君之靈也”의 ‘靈’도 ‘神’으로 해석했다. 또한 공영달은 ‘靈’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을 제시했는데 『禮記』 「禮運」 “何謂四靈”에 대해 “靈이라고 칭하는 것은 神靈의 뜻이다”라고 했다. 『詩經』 「靈臺」 “經始靈臺”는 ‘靈’이 ‘神’의 별칭이라고 했으며 「靈臺」의 小序 중 “靈臺, 民始附也.”에서는 ‘靈’을 신의 깨끗하고 맑은 것(精明)을 지칭한다고 했다. 한편, 구체적인 신의 종류를 들어 해석한 사례도 있다. 『楚辭』 「雲中君」 “靈皇皇兮既降”의 ‘靈’을 왕일은 “구름의 신”으로 특칭해서 설명했다. 『大戴禮記』 「曾子天圓」 “陰之精氣曰靈”의 ‘靈’에 대해서는 왕빙진(王聘珍)이 “땅의 신령[地祇]”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 밖에, 왕일은 『楚辭』 「離騷」 “欲少留此靈瑣兮”의 ‘靈’을 “신이 있는 곳”으로 해석했으며 주희는 『楚辭』 「東皇太一」 “靈偃蹇兮姁服”의 ‘靈’에 대해 신이 무당의 몸에 강림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 설명은 허신의 정의와 ‘神’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靈’이 “복을 받다”, “좋다”, “충애하다” 등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廣韻』 「青韻」에서 ‘靈’을 ‘福’, ‘善’, ‘寵’으로 해석한 사례도 있다. 전래문헌 중에서도 작성 연대가 비교적 이른 『詩經』과 『尚書』에도 두 가지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보인다. 『尚書』 「盤庚下」 “弔由靈”에 대해 공안국은 ‘靈’을 ‘善’으로 해석했다. 공영달은 「呂刑」 “苗民不用靈”의 ‘靈’을 ‘善’으로 해석했다. 정현도 『詩經』 「定之方中」 “靈雨既令”의 ‘靈’ 역시 ‘善’으로 해석하여 때마침 내리는 좋은 비로 해석했다. ‘福’으로 해석하는 용례는 『左傳』 「昭公三十二」의 “今我欲徼福假靈于成王”, 「哀公二十四」 “寡君欲徼福於周公, 願乞靈於臧氏” 등이 있다. 홍량길(洪亮吉)은 『廣雅』를 인용하여 ‘靈’을

‘福’으로 해석했다. 이처럼 ‘靈’과 ‘福’이 유사한 의미로 나열하는 방식은 출처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상박초간 『吳命』 8호간 “先王之福, 天子之靈”도 『左傳』과 유사한 구조의 문장이다. 그 밖에도 『文選』 「景福殿賦」의 “浚虞淵之靈”에 대해 장선(張銑)은 ‘靈’을 “美言之”라고 해석했다. 『文選』 「東京賦」 “祚靈主以元吉”에 대해 설중(薛綜)은 ‘靈’을 ‘明’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靈’을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소리를 표시하는 ‘靈’으로부터 비롯한다. ‘靈’은 갑골문 자형으로 ‘靈’ (합 592), ‘靈’ (합 6198)과 같다. 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본뜬 자형으로 갑골문 단계에서는 사람 이름으로만 사용됐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서주 청동기도 이와 동일한 구조로 계승된다. 『沈子也簋』의 ‘靈’, 『此鼎』의 ‘靈’이 그 예이다. 서주 청동기 용례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용례는 “靈終”이다. 『小克鼎』 (集成 2796)의 “靈終”은 “靈終”으로 해석하며 『詩經』 「既醉」 “高朗令終”의 “令終”과 같은 뜻이다. 주희는 『詩集傳』에서 “令終”을 “善終”으로 해석했다. 오래도록 살다가 편안히 생을 마감하는 뜻으로 『尚書』 「洪範」에서 제시한 “五福”의 하나인 “考終命”과 같은 뜻이다. 춘추 시기 청동기 『叔尸鐘』 “靈命難老”의 “靈命”도 역시 “善終”과 같은 뜻이며 “靈命”으로 해석한다. 전국시대 상박초간 『緇衣』 14호간에 인용된 『尚書』 「呂刑」의 “苗民非用靈”은 전래본 『尚書』 「呂刑」의 “苗民不用靈”과도 일치한다. 즉, 서주 시대부터 전국 시대까지 ‘靈’은 줄곧 긍정적 의미를 수반한 통가자 ‘靈’으로 표시해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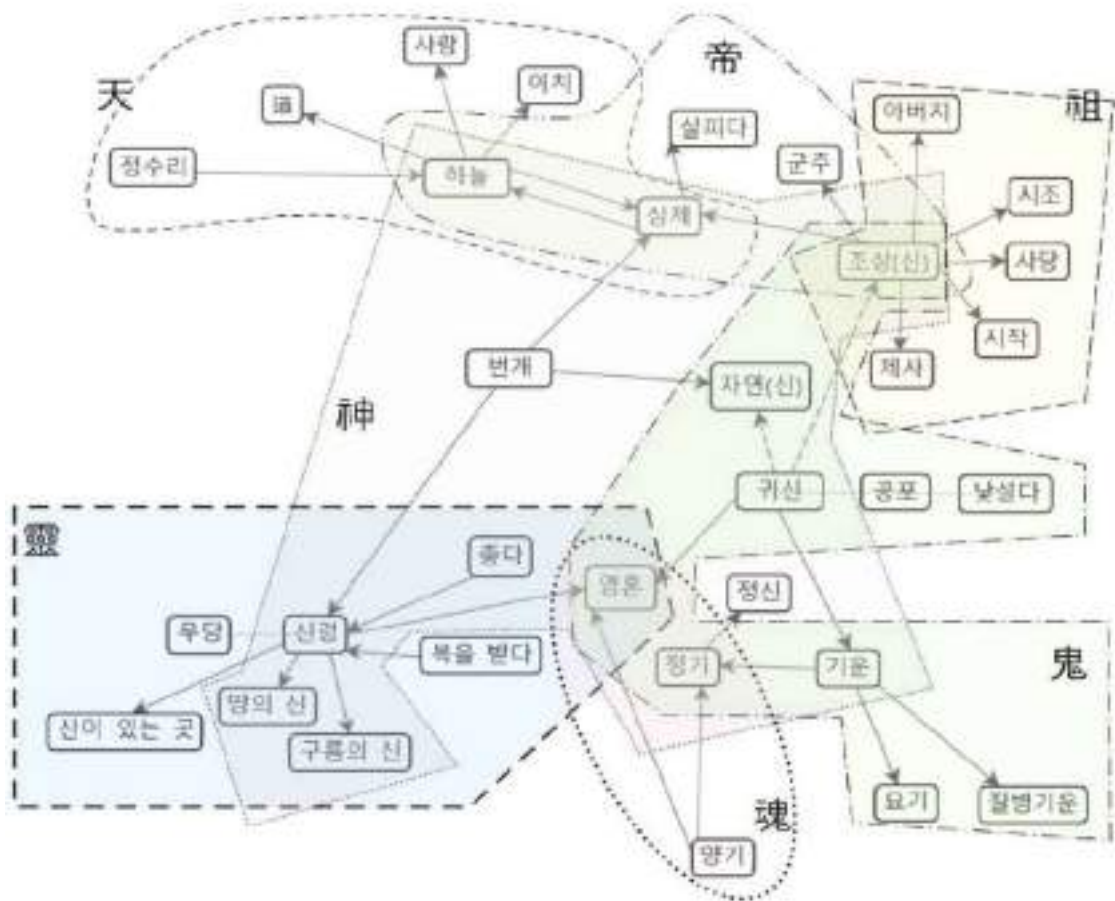
이상 ‘靈’, ‘魂’으로 표시하는 의미들과 ‘神’과의 의미 관련성을 의미 지도로 작성해본다면 아래와 같다.



## 4. 결론

지금까지 ‘神’이 포함한 여러 가지 의미 유형과 ‘神’과 의미상 관련이 깊은 한자와의 의미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한자는 품사와 의미에 따른 어형 변화가 없는 문자이므로 개별 한자가 표현하는 의미는 시대와 저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통용되는 한자 의미를 토대로 고대 문헌을 해석할 때 적지 않은 오류를 범한다. 이와 같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본고는 ‘神’을 중심으로 개별 한자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이 의미들과 관련된 다른 한자와의 의미 중첩 현상을 살펴보았다. 의미 중첩은 의미 지도를 활용해서 중첩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시각화하여 의미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편리하도록 했다. 같은 의미를 표시한다고 해도 본의가 서로 다른 한자들이라면 각 한자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의미 파생 현상을 통해 같은 의미에 도달하는 과정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3장에서 ‘神’의 여러 의미를 유사한 정도에 따라 4가지 의미군을 형성하여 관련 한자와의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이 의미군을 모두 통합하여 ‘神’이 표시하는 의미 전체와 3장에서 제시했던 한자와의 관련성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 [참고문헌]

- [漢]司馬遷 著, 『史記』, 中華書局, 1959.
-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中華書局, 1984.
- [清]阮元, 鄧經元(點校), 『研經室集』「釋且」, 中華書局, 1993.
-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 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 中西書局, 2010.
- 季旭昇, 『說文新證』,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10.
- 李學勤 主編, 『字源』,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12.
- 李宗焜 編著, 『甲骨文字編』, 北京: 中華書局, 2012.
- 裘錫圭, 『裘錫圭學術文集·甲骨文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 上海古籍出版社 編, 『十三經注疏』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 宗邦福·陳世鏡·蕭海波主編, 『故訓匯纂』, 北京, 商務印書館, 2003.
- 郭沫若, 『甲骨文字研究』, 科學出版社, 1962.
- 郭沫若, 『青銅時代』,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5.
- 詹鄞鑫, 『神靈與祭祀』, 江蘇古籍出版社, 1992.
- 王中江, 『簡帛文明與古代思想世界』, 北京大學出版社, 2011.
- 朱鳳翰, 「商周時期的天神崇拜」, 『中國社會科學』1993年 第4期, 1993年.
- 김승현, 「현대중국어 유의어의 의미특징과 유형학적 분석 - ‘和’, ‘跟’, ‘同’, ‘與’를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86집, 2020년 02월.
- 박성우·문치웅, 「출토자료를 통해 본 ‘天’의 본義와 변천 연구」, 『중국어문논총』 97輯, 2020년 2월.
- 문치웅, <sup>38)</sup>「『史記(史記)』「五帝本紀(五帝本紀)」에 나타나는 인물관계 기록의 문제점」, 『동아시아고대학』 40, 2015년 12월.
- 문치웅, 김은진, 「고대국가 형성 초기에 이루어진 치수사업과 그 내용」 『고조선단군학』 30, 2014년 6월.
- 류동춘, 「甲骨文과 金文 속 ‘以’의 의미지도」, 『한중언어문화연구』 86집, 2016년 02월.
- 성시훈, 「先秦 시기 『尙書』의 사상적 특징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년 4월, 24쪽.
- 永原慶二, 『20世紀日本の歴史學』, 吉川弘文館, 2003.
- 熊田亮介, 「夷狄·諸蕃と天皇」 『日本の歴史 第08卷 古代天皇制を考える』, 講談社, 2001.
- 早川庄八, 「律令制と天皇」 『日本古代官僚制の研究』, 岩波書店, 1986.





## 2 『三國遺事』 古朝鮮條의 기록에서 “古”의 의미와 그 기간

이경숙(공주대)

### 목 차

1. 緒論
2. ‘上古’와 ‘昔’
3. ‘古’에 대한 시기 구분 및 古朝鮮의 ‘古’시기
4. 結論

### 1. 緒論

『三國遺事』 고조선조<sup>1)</sup>에는 단군왕검이 건국한 朝鮮에 대해 고조선이라

- 1) 『三國遺事』는 고려의 승려 일연(1206년~1289년)이 충렬왕 7년(1281년) 인각사(麟角寺)에서 편찬하였는데, 청년시절부터 사료를 수집하였고 70대 후반부터 84세로 죽기까지 만년에 원고를 집필하였다고 한다. 『三國遺事』는 전체 5권 2책 9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은 왕력 제1편과 기이(紀異) 제1편으로 왕력은 삼국, 가락국, 후고구려, 후백제 등의 간단한 연표이고, 기이 제1편은 고조선부터 남북국시대 이전까지 역사를 다루었다. 권2는 기이 제2편으로 신라 후기와 고조선부터 고려 건국 이전까지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권3, 4, 5부터 불교에 대한 내용으로 권3 제3편은 흥법(興法), 권3 제4편은 탑상(塔像), 권4 제5편은 의해(義解), 권5 제6편은 신주(神呪), 권5 제7편은 감통(感通), 권5 제8편은 피은(避隱), 권5 제9편은 효선(孝善)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판(原版)은 전하지 않으며 조선 초기 간행본으로 송은본(학산본, 광영대 소장), 니산본, 범어사본, 파른본(원 소장자 손보기, 현 연세대박물관 소장), 석남본(필사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조종업본이 있다. 조선 중기 이후의 중중임신간본(정덕본)으로 규장각본(원 소장자 황의돈, 현 서울대학교 소장), 만송문고본(원 소장자 김완섭, 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최남선소장본(광문회본, 원 소장자 최남선, 현 고려대학교 소장), 일본 덴리대 소장 순암수택본, 호사문고 소장본, 간다 집안 소장본이 있다. 중중 임신본은 현재 한국에 전하는 三國遺事의 판본으로써 가장 완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오자와 결자, 탈자가 포함되었고 전도되거나 체제나 협주 방식이 잘못 기재되고 문장이 서로 뒤바뀐 내용이 많으며 같은 중중 임신본끼리도 소장본에 따라서 출입이 잦다는 지적이 있다.

부르고 있다. 아직도 학계에서는 왕검조선을 왜 고조선이라 부르는지에 대해 정확히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대 구분에서 古代의 시기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적 범위의 구분도 불분명하여 막연히 과거에 대해 ‘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문자학적 ‘古’의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에 起因한다.

시대 구분을 위한 시간사로서의 한자로는 昔, 古, 中, 近 등과 같은 字들이 있으며, 연도를 나타내는 의미의 字로는 載, 歲, 年, 祀 등이 있다. 이러한 시간적 의미의 한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미와 그 쓰임에 대한 명확한 의미 파악과 그 적용은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역사의 바른 이해와 정립, 사건 또는 인물의 활동 시대와 순서, 문명 또는 문화의 발달 과정 및 기원, 형성, 전파의 이해를 위해서는 문자학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시대 구분이 분명하지 못하면 후대에 만들어진 개념의 적용으로 사건들이 잘못 기록되기도 하고, 특정 인물들의 지위와 위치가 잘못되어 특정 시기 중심적 인물이 저평가되기도 하고 주변 인물이 중심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 문헌에서 정리된 ‘古’에 대한 시간적 의미를 바탕으로 주요 문헌에 등장하는 시대 구분을 비교, 정리하여 三國遺事 고조선의 ‘古’에 대한 의미와 그 기간을 구체화 시켜 나아가고자 한다.

기존 논문에서의 ‘古’에 대한 시간적 의미로는 ‘古’와 ‘昔’의 時代 解釋과 區分, 《說文解字》를 포함한 文字學 문헌에서의 시대 구분, 三經에서의 ‘古’의 時期 解釋<sup>2)</sup> 등이 있다. 또한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고의 시대 구분에 대하여 시기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三國遺事的 고조선의 ‘古’의 시대를 관련지어 탐구한다.

이 연구를 통해 三國遺事 고조선에서 단군왕검이 건국한 조선에 대해 고려 때에 왜 古朝鮮이라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으며, 역사의 시기로서 고대의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에 대한 역사 한자적인 해석과 이해가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三國遺事 고조선 전체 기록의 내용 분석을 통해 고의 시간적 범위와 비교하여 단군조선의 이어진 기간을 파악하는 데에도

---

이계복이 중간한 책판은 19세기 중반까지 경주부에 보관되었지만 현재는 전하지 않으며, 중중 임신본을 인행(印行)한 몇 종의 간행본이 현재 국내외에 전하고 있다.

2) 李鏡淑, 文致雄(2019)의 "'古'와 '昔'에 나타나는 時代 解釋과 區分에 대한 考察", 《漢文古典研究》, 한국한문고전학회, 第39輯, pp.339~365, 李鏡淑, 文致雄(2020), "'古'의 時代 區分考察 — 《說文解字》 및 그 연구서류와 관련 字典類에서의 의미 해석" 《중국학논총》, 한국중국문화학회, 第67輯, pp. 43~60, 李鏡淑, 文致雄(2020), "三經에 나타난 '古'의 時期 解釋", 《漢字漢文教育》,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第49輯, 115-134.

도움이 될 것이다.

## 2. '上古'와 '昔'

上古, 中古, 下古는 모두 광의의 '古'에 포함되어 구분할 수 있다. 특히 “上古 시대는 인류의 까마득히 먼 과거 시대를 가리키며, 이 시대에는 문자가 아직 사용되기 전이고, 이 때문에 結繩으로 통치하였다. 그리고 이 시대를 '昔'이라고도 하였다.”<sup>3)</sup> 즉 '上古'와 '昔'의 시대는 동일한 시간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上古'와 '昔'에 대한 시기의 정의는 아래의 문헌 등의 내용을 통하여 그 일면을 모색하여 추정한 것이다.

① 《韓非子·五蠹》：“上古之世，人民少而禽獸眾。人民不勝禽獸蟲蛇，有聖人作，構木為巢以避群害，而民悅之，使王天下，號曰有巢氏。”(上古시대는 사람들이 적었고, 동물들은 많았다. 사람들이 들짐승, 날짐승, 뱀, 벌레 등을 이길 수 없었다. 성인이 나와 나무를 엮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위험을 피하게 하니,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를 왕으로 삼고, 有巢氏라고 이름 하였다.)

② 《周易》 “上古結繩而治，後世聖人易之以書契。”(上古에는 結繩으로 다스리고, 後世의 聖人은 이것을 바꾸어 書契로 하였다.)”

③ 《許慎·說文解字序》：“及神農氏，結繩為治，而統其事。(神農氏에 이르러, 結繩으로 다스리어 일들을 통일하였다.)” 段玉裁·《說文解字注》：“謂自庖犧以前，及庖犧及神農，皆結為治，而統其事。(庖犧이전에서부터, 庖犧와 神農에까지, 모두 結繩으로 다스리어 일을 통일시켰다.)”

④ 《莊子·胠篋》：“昔者 容成氏，大庭氏，伯皇氏，中央氏，栗陸氏，驪畜氏，軒轅氏，赫胥氏，尊盧氏，祝融氏，伏羲氏，神農氏；當是時也，民結繩而用之。(昔에 容成氏，大庭氏，伯皇氏，中央氏，栗陸氏，驪畜氏，軒轅氏，赫胥氏，尊盧氏，祝融氏，伏羲氏，神農氏가 있었는데 이 때 당시에 백성들이 새끼로 매듭을 지어 기호로 사용하였다.)”<sup>4)</sup>

3) 李鏡淑, 文致雄(2019), "'古'와 '昔'에 나타나는 時代 解釋과 區分에 대한 考察", 《漢文古典研究》, 第39輯, pp.339~365.

4) 문헌의 내용은 대부분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http://ctext.org/guanzi/shu-yan/zh:>(經典)(검색일:2021.06), <http://hanji.sinica.edu.tw/>中央研究院

《韓非子·五蠹》에 “上古之世，人民少而禽獸眾。人民不勝禽獸蟲蛇，有聖人作，構木為巢以避群害，而民悅之，使王天下，號曰有巢氏。”(上古시대는 사람들이 적었고, 동물들은 많았다. 사람들이 들짐승, 날짐승, 뱀, 벌레 등을 이길 수 없었다. 성인이 나와 나무를 엮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위험을 피하게 하니,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를 왕으로 삼고, 有巢氏라고 이름 하였다.)라고 한 것은 ‘上古’에 대하여 아직 사람들의 문명이 활발히 전개되기 이전의 시대라고 묘사한 것으로 《周易》에 보이는 “上古結繩而治，後世聖人易之以書契。”(上古에는 結繩으로 다스리고, 後世의 聖人은 이것을 바꾸어 書契로 하였다.)와 연결하여 고찰해 볼 때, 문자가 아직 발명되기 전임을 알 수 있다.

즉 上古시대에는, 짐승의 해를 피하기 위하여, 나무 위에 집을 지어 생활하고, 문자가 아직 없었으므로, 結繩을 통하여 상호 간에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에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는 書契로 발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겠다. 이는 “及神農氏，結繩爲治，而統其事。(神農氏에 이르러, 結繩으로 다스리어 일들을 통일하였다.)”라고 설명한 許慎의 《說文解字序》와 “謂自庖犧以前，及庖犧及神農，皆結爲治，而統其事。(庖犧이전에서부터, 庖犧와 神農에까지, 모두 結繩으로 다스리어 일을 통일시켰다.)”라고 주를 달은 段玉裁의 《說文解字注》에 의하여, 확실히 伏羲, 神農 시대는 모두 結繩을 통치 방법으로 사용하던 시기로, 아직 문자가 사용되지 못하였던 上古시대로 究明할 수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莊子·胠篋》의 “昔者 容成氏，大庭氏，伯皇氏，中央氏，栗陸氏，驪畜氏，軒轅氏，赫胥氏，尊盧氏，祝融氏，伏羲氏，神農氏；當是時也，民結繩而用之。(昔에 容成氏，大庭氏，伯皇氏，中央氏，栗陸氏，驪畜氏，軒轅氏，赫胥氏，尊盧氏，祝融氏，伏羲氏，神農氏가 있었는데 이 때 당시에 백성들이 새끼로 매듭을 지어 기호로 사용하였다.)”<sup>5)</sup>에서 찾아볼 수 있는 ‘昔’시대에는 伏羲, 神農 이외에도 다른 많은 씨족, 부족 사회에서 結繩을 사용한 것과 여기서의 ‘昔’이 上古시대와 같은 시대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上古’는 문자 발생 이전의 시대이며, ‘昔’이라고도 했다고

---

漢籍電子文獻(검색일:2021.06)

5) 이하 문헌의 대부분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인용하였다.

[http://ctext.org/guanzi/shu-yan/zh:\(經典\)](http://ctext.org/guanzi/shu-yan/zh:(經典))  
, <http://hanji.sinica.edu.tw/中央研究院漢籍電子文獻>(검색일:2019.6)을 참고하여 인용함.

정리할 수 있겠다.<sup>6)</sup> 『三國遺事』古朝鮮條에 <古記>를 인용한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⑤ “古記云昔有桓國(謂帝釋也). 庶子桓雄數意天下貪求人世, 父知子意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遣往理之.<sup>7)</sup> (옛날에桓國이 있었다. (帝釋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한다.) 庶子인桓雄이天下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人間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天符印 세 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여기서 ‘昔’이라는 시대가 나온다. 이 시기는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의 시기인上古시기를 말한다. 그 뒤 문장을 다시 보겠다.

⑥ “將風伯 雨師 雲師하시고, 而主穀 主命 主病 主刑 主善惡하시며,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6) ‘古’와 ‘昔’에 나타나는 時代 解釋과 區分에 대한 考察, 《漢文古典研究》, 한국한문고전학회

Journal of Korea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2019, 第39輯, pp.45~365, 343쪽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 일연지음 《三國遺事》,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greatcorea10/220064388726/>)/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단군왕검이 탄생하기까지 환인(환국), 환웅, 웅녀의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그런데 ‘석유환인(昔有桓因)’으로 기록된 판본이 있고 ‘석유환국(昔有桓國)’으로 기록된 판본이 있다. 조선 중기 이후 간행본인 정덕본(正德本)으로 서울대규장각본과 만송문고본에는 ‘석유환국(昔有桓國)’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三國遺事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第一 古朝鮮王儉朝鮮에는 원문은 ‘昔有桓因’으로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교감하였다. 『古記云, “昔有桓因 謂帝釋也. 庶子桓雄數意天下貪求人世. 父知子意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遣往理之.”』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桓因) (제석(帝釋)을 말한다.)의 서자(庶子)인 환웅(桓雄)이 천하(天下)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인간(人間)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조선 중종 임신본(1512년)에는 ‘因’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임신본보다 이른 조선 태조 3년(1394)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른본 《三國遺事》에 ‘因’으로 되어 있다. ‘因’은 ‘口’안의 ‘大’를 흘려 써서 판각할 때 나타나는 글꼴로, 고려대장경에도 동일한 자형이 확인된다(연세대학교 박물관, 2016《파른본 三國遺事 교감》, 58쪽). 《제왕운기(帝王韻紀)》와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에 인용된 《단군고기(檀君古記)》에도 ‘因’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因’으로 교감한다.”

조선 중종 임신본(1512년)에는 ‘因’으로 되어 있다. 남구만(1629~1711년)이 지은 《藥泉集》, 류광익(1713~1780년)이 지은 《楓巖輯話》, 이종휘(1731~1797년)가 지은 《修山集》, 이복휴가 지은 《海東樂府》에는 ‘昔有桓國’으로 되어 있다. 만약에桓因으로 보면, “옛날에 환인이 있었는데, 바로 제석천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桓國으로 보면, “옛날에 환국이 있었는데, 바로 제석천이 다스리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昔有桓國’과 ‘昔有桓因’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하사, 在世理化하시니라” “時에 有一熊一虎가 同穴而居러니, 常祈于神雉하야 願化爲人  
이어늘, 時에 神遺靈艾一炷와 蒜二十枚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時에 有一熊一虎가 同穴而居, ... 願化爲人이어늘”이라고 하  
였는데, 여기에 보이는 ‘一熊一虎’는 부족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莊子·胠  
篋》의 “昔者 容成氏, 大庭氏, 伯皇氏, 中央氏, 栗陸氏, 驪畜氏, 軒轅氏, 赫胥  
氏, 尊盧氏, 祝融氏, 伏羲氏, 神農氏; 當是時也, 民結繩而用之。”에 등장하는  
많은 부족들이 살던 시기로 볼 수 있겠다. 즉 인류의 문자 문명이 아직 나  
타나기 전에 여러 부족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살았던 옛 시기인 단군왕검이  
탄생하기 그 이전의 시기를 묘사한 것으로 上古시대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三國遺事 고조선 조에서 나타나는 환인, 환웅, 풍백, 우사, 운사는  
上古인 ㅍ의 시대의 인물들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 3. ‘古’에 대한 시기구분 및 古朝鮮의 ‘古’시기

#### 3.1 ‘古’에 대한 시기구분

上古, 中古, 近古로 구분되는 기간을 통틀어 ‘古’라 하는데, 고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문헌들을 보면 고대시기에 일어난 주요 사건과 인물들의 활  
동들을 설명하면서 上古, 古, 中古, 近古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본 절에서  
는 주요 연구에서 나타나는 ‘古’에 대한 내용<sup>8)</sup>을 요약정리를 한 후, 三國遺  
事 고조선의 ‘古’의 시기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겠다.

⑦ 《易·繫辭下》에 보면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옛  
날에 包犧氏가 천하에 왕으로 있었을 때, 하늘을 우러러 상을 관찰하고, 땅을 굽어보아  
법을 관찰하였다.)

⑧ 《禮記·祭義》 “以事天地、山川、社稷、先古。” (천지, 산천, 사직, 조상에 제사를 지

8) 李鏡淑, 文致雄(2019)의 “‘古’와 ‘ㅍ’에 나타나는 時代 解釋과 區分에 대한 考察”, 《漢文  
古典研究》, 한국한문고전학회, 第39輯, pp.339~365, 李鏡淑, 文致雄(2020), “‘古’의 時代  
區分考察 — 《說文解字》 및 그 연구서류와 相關 字典類에서의 의미 해석” 《중국학논  
총》, 한국중국문화학회, 第67輯, pp. 43~60, 李鏡淑, 文致雄(2020), “三經에 나타난 ‘古’  
의 時期 解釋”, 《漢字漢文教育》,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第49輯, 115-134.

낸다.)

⑨ 《呂氏春秋》 “故審知今則可知古。” (지금을 살펴 알면, 과거를 알 수 있다.)

여기 《書經》에서 ‘古’는 堯舜 時代를, 《周易》에서는 伏羲 時代를 말하고 있고, 《禮記》에서는 ‘先古’라고 하여 옛 조상을 의미한다. 《呂氏春秋》에서는 원근에 관계없이, 특정되지 않은 지난 과거를 말하기도 하였다. 즉 문헌에 따라 가리키는 시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古”는 문헌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 또한 ‘古’를 上古, 中古, 下古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康熙字典·口部》에서는 “伏羲爲上古, 文王爲中古, 孔子爲下古。”<sup>9)</sup>라고 하였고, 《句讀》에서도 “伏羲上古, 文王中古, 孔子下古。”라고 古를 분류하였다. 《義證》에서는 “伏羲爲上古, 文王爲中古, 孔子爲後古。”<sup>10)</sup>라고 하여 古를 上古, 中古, 後古로 분류하여 下古대신에 後古라고 표현한 점이 다르다.<sup>11)</sup> 《禮記》에서는 “神農爲中古”<sup>12)</sup>라고 하여 神農時代를 伏羲時代와 같은 上古라고 하지 않고, 中古시대라고 하였다. 이는 《康熙字典》, 《句讀》, 《義證》 등의 시대분류와는 시간적 차이가 상당히 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대에 대한 분류나 해석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같은 학문 분야라고 하여도 연구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sup>13)</sup> 본 논문에서는 한자를 문자로 연구하는 관점과 문헌의 기록 및 역사 연구의 시기 분류를 참고하여 ‘古’에 대한 시기를 분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문헌에서 이른바 ‘古’에 대한 시대해석은 天皇, 地皇, 人皇으로 대표되는 三皇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堯舜 시대, 文王시대, 孔子가 살았던 시대까지, 그 범위가 확장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확실히 ‘古’가 가리키는 시간적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런 까닭에 고대 문헌에 보이는 ‘古’에 대한 시간적 해석을 단순히 옛날이라고 지정하거나, 과거, 혹은 아주 오래전이라고 규정해버리면, 문헌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간적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이러

9) 張玉書, 陳廷敬等, 《康熙字典》, 上海商務印書館, 1990, p.99.

10) 丁福保, 《說文解字詁林》, 中華書局出版, 1988, 三上 古部 p.948.

11) 張玉書, 陳廷敬等, 《康熙字典》, 上海商務印書館, 1990. 原本인 張玉書와 陳廷敬等 (1716)의 《康熙字典》는 明朝의 梅膺祚 《字彙》와 張自烈 《正字通》을 기초로 증보됨.

12) 《毛詩正義·卷十四 十四之一》.

13) 李鏡淑, 文致雄(2020), “‘古’의 時代區分 考察—《說文解字》 및 그 연구서류와 相關 字典類에서의 의미 解釋”, 《중국학논총》, 한국중국문화학회, 第67輯, pp. 43~60.

한 점을 포착하여, 우리는 문헌의 상하 문맥을 탐색하고 그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古’가 지칭하는 시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古’시대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문헌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깊이 있게 파헤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古’는 上古, 中古, 下古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여 시대 구분의 기준인 ‘古’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자면, ‘古’를 중심으로 上古 - 古 - 中古 - 下古로 세분화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구분은 기준 시점으로 古가 사용되고, 그 古 이전을 上古라 구분하였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王에 대해 그 왕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上王, 上帝, 上皇이라 칭했던 것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中古와 下古도 기준 시점 이후의 주요 사건 또는 왕조의 교체기에 맞춰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⑩ 《康熙字典·口部》에서는 “伏羲爲上古, 文王爲中古, 孔子爲下古。”<sup>14)</sup>라고 하였고, 《句讀》에서도 “伏羲上古, 文王中古, 孔子下古。”라고 古를 분류하였다. 《義證》에서는 “伏羲爲上古, 文王爲中古, 孔子爲後古。”<sup>15)</sup>

#### 上古:

⑪ 《辭源》 “謂遠古之時代也. 古人本以書契以前爲上古” (여기서 고는 바로 먼 고대를 말한다. 고대인은 본래 書契 이전을 上古라고 생각했다.)<sup>16)</sup>

《辭源》에 근거하면 上古时代는 아주 먼 고대 시대인 遠古시대로 伏羲 시대를 지칭하며, 문자를 사용하는 관점으로 고찰해보자면, 上古는 甲骨文时代 그 훨씬 이전으로 書契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던 시대, 결승을 사용하여 소통하던 시대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주역에서 한 말을 인용하겠다.

⑫ 《周易·繫辭傳》 “上古結繩而治.” (上古时代는 結繩을 사용하여 統治하였다.)<sup>17)</sup>

14) 張玉書, 陳廷敬等, 《康熙字典》, 上海商務印書館, 1990, p.99.

15) 丁福保, 《說文解字詁林》, 中華書局出版, 1988, 三上 古部 p.948.

16) 商務印書館編輯部等, 《辭源》(套裝全2冊), 商務印書館(1915年初次出版), 1983. 문헌의 검색은 “<http://www.guoxuedashi.com/>”에서 하였다. 이하의 각주에서는 文獻名을 기입하며, 검색사이트는 동일하다. 그 외 여러 사이트는 각주 참고.

17) 《易·繫辭傳》



中古:

⑬ 《孟子·公孫丑下》 “古者棺槨無度。中古棺七寸。槨稱之。” (옛날 관곽(棺槨)에 법도가 없었다. 中古에는 棺이 七寸이고, 槨木을 棺木의 두께와 서로 맞게 맞추었다.)

여기서 말하는 中古시대를 《禮記》에서는 신농씨 시대, 《句讀》과 《義證》에서는 文王시대라고 하였다. “古者棺槨無度”라고 하는 것은 棺槨制度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中古에 棺을 七寸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制度化된 周代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中古는 周 文王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고, “古者棺槨無度”의 古는 中古 이전의 시대로 구분하여 볼 수 있고 세분을 하면, 上古와 中古 사이의 ‘古’ 시대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下古:

下古는 近古라고도 하며, 古의 시대 구분 중에서 말기를 말한다.

⑭ 《孝經注疏》 “孔子爲下古 °”(孔子는 下古 시대 사람이다.)

《孝經注疏》의 “孔子爲下古”란 孔子가 생존한 시대가 바로 下古時代라는 것이다.

⑮ 《史記·秦始皇本紀》：“秦并海內，兼諸侯，南面稱帝，以養四海，天下之士斐然鄉風，若是者何也？曰：近古之無王者久矣 °周室卑微，五霸既歿，令不行於天下 °(秦나라가 천하를 병합하여 통일하고, 제후들을 겸병하고 남면하여 帝라고 부름으로써 온 천하를 돌보자, 천하의 선비들이 바람을 향하듯 앞을 다투어 찾아왔으니 이 같은 현상은 무엇 때문인가? 답은 이렇다. 近古 이래로 왕이 된 자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주나라 왕실은 지위가 낮아지고 五霸는 이미 죽어 명령이 천하에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 18)

《史記·秦始皇本紀》에서 말하는 近古 시대란 춘추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춘추 말기부터 더욱 혼란하여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혼돈의 전국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천하는 인정받는 왕이 따로 없는

18) 《史記·秦始皇本紀》

것과 같이 대 혼란의 시대를 겪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古’ 시기에 대한 정의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당시에 등장하는 관련 인물들의 활동, 주요 사건을 비교하여 새롭게 제시하면, 『三國遺事』 고조선의 ‘古’에 대한 시대를 구분할 때 더욱 이해하기가 쉽고, 『三國遺事』 고조선에서 등장하는 대표 인물인 환인, 환웅, 단군왕검과 관련한 시기 및 인물들을 재조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 무왕 때의 단군, 다시 건국 이후 1908년 되는 시기의 단군이 나타난다. 여기서 기준으로 삼을 인물은 단군왕검이다.

다음 절에서는 기준으로 삼을 인물인 단군왕검 이전의 시기를 살펴보겠다.

### 3.2 古朝鮮의 ‘古’ 시기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一을 보면,

①⑥ “魏書에云 乃往二千載에 有壇君王儉이 立都阿斯達하시고, 開國號朝鮮하시니 與高同時니라.”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

여기에 보이는 壇君王儉이 阿斯達에 도읍을 정한 때가 “與高同時”라고 하였는데 이 시기 高는 堯이며, 단군왕검과 동시대의 인물임을 말한다. 高가 堯를 의미하는 내용과 관련 내용은 다음의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⑦ 《說文·堯部》：“堯，高也。从堯在兀上，高遠也。尃，古文堯。” (堯는 高이다. 堯이 兀위에 있는 의미를 따른다. 높고 멀다는 의미이다. 尃는 古文으로 ‘堯’ 字를 말한다.)

①⑧ 《說文解字注》：“(堯)高也。堯本謂高。陶唐氏以爲號。白虎通曰：堯猶嶢嶢。嶢嶢，至高之兒。按焦嶢，山高兒。見山部。堯之言至高也。舜，山海經作俊。俊之言至大也。皆生時臣民所稱之號，非諡也。” (堯는 高를 말한다. 堯는 본래 高라고 하였다. 陶唐氏의 號이다. 白虎通에 이르기를 堯는 높고 높다의 의미와 같다. 嶢嶢는 지극히 높은 모양이다. 焦嶢는 嶢嶢와 같은 의미로 이에 따르면, 역시 산이 높은 모양을 말한다. 山部에 보면, 堯는 지극히 높은 것을 말한다. 舜은 山海經에서 ‘俊’ 라고 하였다. 俊은 지극히 큰 것을 말한다. 모두 생시에 백성과 신하들이 부르던 칭호이고 시호는 아니다.)

①9 《釋名·釋山》：“山多小石曰礧。礧，堯也，每石堯堯獨處而出見也。”(산에 작은 돌이 많은 것을 礧라고 한다. 礧는 堯를 말하며, 모든 돌들이 높고 높아 홀로 있어서 보이는 것을 말한다.)

②0 《書·堯典》：“曰若稽古帝堯，曰放勳。”(옛 堯帝를 상고하건데 공이 크시니, 放勳이라고도 하였다.)

《說文·衚部》에서 보면, “堯，高也。”라고 하여 堯는 높다는 의미이고, 衚는 흙 위에 흙이 있는 모양으로 높은 곳을 말한다. 《說文解字注》에서는 堯를 본래 高라고 하였다고 하였고, 堯를 陶唐氏라고 한다고 하였다. 《書·堯典》에서는 “曰若稽古帝堯，曰放勳。”(옛 堯帝를 상고하건데 공이 크시니, 放勳이라고도 하였다.)라고 하여 ‘공이 크시다’라고 한 것이 나중에 호칭으로 되어 放勳이라고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玉篇》에 보면 ‘古’는 “久也，始也”，《正字通》에서는 “遠代也。”라고 하여 처음 시작하던 시대, 아주 멀고 요원한 과거의 시대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구분에 따라 《書經》의 내용 속에서 쓰인 ‘古’는 각각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書經》에서는 ‘古’를 모두 29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堯, 舜, 禹, 皋陶와 殷周시대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물들과 국가에 대한 《書經》편의 기록을 통해 볼 때 堯, 舜, 禹, 皋陶와 殷의 시대는 ‘古’로 표현되는 시기 구분의 기준 시대로 볼 수 있다. 즉 伏羲는 上古, 堯舜, 虞夏, 殷은 古, 周는 中古로 보아, 주로 堯舜시대는 ‘古’로 구분하고, 이후 ‘周’ 시대부터는 ‘中古’로 구분하며, ‘堯舜’ 이전은 ‘上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古’의 시대 구분에 대한 시도는 특정 시대에 대한 인물 기준으로 기록을 한 《書經》에서 해당 시대의 통치, 사회적 상황,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사상이나 문물의 기원과 이것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sup>19)</sup>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書經》에서 말하는 堯舜 時代인 ‘古’의 시기는 三國遺事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시대와 같은 시대로 볼 수 있다.

『三國遺事』 고조선 기록에는 中古시기인 주 호왕(무왕)과 관련한 시기도

19) 李鏡淑·文致雄(2020), “三經에 나타난 ‘古’의 時期 解釋”: “《書經》 ‘古’의 시대를 대략 5시기로 나누었고, 이에 따라서 각 篇章에 나타나는 ‘古’의 시대를 분류한 표이다. 정확히 한 시대에 포함되지 않고, 몇 개의 시대를 걸쳐서 표현되거나, 정확한 시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니, 지금 간략히 작성된 이 표를 바탕으로 좀 더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보인다.

周虎王即位己卯封箕子於朝鮮。(周나라 虎王이 즉위한 己卯년에 箕子를 朝鮮에 봉했다.)<sup>20)</sup>

周 虎王은 周 武王으로 이 周武王인 姬發은 西周 王朝의 개국 군주로 文王의 次子이다. 그의 형인 伯邑考가 商紂王에게 학살되었기 때문에 姬發이 繼位를 한 것이다. ‘武’는 사후의 諡號이고 世稱하여 周武王이라고 한다.<sup>21)</sup> 周武王로 불리는 周虎王는 생물 년대가 확실하지는 않으나, 대략 기원전 1087年에서 기원전 1043年으로 볼 수 있고 周朝는 약 기원전 1046年에서 256年까지 약 8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왕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여 箕子가 조선으로 온 연대인 기원전 1046年 전후는 中古 시기라고 볼 수 있다. 《三國遺事》에는 下古 시대로 추정할 수 있는 연대가 보인다.

壇君乃移於藏唐京。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壽一千九百八歲。(이에 단군은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 산신이 되니 나이는 1908세였다고 한다.)

위의 내용 중에 “壽一千九百八歲”이라고 하는 1908년 되는 시점은 단군 조선이 건국된 古 시대인 B.C. 2333에서 1908년이 지난 때인 B.C. 425년이다. 이 시기는 下古 또는 近古의 시기이며, 공자의 사망연대가 B.C. 475년이므로 그보다 50년의 지난 B.C. 425년에도 왕검 조선이 존속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 4. 結論

三國遺事 고조선 기록에 나타나는 인물들과 기존의 발표 논문인 “古’와 ‘昔’에 나타나는 時代 解釋과 區分에 대한 考察”, “古’의 時代區分考察 —

20) 기원전 약 11世紀 경에 商周 교체기에 商의 賢臣인 箕子(? - 前1082年: 子姓, 名胥餘, 殷(今河南省安陽市 사람)는 商王文丁의 아들, 商王帝乙의 동생이며, 商王帝辛인 商紂王의 叔父로 周 武王 때 동방으로 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史記·宋微子世家》나 《尚書大傳·洪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史記》에 의하면, 周武王이 殷을 멸한 후에 직접 箕子를 찾아와 임금의 도리인 君之道를 묻고, 箕子를 賢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21) 周虎王는 중국 역사책에 있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 《三國遺事》 기록에 의거하여 주무왕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으로 확정한 것이다. 즉 《三國遺事》에서는 高麗惠宗인 “王武”의 이름을 避諱하기 위하여 “武”를 “虎”로 한 것이다.

《說文解字》 및 그 연구서류와 관련 字典類에서의 의미 해석”, “三經에 나타난 ‘古’의 時期 解釋” 및 중국 고대 관련 문헌 기록과 비교하면, 인물들의 활동 시기와 활동내용, 당시의 사건을 더욱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三國遺事 고조선에서의 인물들은 크게 환인, 환웅, 단군왕검과 관련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이후에 주 무왕 때의 단군, 다시 건국 이후 1908년 되는 시기의 단군이 나타난다. 여기서 기준으로 삼을 인물은 단군왕검이다. 기록에서 단군왕검의 시대는 요임금과 동시대라 하였다. 그러므로 기존의 고에 대한 시대 구분에서 堯舜時代를 기준 ‘古’라 하였으므로 단군왕검의 시대는 ‘古’의 기준시점이 된다.

단군왕검과 요를 기준으로 그 이전 시대를 上古라 하였으며, 달리 昔이라고도 한다. 고조선 조에서 昔有桓國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상고 때의 위인 들로는 제석, 환웅, 우사, 운사, 풍백 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고조선 기록에 이어서 나타나는 한나라 건국시기의 위만조선은 고의 시기가 아님을 알 수 있고, 三國遺事 고조선 기록에서 나타나는 대표인물인 요, 주 무왕과 무왕 때의 기자, 이후 건국부터의 1908년이 되는 시기에 대한 古 - 中古 - 近古(下古)의 시기 구분을 적용하여 인물들과 연계 설명할 수도 있게 된다.

동아시아 전체 문헌을 통틀어 단군왕검 시대에 문헌에 나타나는 나라이름과 건국자, 도읍의 등장은 단군왕검의 조선과 아사달이 유일. 요와 순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세웠다는 나라 이름은 사기, 서경, 죽서, 맹자 등을 포함한 고대의 기록을 담은 고서에는 없으며, 역시 도읍도 없다. 앞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조선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程俊英(2004), 十三經譯注, 詩經譯注, 中國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陰法魯, 許樹安(1996), 《中國古代文化史1,2,3》, 中國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李鏡淑, 文致雄(2019), “‘古’와 ‘昔’에 나타나는 時代 解釋과 區分에 한 考察”, 《漢文古典研究》第39輯, pp.339~365, 한국, 한국한문고전학회.
- 李鏡淑, 文致雄(2020), “‘古’의 時代區分考察 —《說文解字》 및 그 연구서류와 관련된 字典類에서의 의미 해석” 《중국어학논총》第67輯, 2020, 한국, 한국중국어문화학회, pp.43~60.
- 李鏡淑, 文致雄(2020), “三經에 나타난 ‘古’의 時期 解釋”,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第49輯, pp.115~134.
- <http://ctext.org/guanzi/shu-yan/zh>: 經典(Jingdian)(2021년 6월1일 접속)
- <http://hanji.sinica.edu.tw/>(2021년 6월1일 접속)
- <http://www.gushiwen.org/GuShiWen>(2021년 6월1일 접속)
- (十三经注疏), 春秋左传正义.txt <http://www.txt66.com>(2021년 6월1일 접속)
- <http://www.guoxue123.com>:(2021년 6월1일 접속)
- 穀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出版, 2008.
-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91.
- 王力, 《古漢語字典》, 中華書局, 2000.
- 王念孫, 《廣雅疏證》, 江蘇古籍出版社, 2000.
- 王寧, 《古代漢語》, 北京出版社, 2002.
- 李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2004.
- 李學勤, 《字源》, 天津古籍出版社, 2013.
- 張玉書, 陳廷敬等, 《康熙字典》, 上海商務印書館, 1990.
- 張舜徽, 《說文解字約注》, 華中師範大學出版社出版, 2009.
- 丁福保, 《說文解字詁林》, 中華書局出版, 1988.
-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武漢市古籍書店, 1983.
- 湯可敬, 《說文解字今釋》(東漢許慎者:湯可敬撰), 上海古籍出版社, 2018.
- 許慎 撰, 徐鉉 等 校定, 《說文解字》, 中華書局, 1992.
-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2018), 《漢語大字典》, 崇文書局;四川辭書出版社.
- 商務印書館編輯部等, 《辭源》(套裝全2冊), 商務印書館, 1983.
- 郭錫良, 〈漢語史的分期問題〉, 《語文研究》, 2013.
- 周祖謨, 《文字音韻訓詁論集》, 北京大學出版社, 2000.
- 高娜, 《現代漢語時間副詞曆時研究》, 《湖南師範大學》, 碩士, 2009.
- 施向東, 〈梵漢對音資料:從上古音到中古音〉, 《辭書研究》, 2020.
- 張傳璽, 《簡明中國古代史》, 北京大學出版社, 1999.

# 3 '伯'에 관한 小考

신세리(조선대)

## 목 차

1. 들어가며
2. 伯의 본의와 관련자
  - 1) 본의
  - 2) 관련자
3. 白-伯의 언어분석
4. 白-伯의 의미관계
5. 伯에 대한 최근 증거들
  - 1) 최근 출토문헌증거
  - 2) 민족에 대한 토론
6. 나오며

## 1. 들어가며

중국고대문헌에서 '伯'은 주로 하나의 관직 혹은 계급에 대한 전용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출토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甲骨文과 金文에서 '白'과 '伯'은 '白'자로만 사용되었다. 이는 소리부로 활용되는 '白'자가 먼저 글자로서 작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통가, 통용관계라고도 볼 수 있다.

글자의 선후를 보았을 때, '白'과 '伯'은 초문과 후기자의 관계이다. '白'이 먼저 출현하고 '伯'자형은 후에 출현했다는 점에서 두 글자 중 '伯'자가 후기에 만들어진 글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의미관계를 분석한다면, 일

반 문자학적 견해로 그 본의를 ‘白’에 귀납시킬 것인지, ‘伯’에 귀납시킬 것인지는 토론이 요구된다. 이들 ‘白’과 ‘伯’의 자형분화과정과 의미분화과정은 각각의 문헌에서 드러나는 의미로 상호 영향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글자의 사전적 의미항목을 통해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장~4장에서는 글자의 ‘白’과 ‘伯’의 형음의를 통해 글자의 본의를 추정하고, 문헌방증적 증거로 西周시기의 배경을 보여주는 관련 글자의 금문, 죽간문 등의 자형의 언어관계를 살핀다. 또 음운학적 관계를 통해 의미전이 또는 의미파생과정을 확인해 본다. 이어 5장에서는 특히 최근 출토된 ‘白’과 ‘伯’의 증거를 제시하여 서주시기의 의미와 전래문헌에서의 의미를 확인해 본다.

## 2. 伯의 본의와 관련자

### 1) 본의

‘伯’에 대한 풀이는 또 『說文·人部』에서 “伯은 으뜸이다. 人의 뜻을 따르고, 白의 소리를 따른다”<sup>1)</sup>고 풀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說文』의 풀이를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의는 이와 달리 최초의 의미이므로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 아래는 ‘伯’의 자형표로 ‘白’과 ‘伯’의 관계를 알 수 있다.

【표 1】 白(伯)자형

 1. 後 2.4.11 『甲』 商	 2. 魯伯愈父鬲 『金』 春秋早期	 3. 說文·人部	 4. 老子甲後 270 『隸』 西漢
 5. 春秋事語 36 『隸』 西漢	 6. 縱橫家書 154 『隸』 西漢	 7. 熹·春秋·僖廿八年 『隸』 東漢	

‘伯’은 갑골문과 금문에서 대부분 ‘白’으로 쓰이다가 전국시대 이후에 점차 ‘伯’으로 분화되었다. 문자학의 구형적 시각으로는 ‘白-伯’ 두 글자의 분화과정을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說文·人部』：“伯，長也。从人白聲。”



첫 번째는 소리만 빌려쓰던 소리가차의 글자(白의 소리)가 의미분화를 거친 후(伯의 의미), 분화자(伯이라는 글자)로 거듭났다는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伯’은 본자는 아니지만 후기자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원래 ‘白’의 본의가 현재의 ‘伯’자의 의미였던 것(伯은 으뜸이다(長)라는 의미)이 후에 글자분화를 통해 분리되어 나오면서 나중에 생긴 의미를 원래 사용되던 글자인 ‘白’에 게 넘겨주고 분리되어 나온 경우이다. 이 같은 경우 ‘伯’을 후기본자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형음의 관계와 어휘의미 ‘白-伯’의 관계를 ‘白’을 편방으로 지니는 관련자 ‘食’, ‘𠂔’, ‘饗’, ‘簋’ 등의 분석의 과정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 2) 관련자

‘白’의 본의는 ‘白’을 부수자로 사용하는 글자에서 그 본의와 용법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자형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白’과 관련된 자형은 전국시기 유사한 자형을 가지는 ‘日’자와 ‘白’자의 부수를 지닌 ‘𠂔’, ‘食’, ‘饗’, ‘簋’ 등이 있다.







먼저 ‘白’과 ‘日’은 일부시기 동안 서사자형이 유사하다. 예컨대 이전 戰國시기 동안 ‘白’-‘日’자형 간에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골문에서 ‘日’은 ‘태양의 한 점’을 표시하고 있어 ‘伯’과는 매우 상이한 특징을 지닌다. ‘白’의 갑골문과 ‘日’의 전국문자가 닮아 있으므로 시대적으로도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전국시기 자형 또한 ‘日’의 경우 필획을 넓게 그리고 있어 끝이 뾰족한 형태인 ‘白’과는 다른 모습이다.

【표 2】 日자형

 1. 鐵180.2 『甲』 商	 2. 作冊虢卣 『金』 西周早期	 3. 癸鐘 『金』 西周中期	 4. 包2.19 戰國·楚
 5. 說文·日部	 6. 睡·日甲107		

표3 ‘食’의 자형에서 갑골문의 중간 편방이 ‘伯’의 ‘𠂔’자형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食자형

 1. 甲1289 『甲』 商	 2. 乙1115 『甲』 商	 3. 仲義鬲鼎 『金』 春秋	 4. 鄆孝子鼎 『金』 戰國中期. 晉
 5. 信2.021 戰國. 楚	 6. 說文·食部		

‘食’<sup>2)</sup>은 설문에서 ‘쌀 한톨’을 말한다고 했는데 林義光은 이 자형이 밥을 먹는 모습이라고 보았다. 실제 용례를 찾아보면 아래 인용된 『詩經·國風·魏風·伐檀』 편에서는 ‘쌀 한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다(進食)”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sup>3)</sup>

『詩經·國風·魏風·伐檀』:

坎坎伐檀兮，寘之河之干兮，河水清且漣漪。不稼不穡，胡取禾三百塵兮。不狩不獵，胡瞻爾庭有縣貆兮。彼君子兮，不素餐兮。坎坎伐輻兮，寘之河之側兮，河水清且直漪。不稼不穡，胡取禾三百億兮。不狩不獵，胡瞻爾庭有縣特兮。彼君子兮，不素食兮。坎坎伐輪兮，寘之河之漘兮，河水清且淪漪。不稼不穡，胡取禾三百困兮。不狩不獵，胡瞻爾庭有縣鶉兮。彼君子兮，不素飧兮。

『詩經·國風·魏風·伐檀』 편에서 ‘食’이 사용되고 있는데 시문에서 대우를 이루는 동일한 자리에 각각 ‘餐’, ‘食’, ‘飧’가 출현한다. 屈萬里<sup>4)</sup>의 석문 주석에 따르면 ‘素餐’을 “지금 놀면서 밥을 먹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을 말한다.(今謂之白吃飯,言不勞而食也)”라고 하였고, ‘飧’은 ‘飧’은 “익혀서 먹는 것이다, 또는 많이 먹는 것이다(飧熟食也. 又多食也.)”라고 풀이하였다. 이에 ‘食’ 또한 동일한 의미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음식을 먹다(進食)’를 본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季旭昇<sup>5)</sup>은 段玉裁가 덧붙인 설명 중에 ‘食’의 ‘一米’를 ‘스米’라고 본 것은 따를만 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 글자의 부견을 설명하면서 ‘스’편방은 전국문자의 특징으로 飾筆이라고 하였

2) 『說文』: “食，一米也。从皀，亼聲。或說亼皀也。” 林義光 『文源』:“(吳王姬鼎)从亼倒口在皀上，皀薦熟物器也。象食之形。”

3) 季旭昇, 『說文新證』 上冊, 大만:藝文印書館印行, 2004, 433~444쪽.






4) 屈萬里, 『詩經·國風·魏風·伐檀』, 大만:中國文化出版社版部印行, 1980, 143~144쪽.

5) 季旭昇, 『說文新證』 上冊, 大만:藝文印書館印行, 2004, 433~444쪽.

다. 이에 ‘食’은 음식을 곡식 중에서 西周시기 가장 중요한 곡식이라고 할 수 있는 ‘黍稷’을 ‘익혀서 담아 먹었던 예기’를 말한다. 그러나 고대 ‘黍稷’의 색이 흰색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물에 대한 은유로서 색을 표현한 것이라고 언어학적 관점에서 귀납해낼 수 있는 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인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대상물은 본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으며, 이 예기에 담긴 음식이 예를 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시되는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說文』에서는 ‘食’에 대해 설명하며 “皂의 뜻을 따르고 스의 소리로 구성된다(从皂, 스聲)”고 분석하였다. 이에 표4의 ‘皂’자형이 보여주는 戰國시기 의미편방에서도 ‘白’에 대한 의미 추정이 가능하다.

【표 4】 皂자형











 1. 甲 878 『甲』 商	 2. 存下764 『甲』 商	 3. 室叔簋 『金』	 4. 三晉44 戰國.晉
 5. 說文:皂部 東漢			

‘食’의 의미편방에 해당하는 皂의 의미를 살펴보면, 『說文』에서 “皂은 곡식이 향기로운 것이다. 마치 좋은 곡식이 안에 있는 형상과 같다. ... 혹은 쌀 한 톨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좡처럼 읽기도 한다.”<sup>6)</sup>라고 보았으나, 皂이 전래문헌에는 출현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문자에서 다른 글자로 후기본자를 만들어 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皂’를 의미편방으로 따르는 글자 중 일부 자형이 ‘簋’의 고문자 자형에서 동일한 자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갑골문과 금문의 출현으로 ‘皂’와 ‘簋’가 초문과 후기자의 관계임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皂’은 ‘簋’를 가리키는 것으로, ‘黍稷을 담은 방형의 기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즉 ‘皂’는 뚜껑이 있는 주나라의 예기에 해당하는 ‘簋’를 가리킨다.

6) 『說文』: “皂, 穀之馨香也. 象嘉穀在裹中之形, 匕所以扱之. 或說, 皂, 一粒也. 又讀若香.”









【표 5】簋자형

 1.存下764 『甲』 商	 2.京津4144 『甲』 商	 3.虢熒姬簋 『金』 西周中期	 4.休作父丁簋 『金』 西周中期
 5.□作釐伯簋 『金』 西周中期	 6.舟作寶簋 『金』 西周中期	 7.說文古文	 8.說文古文
 9.說文古文	 10.說文·竹部		

季旭昇<sup>7)</sup>에 따르면, ‘簋’의 본의는 ‘익은 밥을 담은黍稷稻粱의 원형의 덮개가 있는 식기(盛煮熟的黍稷稻粱的圓形有蓋食器)’라고 하였다.季旭昇의 설명에 따르면, 4~6자형은 ‘竹’과 ‘皿’의 뜻을 따르고 ‘𠂔’의 소리로 구성된 형성구조의 전용자라고 볼 수 있다. 소전체는 ‘竹’과 ‘皿’의 뜻을 따르고 ‘𠂔’ 소리를 따르는 글자로 ‘簋’은 초기 기물이 도기이며, 청동기는 이 도기를 본뜬 것이고, 대나무와 목기는 일반용기였을 것이다. ‘簋’는 “천자는 아홉 개의 정과 여덟 개의 궤, 제후는 일곱 개의 정과 여섯 개의 궤, 대부는 다섯 개의 정과 네 개의 궤, 원사는 세 개의 정과 두 개의 궤(天子九鼎八簋, 諸侯七鼎六簋, 大夫五鼎四簋, 元士三鼎二簋)”라고 하였다.

본 연구자의 견해로 ‘簋’는 封建禮과정에서 등장하는 중요기물 중 하나로, 제기 뿐 아니라 식기로도 사용되었는데, 대나무와 목기는 일반용기였을 것이라는 견해는 따를만하며, 7~9번은 설문에서 출현하는 고문자형으로 설문의 고문은 육국고문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 이들 글자는 육국에서 사용된 문자로 ‘簋’와 통가되는 글자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𠂔’는 ‘簋’의 초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6】卽자형

 1.甲717 『甲』 商	 甲2373 『甲』 2.商	 3.大孟鼎 『金』 西周早期	 4.望2.13 戰國·楚
 5.郭·語1.31與97相連 戰國·楚	 6.說文·𠂔部	 7.睡·法29(隸) 秦	 8.老子甲38 『隸』 西漢

7) 季旭昇, 『說文新證』 上冊, 臺灣:藝文印書館印行, 2004, 365~366쪽.

표6는 ‘卽’<sup>8)</sup>자형으로 시경을 근거로 본의를 살피면, ‘음식을 얻은 것’이다. 自의 뜻을 따르고 卩의 소리를 따른다고 하였다. 이에 이 글자 역시 自편방이 의미를 나타낸다고 추정할 수 있다.

『詩經·衛風·氓』:

氓之蚩蚩，抱布貿絲。匪來貿絲，來卽我謀。送子涉淇，至于頓丘，匪我愆期，子無良媒。將子無怒，秋以為期。

시경에 출현한 ‘卽’에 대해 屈萬里<sup>9)</sup>는 ‘就’ 즉 ‘얻다’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계육승 또한 이를 본의라고 풀이하였다. 또 인신된 의미로는 ‘넘겨주다(付與)’로 보았는데 『散盤』에서 ‘用矢撲散邑，迺卽散用田’이라고 하였다. 또 는 가차하여 ‘다음(次)’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중산왕中山王壺<sup>10)</sup>의 자형에서 ‘夫古之聖王務在得賢，其卽(次)得民’이라고 했는데, 이는 가차의미로 사용되었다.

【표 7】 既<sup>10)</sup>자형

 1. 商前 7.18.1	 2. 商 戠 12.10	 3. 商 邲其卣	 4. 系周早作冊大鼎
 5. 西周中 休盤	 6. 春秋晚大氏壺	 7. 春戰秦石鼓	 8. 春戰晉侯馬 156:19
 9. 戰國楚包 2.16 『楚』	 10. 戰國楚包 2.202反 『楚』	 11. 戰國楚帛 乙 4.26 『楚』	 12. 戰國楚郭緇 46 『張』
 13. 秦泰山刻石 『篆』	 14. 西漢馬老子甲後 2 91 『篆』	 15. 東漢孔宙碑 『篆』	

‘既’의 본의는 시경을 근거로 한다면 ‘(음식)먹는 것을 다하다(食既)’, ‘먹는 것을 마치다(食畢)’의 의미이다. 다만 『說文』에는 출현하지 않는다.

8) 『說文』：“卽，卽食也。从自，卩聲。”

9) 屈萬里, 『詩經·國風·魏風·伐檀』, 臺灣:中國文化出版社版部印行, 1980, 91~92쪽.

10) 『爾雅·釋言』：“卒既也.”

『詩經·衛風·氓』：

乘彼坵垣，以望復關。不見復關，泣涕漣漣。既見復關，載笑載言。爾卜爾筮，體無咎言。以爾車來，以我賄遷。

또 『爾雅·釋言』에서는 ‘卒’은 ‘既’이라고 풀이하고 있어 ‘마치다’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볼 때, 어떤 행위를 끝낸다는 의미이며, 𠄎편방이 의미편방이므로 𠄎편방의미가 지나는 행위의 마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신된 의미는 ‘다하다(盡)’, ‘일찍이(已經)’라고 풀이된다.

【표 8】 饗자형





 1. 拾6.8 『甲』 商	 2. 宰甫卣 『金』 商代晚期	 3. 說文食部	 4. 武威簡. 特牲2 『隸』 西漢
---	---	--	--

표8 ‘饗’<sup>11)</sup>과 같은 제사와 관련된 행위에서도 글자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羅振玉은 『增訂殷虛書契考釋』<sup>12)</sup>에서 ‘卿’, ‘鄉’, ‘饗’이 원래 하나의 글자인 것이 후세에 세 개로 분화되었다고 하였는데 부견 ‘𠄎’에 대한 설문의 설명에서 그 讀若이 ‘香’이라고 한 점을 보아, 또 의미편방 ‘鄉’을 소리로 가지는 역성자인 점을 보아, 나진옥의 설명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요약하면, ‘𠄎’는 ‘簋’와 ‘饗’으로 소리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𠄎’는 실제 독립된 글자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후기본자로 자리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글자 분화는 소리분화보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고 반절자가 彼及切/ 彼側切/ 居立切/ 許良切 총 4개인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다른 글자로 더 분화되었을 가능성을 있다.

이에 ‘白’은 ‘흰 쌀(대상)’을 담는 그릇 ‘𠄎(簋)’이 되거나 이 그릇을 다루는 자들 즉 卽, 既로서 대상화하여 상징화하거나 관습화를 거친 '그릇을 다루는 사람'의 행위주[+] 로 사용되고 있다. 의지성[+]이 있고, 주체적[+]인 존재로 사용되어, ‘白’대상은 ‘伯’ 즉 대상을 다루는 행위주 관계로서 사

11) 『說文』：“饗，鄉人飲酒也。从食，从鄉，鄉亦聲。”

12) 羅振玉, 『增訂殷虛書契考釋』：“皆象饗食時賓主相饗嚮之狀，卽饗字也。古公卿之卿，鄉黨之鄉，饗食之饗，皆為一字，後世析而為三。……饗入『食部』，而初形初誼不可見矣。”『漢語大字典』按：“甲金文為會意字。小篆又另增食為意符。”

용되었다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위주로 쌀을 다루는 이가 수장이 다를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추상화 과정에서 '수장'의 의미가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白 -伯의 언어분석

‘白’의 의미인 “서쪽의 색”과 伯의 의미인 “으뜸(수장)”이 관련성의 근거를 알 수 없는데 이들의 관계는 인간의 보편적 인지 즉 개념의미는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의 인지체계에서 ‘어떤 색’과 ‘그 색과 관련된 사물 또는 대상’이 ‘색’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면서 상호작용하고, 공통분모는 하나의 속성이 될 수 있다. 공통요소를 통해 하나의 개념으로 형상화되어 동일한 소리로 발음하거나 결국 동일 소리에 여러 의미를 지니는 동음이의어가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伯’의 소리요소 ‘白’은 어휘 항목의 생성보다는 ‘의미장’ 또는 ‘의미류’의 포괄적 영역이 활성화 되었을 때, 동일 시대에서 두 글자 간의 의미전이가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일반적인 인지언어학적 발전 추이를 통해 유추해 본다.

이에 ‘白’은 ‘伯’에 있어서는 표음점 표의 요소로서 충분히 소리영역이 될 수 있으며, 또한 ‘白’을 가차자로 보고 소리영역에 근거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충분히 분석이후 두 글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徐通锵의 견해에 따르면 형성자의 의미부와 소리부는 각각 그 표현 의미의 영역이 구분되며 도상적 형태의미는 구체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의미소(義素) 혹은 의미자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 소리의미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면서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는 의미류(義類) 혹은 의미장(義場)이라 분석하였다.<sup>13)</sup> 소리에 반영된 의미는 하나의 의미항목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류 또는 영역에서 반영되므로 본 연구에서 동일 소리의 가차에서 시작된 ‘白’과 ‘伯’의 관계 또한 하나의 부류로서 의미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다.

13) 徐通锵, 「編碼機制的調整和漢語語彙系統的發展」, 『語言研究』제1기, 2001, p.5. 『爾雅』「釋山」: “山大而高, 崧. 崧 = [山] × ([大] × [高]) 즉 중국어 한자의 구조 공식은: “1 한자의 = 1 의미류 × 1 의미상” ‘의미류’는 의미장에 해당하고, ‘의미상’은 의미소 혹은 의미자질에 상당한다.

또한 사람 또는 사물이라는 대상은 하나의 인지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주로 유사성을 넘어 하나의 체계간의 인접관계로 발전한다고 여겨질 수 있다. 즉 한자라는 기호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관습화되기까지 단계적 발전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한자기호와 지시 대상사물 간의 의미관계는 환유가 의미있게 작용하게 된다.<sup>14)</sup> 이에 본 연구는 ‘白’과 ‘伯’의 소리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어휘로서 작용되며, 그 과정은, 모두 아래와 같이 유사한 소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白’	:	並母鐸部	开二等入聲梗攝
李方桂		brak	魚部
白一平		brak	鐸部?
鄭張尚芳		braag	鐸部
潘悟云		braag	鐸部
‘伯’	:	幫母鐸部	开二等入聲梗攝
李方桂		prak	魚部
白一平		prak	鐸部
鄭張尚芳		praag	鐸部
潘悟云		praag	鐸部

이들 글자들은 기본적으로 성모만 다르며, 나머지 소리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리의 발전과정에 따라 분석하면 음운현상은 단지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만 있는데 이 또한 의미변별에 있어서 차이로 여겨질 수 있다.

王力<sup>15)</sup>에 따르면 유성음은 주로 자동의 의미를 무성음은 사역의 의미를 지닌다. 자동사는 주로 비급물동사를 말하고, 타동사는 급물동사를 말한다. 그러나 형용사는 본래 논원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동사화 하기 위해서는 타동성을 표현해야 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표지로 무성표지가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白’ 또한 유성요소인 並母의 [b]음을 지니고 있고, 사역 의미의 논항이 올 수 있는 ‘伯’의 경우 幫母음인 무성음을 가지고 있다.

14) Charles Sanders Peirce 著, James Hoopes 纂, 김동식 이유선 譯, 『피스의 기호학』, 서울, 나남, 2008, pp.247-250. 피스에 따르면 기호는 물리적 성질이 반영되어야 비로소 기호로서 기능할 수 있다. 기호-사물 간에는 실질적 연관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 방식에 대한 결정조차도 포함하는 것이 기호-사물 간 관계이다. 기호-(기호에 의해 의미된)사물 사이에는 인과적 연관이 존재한다. 이런 기호특징은 순수한 지시적 적용이라고 말하였다.

15) 王力, 「古漢語自動詞和使動的配對」, 『龍蟲並雕齋文集』, 1965.



異讀<sup>16)</sup>에 관한 여러 견해가 있으나 이들의 형성은 선택적이지만 이독이 고대의 형태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동일단어의 이형태(allomorph)현상은 ‘白’의 갑골문과 금문과정에서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伯’이라는 분화자를 통해 실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해성현상이 출현하는 것은 음성현상뿐 아니라 어휘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같은 관계에 대해 潘悟云은 ‘음성형태상관’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다음의 의미관계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sup>17)</sup>

#### 4. 白-伯의 의미관계

관련자 ‘白’의 본의는 『說文·白部』의 의미로 ‘白’<sup>18)</sup>은 “서쪽의 색이다”이라고 하였다. 또 ‘伯’의 본의는 설문의 풀이에 근거하여 ‘우두머리(수장)’라고 하였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와 더불어 용례의 의미로 본의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白’의 본의를 살피면, 季旭昇은 『說文新證』<sup>19)</sup>에서 ‘白’의 자형에 관해서는 주로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설로는 郭沫若은 ‘拇’(엄지손가락), ‘擘’(엄지손가락) 초문이라는 설이다. 마치 엄지손가락의 형상과 같으며, 拇과 白이 동속의 순음이라고 하였으며 고문 之部와 魚部가 통운된다고 하였다.(『金文叢攷·金文餘釋·釋白』) 魯實先은 이 견해에 동의하였다.

두 번째 설로 高鴻緝은 ‘白’은 ‘貌’의 초문이라고 보았다. “사람얼굴이며 머리를 감아 묶은 모습이다. ....伯仲의 伯은 그 아래 人의 의미부를 더하여 𠂔로 삼았다. 戰國의 秦대 글자는 豹의 생략된 소리 글자(省聲字)를 더한 貌자로 보았다.”(『中國字例』 2(90))라고 하였다.

季旭昇은 이에 ‘貌’는 宀部 또는 藥部가 될 수 있는데 이들 두 部가 모두 통하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漢代에만 보이며, 每乘의 「七發」에서 ‘若澤(鐸)’운이 ‘藥(藥)’운이라고 했는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견해는 사용시대를 기준으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6) 潘悟云 著, 權赫竣 譯 『중국어역사음운학』, 2014, 학고방, p.200~203.

17) 위키피디아 참고.

18) 『說文』: 西方色也. 陰用事, 物色白. 从入合二, 二陰數也.

19) 季旭昇, 『說文新證』 上冊, 臺灣:藝文印書館印行, 2004, 261쪽.

季旭昇은 郭沫若는 「伯侯父盤」 ‘白’자가 ‘𠂔’이라고 했는데, 표5를 참고하면 상단의 반달형은 갈라진 흔적(泐痕), 바닥 조각 흔적(垫片痕)이며, 묶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그다지 따를만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7번 『貨系』 3861에서 𠂔刀 ‘成白’에서 幣文이 다수 보이며, ‘白’의 일반적인 형식이다. 7번글자에만 횡획 ‘一’형이 있는데, 『貨系』에서는 ‘𠂔’이라고 풀이했는데 이는 따를 만하지 않다. 동일 자형에 대한 분석으로 『兆域圖』에서 보이며, 이를 湯餘惠이 「關於白字的在探討」에서는 ‘白’이라고 풀이하었다. 그는 아래 횡획을 더한 것을 장식필획(飾筆)로 여겼으며, 이는 믿을 만한 풀이이다.<sup>20)</sup>

【표 9】 白자형

 1.商·甲456 『甲』	 2.商·撫續64 『甲』	 3.商·後4.45.13 『甲』	 4.西周 ·叔貞『金』
 5.西周晚·伯侯父盤 『集成』	 6.戰國·晉·中山王兆 域圖『金』	 7.戰國·晉·貨系3861	 8.戰國·楚·包2.26 2『楚』
 9.秦·泰山刻石 『篆』	 10.秦·睡11.34『 篆』	 11.西漢·一號墓竹簡 『篆』	 12.東漢·曹全碑 『篆』

본 연구의 분석으로는 이들 두 견해에 따르면 하나는 ‘拇’를 魚部라고 보고 ‘白’상고음의 관계를 魚部로 따진 것이라면, ‘貌’ 藥部 또는 藥部로 보고 ‘白’상고음이 鐸部라는 것을 전제로 분석할 수 있다.

拇<sup>21)</sup> : 李方桂 brak 魚部  
鄭張尚芳 mu? 之部

白一平 mǝ? 之部  
潘悟云 muw? 之部

貌 : 李方桂 mragwh 宵部  
鄭張尚芳 mreewgs 豹2部

白一平 mreewks 藥部  
潘悟云 mreewgs 藥2部

‘白’상고음은 魚部에 있다고 보고 ‘拇’를 초문으로 삼는다면, 李方桂가 魚

20) 季旭昇, 『說文新證』 上冊, 臺灣:藝文印書館印行, 2004, 261쪽.

21) 東方語言學,上古音查詢, <http://118.24.95.172/oc/oldage.aspx> (본 논문에서 참고함)

部로 본 것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동부라고 여길 수 있게 된다. 並母魚部 入开二等이다.

‘白’상고음은 鐸部에 있다고 보고 ‘貌’를 초문으로 삼는다면, 白一平, 潘悟云이 藥部로 본 것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인접한 부라고 여길 수 있게 된다. 明母藥部 去开二等이다.

본 연구는 두 관점 모두가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곽말약은 엄지 손가락 ‘拇’의 의미가 후기자 ‘伯’자에 가깝기 때문에 이 글자가 본이라고 지지한 듯하지만 본의는 형태상을 나타내는 것도 함께 분석요소로 추가해야 할 것이며, 高鴻縉은 ‘白’은 ‘貌’의 초문이라고 본 견해에서 ‘戰國의 秦대 글자는 豹의 생략된 소리 글자(省聲字)를 더한 貌자’라고 분석한 것 또한 구체적인 예증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위에서 서술한 두 글자의 소리와 의미를 통해 아래와 같은 상호영향과 의미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白-伯 의미관계

<p>- 동음가차</p> <p>白: 並陌切 : 흰 쌀(대상) → 흰 색(추상화)</p> <p>白: 並陌切 : ?흰 쌀을 다루는 사람(대상의 행위주)</p> <p>→ 나이가 많은 사람(관습화)</p> <p>→ 수장(추상화)</p> <p>- 이독 관계</p> <p>白 : 並陌切</p> <p>↓ 형부(1)첨가</p> <p>伯 : 幫陌切</p> <p>→ 유사음 해성 : 유무성의 성모차이</p> <p>- 의미분화</p> <p>→의미2 유성음 白 : 사역화 의미파생: 밝게 하다. 분명하게 하다.(使清楚, 弄明白)</p> <p>무성음 伯 : 자동화 의미파생: 흰 쌀(대상)에 대한 제사를 행하는 행위자</p> <p>-나이가 많은 사람(사물)</p> <p>→의미3 의미2 유성음 白의 의미영역화 및 의미분화</p> <p>: (말을)진술하다. 분명하게 표명하다.(陳述, 表明)</p> <p>의미2 무성음 伯의 의미영역화 및 의미분화</p> <p>: 의미전용화 : 관직명 등 고유명사화</p>
--

총괄하면 본 연구에서 의미2의 무성음화 단계에 해당하는 ‘伯’의 단계에서 제사음식에 대한 대상인 ‘흰 쌀’(白의 본의)에 대한 ‘행위주’(伯의 본의)가 무성음화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의미로 분리되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고 ‘제사를 주관하는 우두머리’가 되었다가 ‘수장’의 의미로 변하고 이후 ‘관직명’으로 전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첫째, 피행위-행위자 관계 둘째, 사역화-자동화의 관계, 셋째, 유성성-무성성관계, 넷째, 의지(주체)-비의지(비주체)로 고대 중국어가 의미변화를 형성했으며, 특히 주체와 비주체의 관계에서 의미과생이 증폭된 것으로 여겨진다.

## 5. 伯에 대한 최근 증거들

‘伯’은 서주시기 땅의 범위와 넓이에 따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들의 직위가 달랐다. ‘伯’이 ‘白’의 자형으로 일반화되어 사용되던 주나라 시기에는 하나의 관직으로 사용된 글자이며, 글자의미의 그 범위와 역할을 추정할 수 있다.

『禮記·王制』에 따르면 “天子는 백리의 안에서 官을 받들고, 천리 안에서 御로 삼는다. 천리 밖은 사방에 伯을 세운다. 五國을 屬으로 삼는데 속에는 長이 있다. 十國은 連으로 삼는데 連은 帥가 있다. 三十國은 이를 卒이라고 여기는데 卒에는 正이 있다. 210國을 州로 여기는데 州에는 ‘伯’이 있다. 8州에는 8伯이 있고 56正이 있으며, 168 帥가 있고 336長이 있다. 8伯은 그것에 각각 속했는데, 천자의 老二人에 속하였다. 천하를 좌우로 나누고 二伯이라고 하였다. 천리의 안은 甸이라고 하고, 천리의 밖은 采와 流이다”라고 하였다.<sup>22)</sup>

천자의 거리에서 천리밖에 ‘伯’이 있다고 하였으며, ‘8州’에는 ‘8伯’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8伯’ 또한 좌우로 나눌 수 있다고 한 것으로 ‘伯’이 가지는 실제적인 지리적 위치와 통치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 1) 최근 출토문헌증거

22) 『禮記·王制』：“天子百里之內以共官，千里之內以為御。千里之外，設方伯。五國以為屬，屬有長。十國以為連，連有帥。三十國以為卒，卒有正。二百一十國以為州，州有伯。八州八伯，五十六正，百六十八帥，三百三十六長。八伯各以其屬，屬於天子之老二人，分天下以為左右，曰二伯。千里之內曰甸，千里之外，曰采，曰流。”

‘伯’은 여러 전래문헌과 출토문헌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데, 최근 발견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 ‘伯’의 역사상의 실체와 사실상의 지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2004년부터 山西省 남부의 臨汾盆地 일대에서 발굴작업이 시작된 橫北村 유적과 大河口 유적의 서주시대 묘지에는 ‘伯’의 신분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다. 특히 주대의 유적과 다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명문에 기록된 인물과 역사의 인물을 대조하고, 기록에 드러나는 해당 민족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관직과 인물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2012년 김정렬의 연구에서 중요 내용들이 다수 정리되었다. 山西省考古研究所 등은 2020 「山西絳縣橫水西周墓地出土M2531發掘報告」와 2019 「山西絳縣橫水西周墓地出土M2158發掘簡報」 등이 추가적 발굴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향후 성과보고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산서 일대 지도

첫 번째, 山西 絳縣 橫水 西周墓地 M2531이다. 최근 2018년~2020<sup>23)</sup>년 사이 발표된 보고서 요약에 따르면, M2531의 묘주는 周의 邦國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인물들로 倮伯, 芮伯 등의 인물이 등장한다.

橫北村 유적은 山西省 運城市 絳縣 서쪽의 橫水鎮 인근에서 발견되었다. 絳縣 橫水 西周 “倮伯”과 관련된 청동기물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발굴에 대한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간보형식으로 『문물』과 『고고』 학술지에 실리고 있으며 추가 정리되고 있다.<sup>24)</sup>

출토지에 다수의 기물에 문장이 새겨졌는데, ‘伯’, ‘倮伯’, ‘倮姬’, ‘魯侯’,

23) 山西省考古研究所 等, 「山西絳縣橫水西周墓地出土M2531發掘報告」, 『考古學報』 2020[1], 山西省考古研究所 等, 「山西絳縣橫水西周墓地出土M2158發掘簡報」, 『考古』 2019[1], 「山西翼城大河口西周墓地2002號墓發掘」, 『考古學報』 2018[2],  
 24) 山西省考古研究院等編著, 『倮金集萃——山西絳縣橫水西周墓地出土青銅器』 第188~192쪽 (上海古籍出版社, 2021年. 展玩團隊: 『山西“倮霸”青銅重器高清首發! 消失3000年西周古國, 震撼堪比兵馬俑』, 2021年7月7日. [https://mp.weixin.qq.com/s/44gsRu\\_IXzNq-gnE\\_OEXaQ](https://mp.weixin.qq.com/s/44gsRu_IXzNq-gnE_OEXaQ))

‘芮伯’, ‘太保’ 등의 인물과 직위가 등장하여 다수의 문물에서 ‘伯’에 해당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서 발굴지의 묘주와 묘주 지배자가 지닌 위상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이들 방국의 존재와 위상은 『좌전』에 “邶伯”과 관련된 기록이 다수 등장하는데 최근 묘혈의 발견으로 더욱 구체화 되고 있으며, 관련서적 『邶金集萃』<sup>25)</sup>이 출간되는 등 주나라 방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는 민족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부 기물에 관한 정리가 주된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山西 翼城 大河口 西周墓地 M2002號 墓發掘은 大河口 M2002<sup>26)</sup>는 2009~2011년에 발굴된 묘지 중 하나로 北鄰근처의 출토지이다. 이에 대한 관련 보고서와 출토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 출토지에서 중심적으로 토론되는 주제는 大河口에서 출토된 銘文에 출현하는 인물 穆公의 신분에 대한 토론이다.

霸姬盤은 西周中期偏 초기물로 추정되며, 臨汾市 翼城縣 大河口村에서 출토된 묘지의 매장품이다. 霸姬盤의 첫 소절에서 “8월 무신일이다. 霸姬가 氣를 목공에게 소송하였다. 이르기를... (唯八月戊申, 霸姬以氣訟于穆公曰...)”이라고 하였다.

裘錫圭<sup>27)</sup>는 霸姬盤을 근거로 穆公에 대해 霸姬의 남편이며, 霸仲의 형인 霸伯이라고 하였다.<sup>28)</sup> 王子楊, 付強 또한 穆公의 존재를 긍정했으며, 嚴志斌·謝堯亭 등의 연구를 통해 서주중기 穆公이 주왕실의 公卿이었으며, 尹姁鼎, 穆公簋蓋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王沛의 연구에서 서주 왕조대신설을 따르면서 霸姬의 남편은 霸伯이지만, M1017묘주의 한 대 앞선 霸伯이고, 霸姬는 M1017 묘주 霸伯과 M2002 묘주 霸仲의 어머니라고 분석했다. 吳雪飛 또한 왕조대신설을 따르면서, 穆公이 살아있을 때의 칭호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伯’이 방국의 군주라고 한다면 실제 문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25) 山西省考古研究院等編著, 『邶金集萃—山西絳縣橫水西周墓地出土青銅器』,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21, 188~192쪽.

26) 山西省考古研究所等, 『山西翼城大河口西周墓地M2002號墓發掘』(M2002:5), 『考古學報』2018 [2]

27) 裘錫圭, 『大河口西周墓地M2002 號墓出土盤盃銘文解釋』,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網 <http://www.gwz.fudan.edu.cn/Web/Show/4277>, 2018年07月14日

28) 王子楊, 『大河口霸國墓地 M1017 出土青銅銘文材料的幾點認識』, 中國社會科學院先秦史研究室

室網 <http://www.xianqin.org/blog/archives/9917.html>, 2018年3月9日。

필요가 있는데 穆公의 경우를 근거로 볼 때, 기록 당시 ‘伯’과 선대 ‘伯’에 대한 명칭을 구분해서 칭하였다. 그런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霸伯의 존재가 선대의 霸伯 인지 선조인 霸伯 인지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으나 李永康<sup>29)</sup>은 최근연구에서 이들을 구별하여 칭했을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어 추가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 민족에 대한 토론

### ① 橫水鎮

橫水鎮 M1에서는 출토된 기물의 내용과 문헌적 기록을 대조하여, 묘주의 신분과 민족을 추정하였다. 이는 ‘媯姬’를 단서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데, 馬保春<sup>30)</sup>은 「山西絳縣橫水西周倮國大墓的相關歷史地理問題」에서 무엇보다 전래문헌에서 倮國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부족하므로, 출토유적의 역사적 실증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여겼다. 그는 분석에서 다른 출토지 M2, M1는 倮伯와 그의 부인 묘지임이 분명하므로 서주 倮國의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특히 발견된 관련 유적이 전래문헌 또는 출토문헌과 관련되면서도 倮國 또는 倮氏과 관련되는 청동기물이 다수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발견으로 보았다.

山西省考古研究所의 李建生<sup>31)</sup>이 처음 복단대학교 ‘출토문헌과 고문헌 중심’에 게시한 글의내용에 따르면, 橫水묘지 M1의 倮伯倮簋 명문에서 ‘益公’이 있는데, ‘益公’은 九年乖伯簋, 十二年永孟, 十七祀詢簋, 二十年休盘에도 출현한다. 그는 恭王시기 인물로 여겨지는데 학계에서는 공통적으로 倮生簋, 詢簋, 永孟, 乖伯簋들이 모두 恭王시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倮生簋와 橫水墓地 M1에 보이는 倮伯夫人 ‘媯姬’의 묘지가 동시기의 것이라고 하였다.

M1列鼎의 명문 “倮伯이 媯姬의 보배로운 휴대鼎을 만든다(旅鼎倮伯乍媯姬寶旅鼎)”와 倮仲 鼎의 “倮仲이 媯媯의 媯鼎을 만든다(倮仲作媯媯媯鼎)”에

29) 李永康, 『論西周時期的“伯仲稱謂”-兼論春秋時期的“子伯仲稱謂”』, 武漢市文物考古研究所,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論壇, <http://www.gwz.fudan.edu.cn/Web/Show/4782>

30) 馬保春, 「山西絳縣橫水西周倮國大墓的相關歷史地理問題」, 『考古與文物』 2007[6] 37~43쪽, 『先秦、秦漢史』 2008, 2期. <https://www.1xuezhexuezhexue.com/Qk/art/378879?dbcode=1&flag=2>

31) 李建生, 「‘倮’,‘霸’國家性質辨證」, 山西省考古研究所, 2014年12月10日 [http://www.gwz.fudan.edu.cn/SrcShow.asp?Src\\_ID=2395](http://www.gwz.fudan.edu.cn/SrcShow.asp?Src_ID=2395)

서 보여주듯 ‘畢姬’는 ‘畢公’의 딸로 ‘媿姓’인 ‘侂伯’에게 시집온 것이고, ‘畢媿’는 侂仲의 딸이 다시 畢國에 시집간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서주중기 ‘媿’성인 ‘侂’과 ‘姬’성인 ‘畢’이 서로 혼인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김정렬<sup>32)</sup>의 분석에서 ‘畢’의 지위에 대해 左傳 僖公24년의 예문을 통해 문공의 후예로 등장하며, ‘姬’성임을 증명하였다.

이에 대해 李建生은 恭王시기의 侂生은 畢國의 귀족이며 주왕실에서 직책을 맡은 인물이며, 그의 어머니는 媿姓인 侂國에서 왔다고 하였다. 李建生의 주장에 따르면, 晉國 燮父 이외에 주왕실에서 직책을 맡은 경우는 문헌상에서 보이지 않으며, 설사 焞과 侂이 혼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주왕실에 직책을 맡고 있는 侂生 또한 ‘焞人’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 張天恩<sup>33)</sup>의 글에서 左傳에서 定公4년의 내용을 인용하여 侂伯의 민족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侂伯과 관련된 국가는 焞과 관련됨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비중원적 요소를 들어 설명하였다. 먼저 매장 시의 머리 위치가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점과 侂의 지배층이 商과 관련된 媿姓을 칭하였다는 점이다.

『左傳』의 내용은 봉건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당숙에게 대로와 密須의 북, 闕鞏이라는 갑옥, 沽洗이라고 하는 종, 懷姓九宗, 職官五正을 내리고, 唐誥 라는 문서로 책명하셨으며 夏의 옛 터에 봉건하여 夏의 전통에 따라 정치를 행하며 戎의 법으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sup>34)</sup>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렬은 懷姓九宗, 職官五正이 하나의 통치 규정이라고 보고 邦國에 시행토록 한 중법제도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보았다. 이어 “侂과 霸

32) 金正烈, 「橫北村과 大河口-최근 조사된 유적을 통해 본 西周時代 지역정치체의 양상」, 『동양사학연구』 120, 2012.9. 1-59쪽.

33) 張天恩, 『晉南已發現的西周國族初析』, 考古與文物 2010[1].

34) 『左傳·定公4年』: “昔武王克商, 成王定之, 選建明德, 以蕃屏周. 故周公相王室, 以尹天下, 於周爲睦. 分魯公以大路大, 夏后氏之璜, 封父之繁弱, 殷民六族條氏徐氏蕭氏索氏長勺氏尾勺氏 ... 分唐叔以大路密須之鼓, 闕鞏沽洗, 懷姓九宗, 職官五正, 命以唐誥, 而封於夏虛, 啟以夏政, 疆以戎索, 三者皆叔也, 而有令德, 故昭之以分物, 不然, 文武成康之伯猶多, 而不獲是分也, 唯不尚年也, 管蔡啟商, 懸間王室, 王於是乎殺管叔而蔡蔡叔, 以車七乘, 徒七十人, 其子蔡仲, 改行帥德, 周公舉之, 以爲己卿士, 見諸王, 而命之以蔡, 其命書云, 王曰, 胡, 無若爾考之違王命也, 若之何其使蔡先衛也, 武王之母弟八人, 周公爲太宰, 康叔爲司寇, 聃季爲司空, 五叔無官, 豈尚年哉, 曹, 文之昭也, 晉, 武之穆也, 曹爲伯甸, 非尚年也, 今將尚之, 是反先王也, 晉文公爲踐土之盟, 衛成公不在, 夷叔, 其母弟也, 猶先蔡, 其載書云, 王若曰, 晉重, 魯申, 衛武, 蔡甲午, 鄭捷, 齊潘, 宋王臣, 莒期, 藏在周府, 可覆視也, 吾子欲復文武之略, 而不正其德, 將如之何, 萇弘說, 告劉子, 與范獻子謀之, 乃長衛侯於盟, 反自召陵, 鄭子大叔未至而卒, 晉趙簡子爲之臨甚哀, 曰, 黃父之會, 夫子語我九言曰, 無始亂, 無怙富, 無恃寵, 無違同, 無敖禮, 無驕能, 無復怒, 無謀非德, 無犯非義.



역시 천하에 산포되어 있는 정치체인 棚伯과 霸伯은 그 邦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邦國 수장을 ‘伯’으로 칭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민후기<sup>35)</sup>는 西周시기 邦의 군주의 의미로 ‘伯’으로 불렸을 것이라고 보고 邦의 의미가 주변국을 가리키며, 邦의 범위를 확인하였다. 또 戎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었는데 용과 이를 구별하기 어려워했던 주나라인들의 관념으로 보았을 때, 西戎인 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자세히 분석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② 格伯

‘지명+伯’의 구조로 접근한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글자가 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물 ‘格伯’, ‘格仲’이다.

이들 글자는 大河口유적에서 종종 출현하는 인물이나 문헌 ‘葛’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토론은 李建生이 ‘葛姓’, ‘葛鄉’과 관련된다고 제시한 견해 이외에 별다른 논의는 없는 듯하다. 그는 음운학적으로 ‘格’과 ‘葛’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근거는 아직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格伯’의 봉국은 아마도 주나라 동문밖에 농작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지금의 鄭州市 滎陽縣 張樓村, 官庄근처로 추정하였다.

‘葛’자형은 漢代 이전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전국시대 자형으로는 위에 제시된 첫 자형1.陶彙5.458戰國.秦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보아 서주시기 자형은 아마 다른 글자였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소리로 통용되거나 해성으로 분석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는 李方桂系統로 분석했을 때, ‘格’은 魚部이고 ‘葛’은 祭部이기 때문이다.

格: (\*kak)見母 魚部 開一等全清:古落切(又古伯切)(李方桂)

葛: (\*kat)見母 祭部 開一等全清:古達切(李方桂)







이어 周法高, 鄭張尚芳, 潘悟云系統으로 본다면 格은 鐸部이고 葛은 月부로 볼 수 있다. 입성이 동일하다고 분석될 수 있으나 관련성을 찾기는 부족하다.

格: 周法高\*kak    鄭張尚芳 \*klaag 鐸部                    潘悟云 \*klaag 鐸部

35) 閔厚基, 「西周 國의 等差的 族聯合-金文을 중심으로 한 西周 內爵의 탐색」, 『東洋史學研究』 91, 2005.

葛: 周法高 \*kat 鄭張尚芳 \*kaad 月1部 潘悟云 \*kaad 月1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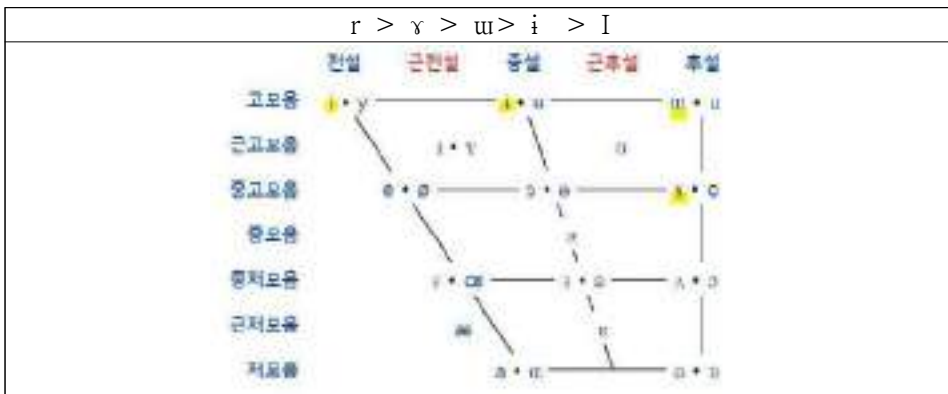
【표 11】 葛자형

 1. 陶龔 5.458 戰國·秦	 2. 說文·艸部	 3. 武威簡·服傳40(隸) 西漢	 4. 漢印徵
 5. 熹·詩·葛藟(隸) 東漢	 6. 晉石勒墓志(隸) 西晉		

다만 ‘格’을 중심으로 소리 발전과 자형발전의 과정을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潘悟云<sup>36)</sup>는 ‘格’에 대해 분화과정을 설명하면서 본래 ‘各’자가 가지는 자형이 이독현상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各’은 상고시기 두 개의 발음을 지녔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klak으로 중고의 1등운이고 『광운』에서는 古落切의 독음으로 발전하였고, 다른 하나는 \*krak으로 중고 2등운으로 발전하였으며, 후에 格으로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來母\*r-과 以母\*i-교체가 가능하므로 \*Cr-, \*Cl-<sup>37)</sup>의 교체도 당연히 성립된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鄭張尚芳은 중고의 2등개음의 음운변화를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표 12】 음운 발전 과정



36) 潘悟云 著, 權赫峻 譯, 『중국어역사음운학』, 2014, 학고방, p.473.

37) 潘悟云은 (2014:485) 시노티베트어에서 Cl-, Cr-의 C는 폐쇄음인 순음, 설근음, 후음으로 제한되고, 티베트-버만어에서 Cl-, Cr-의 C는 Cj(경구개접근음)-, Cz-(유성권설마찰음), C3(유성후치경마찰음)- 류의 복자음으로 변화했으므로 역사적 기원으로 볼 때 이들 복자음도 Cl-, Cr-류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格’의 발음은 현대방언에서 그 변화과정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산서 쑤계방언에서 전음절의 형태가 보이기 때문이다. 역사언어학적으로 Baxter & Sagart<sup>38)</sup>은 落 kə.r<sup>5</sup>ak->lak>luo<sup>4</sup>이라고 하면서, 侯精一(1989)<sup>39)</sup>산서 방언에서는 /kʌʔ-lʌʔ/ 이라고 발음하고 있는데, 格의 음으로 변화되어 kə.r<sup>5</sup>ak->kaek에서 路 Cə.r<sup>5</sup>ak-s>luH 로 발전된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落과 格의 모음차이를 전설(a)에서 후설음(?)으로 발음된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진계 방언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졌다고 볼 때, 과열운미의 입성운에서 ‘-r-’개음이 유지되며 2등운개음으로 소리가 점차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格’은 진계방언을 통해 ‘各’의 분화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데 상고음에서 폐쇄음의 호용은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음과 입성운의 관계가 명확한 개구음과 관련이 있다. ‘葛’과 ‘各’이 관련이 있다면, ‘葛’, ‘格’이 관련된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葛伯’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③山西 絳縣 橫水 西周墓地 M2158

山西 絳縣 橫水 西周墓地 M2158의 발굴된 매장품 중에 侯鼎과 太保鬲의 연대가 이른다. 王姊가 출가하면서 魯侯와 太保 집안이 媵器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어찌면 두 개의 기물이 다른 경로로 邰國에 전해지다가 후에 邰伯의 묘에 매장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M2158의 묘주 邰伯와 周나라 왕실 王姊의 혼인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芮伯의 媵이 邰姬로 출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묘주는 남성으로 순장된 사람의 시구는 6구로, 머리방향이 서쪽 4구, 남쪽 2구이고, 몸방향이 구부린 것 5구, 반듯이 누운 것 1구이다. 2마리 개가 순장되었다. 수장된 원시자기는 남쪽에서 온 것으로 귀중품이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묘장 동쪽은 비교적 큰 거마坑이 함께 매장되어 있다.

본 묘에 묘장된 동기는 27개로 食器鼎7件, 鬲2件, 甗1件, 簋2件, 酒器觚1件, 觶2件, 尊1件, 卣1件, 貉尊2件, 壺2件, 爵形盃1件, 斗2件, 釳器1件, 水器盤1件, 盃1件이다.

이들이 묘장된 위치는 기능에 따른 것으로 각각 다른 위치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놓여있었다. 식기는 서남쪽 棺과 槨 사이를 중심으로 놓여있었고,

38)Baxter&Sagart, 『Old Chinese』, Oxford press. 2014, p.185

39)侯精一, 『晉語研究』, 東京外國語大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1989.

남측 서쪽의 棺과 樽에 놓여 있었다. 酒器는 대부분이 북측 서쪽 棺과 樽 사이를 중심으로 놓여있었고, 水器인 盥, 盥은 북측중앙부 棺과 樽 사이에 놓여있다.

이처럼 매장과정에서 수장품이 기능에 따라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물들은 대부분 묘주의 상반신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다. 주로 酒器가 많이 수장되어있다.

주목할 것은 동시에 주조되었다고 추정되는 기물로 두 부류의 芮伯기물들이다.

한 부류는 두 개의 기물로, 형태, 문양, 명문이 서로 같은 ‘芮伯作倮姬簋’와 ‘芮伯作倮姬寶媵簋’이다. 다른 부류는 “芮伯이 王姊에게 만든다(芮伯作王姊)”의 명문으로 鬲, 盥, 盥각 1개씩이다. 명문내용은 대체로 같은데 이 세 기물은 동시에 주조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王姊는 周王 누이로 ‘其眾倮伯’, ‘用享王’과 호응되는 기물이며, 앞에서 말한 부류와는 다른 류의 것이다. 이들의 제작연대가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 기물간의 관련성은 王姊가 출가할 때 倮伯에게 준 것이라 여겨지며 芮伯은 동성인 媵에게 출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6. 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白’과 ‘伯’의 문자적 발전과 언어로서의 발전과전을 고문자와 상고음 등의 언어를 통해 살피고 최근출토 된 증거로서 증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白’과 ‘伯’의 언어학적 관련성에 대해 분석해 볼 때, 동음가차와 이독 관계, 의미분화관계 중에 가장 후에 발전한 것은 언어의 일반발전과정과 동일하게 소리→어휘의미→자형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리의 유무성 분화과정은 상고시기 매우 중요한 언어분화의 기제였으며, 이를 통해 언어의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 과정에서 글자의 분화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여겨지며, 이러한 선행적 발전 이후 ‘의미3’ 또는 ‘기타의미’로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白’은 흰 쌀의 초문으로, 이를 담은 ‘鬲’는 ‘簋’의 초문임을 알 수 있었다. 또, ‘鬲’의 여러 반절자를 통해 후기본자가 ‘簋’일 가능성을 추정했는데,

후기자 ‘卿’, ‘鄉’, ‘饗’들을 중심으로 ‘皂’의 분화자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卽, 既의 관계의 분석으로 고대사회에서 음식을 먹을 때의 전후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상징되는 행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문화연구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주관직에서 살펴보면, 왕의 관직은 주로 5등으로 이루어졌으며 “祿爵, 公·侯·伯·子·男”이라고 하였고 제후의 5등은 “上大夫卿·下大夫·上士·中士·下士”이라고 하였다<sup>40)</sup>. 『좌전』의 설명에 따르면, 그 범위를 “천자의 땅은 사방 천이리고, 공후의 땅은 사방 백리이고, 백은 칠십리이며, 자와 남은 오십리”<sup>41)</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땅의 범위를 설명하면서 각 직위의 권한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주시기 ‘伯’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邦國 즉 8국 제후국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三監의 난에서도 보이듯이 난을 일으킨 주 세력은 방국의 ‘伯’이었다.<sup>42)</sup> 8伯 중에서 3국의 伯이 난을 주도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伯의 세력이 왕권과 다툴 만큼의 지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시한 출토지에 등장하는 ‘伯’은 서주 관직명으로, ‘지역+伯’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0) 『王制』王者之制：祿爵，公·侯·伯·子·男，凡五等。諸侯之上大夫卿·下大夫·上士·中士·下士，凡五等。

41) 『王制』天子之田方千里，公侯田方百里，伯七十里，子男五十里。不能五十里者，不合於天子，附於諸侯曰附庸。天子之三公之田視公侯，天子之卿視伯，天子之大夫視子男，天子之元士視附庸。

42) 『王制』天子使其大夫為三監，監於方伯之國，國三人。

## [參考文獻]

### 전적류

- 『史記』, 中華書局 點校本, 1982.  
『尚書』, 中華書局 十三經注疏本, 1980.  
『左傳』, 中華書局 十三經注疏本, 1980  
『周禮』, 中華書局 十三經注疏本, 1980

### 자서 및 논문류

- Baxter&Sagart, 『Old Chinese』, Oxford press. 2014, p.185  
潘悟云 著, 權赫垓 譯 『중국어역사음운학』, 2014, 학고방, p.473.  
何光岳, 畢國的來源和遷徙, 求索 1997[5].  
黃錦前·張新俊, 『霸伯孟銘文考釋』,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網站論文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1494](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1494).  
黃益飛、謝堯亭, 『大河口墓地 M6096 出土 盆銘文簡釋』 『文物』 2020[1].  
侯精一, 『晉語研究』, 東京外國語大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1989.  
金正烈, 「邦君과 諸侯-금문 자료를 통해 본 서주 국가의 지배체제」, 『東洋史學研究』, 106, 2009.  
金正烈, 「橫北村과 大河口-최근 조사된 유적을 통해 본 西周時代 지역정치체의 양상」, 『동양사학연구』 120, 2012[9], 1-59쪽.  
李豐, 黃河流域西周墓葬出土青銅禮器的分期與年代』, 『考古學報』 1988[4]  
李建生, 「‘棚’、‘霸’國家性質辨證」, 山西省考古研究所, 2014年12月10日  
[http://www.gwz.fudan.edu.cn/SrcShow.asp?Src\\_ID=2395](http://www.gwz.fudan.edu.cn/SrcShow.asp?Src_ID=2395)  
李永康, 『論西周時期的“伯仲稱謂”-兼論春秋時期的“子伯仲稱謂”』, 武漢市文物考古研究所,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論壇,  
<http://www.gwz.fudan.edu.cn/Web/Show/4782>  
閔厚基, 「西周 國의 等差의 族聯合-金文을 중심으로 한 西周 內爵의 탐색」, 『東洋史學研究』 91, 2005.  
馬保春, 「山西絳縣橫水西周棚國大墓的相關歷史地理問題」, 『考古與文物』 2007[6] 37~43쪽, 『先秦、秦漢史』 2008, 2期.  
<https://www.lxuezhexuezhexue.com/Qk/art/378879?dbcode=1&flag=>  
裘錫圭, 『大河口西周墓地M2002 號墓出土盤盃銘文解釋』,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http://www.gwz.fudan.edu.cn/Web/Show/4277>, 2018年07月14日  
孫慶偉, 『尚孟銘文與周代的聘禮』,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論

文, [http://www.gwz.fudan.edu.cn/SrcShow.asp?src\\_ID=1763](http://www.gwz.fudan.edu.cn/SrcShow.asp?src_ID=1763).  
王國維, 「鬼方昆夷考」, 『觀堂集林』 第2冊, 中華書局, 1959.  
王子楊, 『大河口霸國墓地 M1017 出土青銅銘文材料的幾點認識』, 中國社會科學院先秦史研究室網 <http://www.xianqin.org/blog/archives/9917.html>, 2018年3月9日。  
山西省考古研究所 등, 『山西絳縣橫水西周墓發掘簡報』, 『文物』 2006[8].  
山西省考古研究所 등, 『山西絳縣橫水西周墓地』, 『考古』 2006[7].  
張儒·劉毓慶, 『漢字通用聲素研究』, 太原: 山西古籍出版社, 2002年4月.  
張天恩, 『晉南已發現的西周國族初析』, 考古與文物 2010[1].  
張天恩, 『大河口出土兌盆銘文相關問題淺議』 2021[5].  
張忠培, 『齊家文化研究(上)』, 考古學報 1987[1].  
張忠培, 『齊家文化研究(下)』, 考古學報 1987[2].

#### 참고사이트

小學堂, <https://xiaoxue.iis.sinica.edu.tw/>  
東方語言學,上古音查詢, <http://118.24.95.172/oc/oldage.aspx>





2021 古漢字 Conference  
古文字로 이해하는 동아시아 古代

---

제2부

【제4발표】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

- 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

▶ 박성우(홍익재단)

【제5발표】 출토문헌 자료에 보이는 '服'과 '五服'에 관한 내용

- 士山盤 명문의 '服'과 西周 시기 '服制'의 '名'과 '實'

▶ 이유표(동북아역사재단)

【제6발표】 先秦시기 年月日 표기방식에 대한 고찰

- 『三國遺事』 「古朝鮮」조의 紀年 표기방식을 함께 논함

▶ 박재복(경동대)

---



## 4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 - 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

박성우(홍익재단)

### 목 차

1. 서론
2. 출토문헌에 나타난 '五行'
  - 1) 갑골문의 '五行'
  - 2) 서주 금문의 '五行'
3. '五行'의 의미 파생 과정 분석
4. 결론

### 1. 서론

五行의 '五'는 보편적으로 다섯 가지 요소 즉, 현재 흔히 인식하는 水·火·木·金·土를 말하고, 고대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이 다섯 요소를 통하여 자연 현상과 인간사의 심오한 작용을 풀이하고 설명하였다. 예컨대, 자연·사회·정신 등의 형성과 변화를 풀이했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자연계와 인간계에 속하는 모든 분야와 사물의 근본·변화·질서에 대하여 설명 및 운영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五行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전래문헌은 『尚書』이며, 「夏書」편에 수록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甘誓」: “왕이 말하기를 '아! 六軍에 종사하는 사람아. 내가 너에게 고하노라. 有扈氏가 五行을 업신여기며 三正을 버려 天이 그들에게 내린 명을 끊으려고

하니, 지금 나는 天의 벌을 삼가 받들어 행하려고 한다.’(王曰: ‘嗟! 六事之人, 予誓告汝: 有扈氏威侮五行, 怠棄三正, 天用剿絕其命, 今予惟恭行天之罰’).“

위 「甘誓」의 내용을 간추리면, '有扈氏가 五行을 업신여기며 三正을 버려 왕이 天의 명령을 받아 형벌을 내린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으로 五行이 고대 국가 중대사에 중요 역할로 작용했던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러나 五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고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며, 어떠한 역할이나 용도를 나타내는지 더 이상의 단서나 해석은 살펴볼 수 없다. 특히 五行을 업신여겼다고 하였는데, 현재 인식하는 이 다섯 요소를 어떻게 업신여겼다는 것인지 쉽게 드러나지 않아 이해가 쉽지 않다. 이후 『周書』편을 통하여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洪範」: “箕子が 이에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옛날 鯀이 홍수를 막으려 했으나 五行의 순서를 어지럽게 배열해 놓았다. 帝가 진노하여 洪範九疇를 하사하지 않으니 彝倫이 이에 무너지게 되었고, 鯀이 사형에 처하게 되어 禹가 이에 계승받아 등용되니 天이 그제야 禹에게 洪範九疇를 하사하고, 彝倫이 베풀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箕子乃言曰: ‘我聞在昔, 鯀堙洪水, 汨陳其五行. 帝乃震怒, 不畀洪範九疇, 彝倫攸斁. 鯀則殛死, 禹乃嗣興, 天乃錫禹洪範九疇, 彝倫攸敘’).“

「洪範」: “첫 번째, 五行은 첫째는 水요, 둘째는 火요, 셋째는 木이요, 넷째는 金이요, 다섯째는 土이다. 水는 적시며 아래로 흐르고, 火는 불꽃을 튀기며 위로 오르고, 木은 굽고 곧으며, 金은 모양이 유지되고 바뀌며, 土는 이에 심고 거둔다. 적시며 아래로 흐르는 것은 짠맛을 내고, 불꽃을 튀기며 위로 오르는 것은 쓴맛을 내고, 굽고 곧은 것은 신맛을 내고, 모양이 유지되고 바뀌는 것은 매운맛을 내고, 심고 거두는 것은 단맛을 낸다(一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

위 「洪範」에서 五行에 쓰인 다섯 가지 요소의 기본적인 특성과 기능 원리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풀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尚書』가 五行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으로 五行이 언제부터 출현했고, 최초 어떠한 의미에서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 전국시기 말엽 추연(鄒衍)이 음양오행설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하여 정립했다는 사실은 학계에 잘

알려져 있지만, 이는 단지 음양오행에 관련하여 정리를 시도했을 뿐 기원을 창시했거나 최초 성립된 의미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五行의 발생 연대와 作者, 그리고 최초 의미와 변천 과정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五行의 발단과 오랜 기간 의미가 변화하며 정착된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五行은 동아시아 문화의 골간으로 발전 역사는 매우 유구하다. 商代를 대표하는 갑골문에서 이미 五行에 대한 기초 인식을 살펴볼 수 있고, 周代 청동기 명문에서 또한 五行과 관련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대 시기 출토문헌에서 五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이는 동아시아 고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검토 분석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五行 체계화에 대한 기존 주장을 보면, 商代 후기에 생성되어 전국 말기에 기본적인 체계가 완성되었고, 西漢 중기까지 계속하여 보충·변화·개선되며 의미 체계가 정형화되었다고 한다.<sup>1)</sup> 또한 五行의 최초 성립된 의미에 대한 기존 견해를 간략히 정리하면, '五材說', '五氣說', '五星說', '五季說', '月令說', '五官說', '五工說', '五方說', '五德說', '五教, 五倫, 五典' 등을 나열할 수 있다.<sup>2)</sup>

먼저, 五行의 파생적 내용들을 포함하여 비교적 상세히 설명한 전래문헌으로 前漢시기 劉安의 『淮南子』와 董仲舒의 『春秋繁露』를 제시할 수 있으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淮南子·天文訓』: “무엇을 오성이라고 하는가? 동방은 목이다. 그곳의 帝는 태호이고 그 보좌는 구망이 하며, 컴퍼스(規)를 쥐고 봄을 다스린다. 그 신은 세성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창룡, 그 소리는 각, 그 날은 갑을이다. 남방은 화이다. 그곳의 帝는 염제, 그 보좌는 주명이 하며, 저울(衡)을 쥐고 여름을 다스린다. 그 신은 형혹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주조, 그 소리는 치, 그 날은 병정이다. 중앙은 토이다. 그곳의 帝는 황제이고, 그 보좌는 후토가 하며, 먹줄(繩)을 쥐고 사방을 제어한다. 그 신은 진성(鎮星)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황룡, 그 소리는 궁, 그 날은 무기이다. 서방은 금이다. 그곳의 帝는 소호이고, 그 보좌는 옥수가 하며, 자(矩)를 쥐고 가을을 다스린다. 그 신은 태백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백호, 그 소리는 상, 그 날은 경신이다. 북방은 수이다. 그 帝는 전욱, 그 보좌는 현명이 하며, 저울추(權)를 쥐고 겨울을 다스린다. 그 신은 진성(辰星)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현무, 그 소리는 우, 그 날은 임계

1) 彭華, 『陰陽五行研究(先秦篇)』, 上海,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년, 1-2쪽.  
 2) 張玉清, 「試論五行起源於上古立杆測影特殊點位的軌迹周期」, 『漢字與歷史文化』第16期, 北京, 北京国际汉字研究会, 2019년.

이다(何謂五星? 東方, 木也, 其帝太皞, 其佐句芒, 執規而治春; 其神為歲星, 其獸蒼龍, 其音角, 其日甲乙. 南方, 火也, 其帝炎帝, 其佐朱明, 執衡而治夏; 其神為熒惑, 其獸朱鳥, 其音徵, 其日丙丁. 中央, 土也, 其帝黃帝, 其佐後土, 執繩而制四方; 其神為鎮星, 其獸黃龍, 其音宮, 其日戊己. 西方, 金也, 其帝少昊, 其佐蓐收, 執矩而治秋; 其神為太白, 其獸白虎, 其音商, 其日庚辛. 北方, 水也, 其帝顓頊, 其佐玄冥, 執權而治冬; 其神為辰星, 其獸玄武, 其音羽, 其日壬癸).“

『春秋繁露·五行之義』: “天에는 五行이 있다. 첫째를 木, 둘째를 火, 셋째를 土, 넷째를 金, 다섯째를 水라고 한다. 木이 五行의 시작이고, 水가 五行의 끝이며, 土가 五行의 중앙이다. 이것은 天이 정한 순서이다. 木은 火를 낳고, 火는 土를 낳고, 土는 金을 낳고, 金은 水를 낳고, 水는 木을 낳으니, 이는 부자 관계와 같다. 木은 왼쪽, 金은 오른쪽, 火는 앞, 水는 뒤, 土는 가운데에 자리 잡은 것은 부자의 차례와 같으며, 서로 도와 혜택을 받게 한다(天有五行: 一曰木, 二曰火, 三曰土, 四曰金, 五曰水. 木, 五行之始也. 水, 五行之終也. 土, 五行之中也. 此其天次之序也.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 此其父子也. 木居左, 金居右, 火居前, 水居後, 土居中央, 此其父子之序, 相受而布).“

두 문헌 기록은 五行의 기본 원리를 단순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차원을 벗어나 고대시기 생활 한 공간에 안착되어 많은 분야를 다섯 형태로 배당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淮南子·天文訓』의 기록은 방위를 시작으로 물질, 帝, 보좌, 사시, 동물, 소리 등을 배당한 수평적 관계로 서술되었고, 『春秋繁露·五行之義』의 기록은 물질적인 속성에 따라 상생을 설명한 수직적 관계로 서술되었다. 다시 말하면, 五行의 활용적 측면에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文子·微明』의 "天에는 五方이 있고, 地에는 五行이 있다. 聲에는 오음이 있고, 物에는 오미가 있으며 色에는 오장이 있고, 人에는 오위가 있다(天有五方, 地有五行, 聲有五音, 物有五味, 色有五章, 人有五位)."라고 하였고, 『黃帝內經·素問·天元紀大論』에서는 "황제가 물었다. 天에는 五行이 있어 五位를 다스리며, 이로써 寒, 暑, 燥, 濕, 風이 발생합니다.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어 오장의 기를 변화하며, 이로써 喜, 怒, 思, 憂, 恐이 발생합니다(黃帝問曰: 天有五行, 御五位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藏, 化五氣, 以生喜怒思憂恐)."라고 하였다. 이 내용을 통해 五行은 고대시기 지역적 방위와 그 영역, 기본 色과 소리, 味에 대한 정리, 사람들의 지위 구분, 인체의 변화 등을 정의하고 관리를 위한 기본으로 활용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시기 五行의 전체적인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의미 근원에 대하여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한 용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사료의 부족으로 다섯 요소를 토대로 한 五行을 최초의 의미로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근원적인 五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아 보다 체계적인 방법을 통한 심도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전래문헌을 중심으로 五行 연구를 진행한 틀을 벗어나 출토된 선진시기 문헌 즉, 출토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기존의 전래문헌을 통해 五行을 연구한 국내외 논문은 본 지면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 대부분 출토자료보다 후대의 문헌을 참고하였기에 연구에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출토자료 연구는 후대의 가공을 거치지 않아 당시 의미를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된 상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도로 판단된다.

이에 五行이 아직 확고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인 商代를 대표하는 갑골문과 西周시기의 금문을 집중적으로 수집 검색하여 용례를 살펴보고 五行의 골간과 구축, 변천 과정을 추적 분석해 보도록 한다.

## 2. 출토문헌에 나타난 '五行'

五行과 관련된 내용은 고대 문헌의 여러 분야에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五行의 시원과 형성에 관한 국내외 여러 발표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五行은 水·火·木·金·土라는 전국시대 이후 정의된 개념을 응용하여 역학·철학·천문학·성명학·사주학 등의 학문에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고대 시기에는 사회·문화 곳곳의 여러 분야가 다섯 가지 형태로 배당되어 풀이되었고, 심지어 현재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다섯 요소에 기반 하지 않은 다른 형태로 五行이 명명된 용례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新書·卷第八·六術』에서 '사람은 인, 의, 예, 지, 신이라는 행위가 있다(人有仁、義、禮、智、信之行)'와 출토된 馬王堆帛書에서 '仁, 知, 義, 禮, 聖'<sup>3)</sup>이라는 현재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五常을 五行으로 불렀던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 이를 근거한다면 五常 즉, 사람의 기본적인 도덕과

3) [日]池田知久 著, 王啓發 譯, 『馬王堆漢墓帛書五行研究』, 北京, 線裝書局,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년, 72쪽.

관련된 풀이가 五行의 기본 형태로도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五行의 본래 형태와 확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작업으로 중국 殷商시기와 西周시기 출토문헌의 용례를 수집, 분석하여 그 쓰임을 파악하고자 한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갑골문과 금문의 기록에 나타나는 '五行'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면 수집하여 분류하고, 그 의미를 제시, 구체화한다. 또한 전래문헌의 용례를 보충 참고하고 시간적 선후의 의미 확대와 변천,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五行 활용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 1) 갑골문의 '五行'

현재 확인되는 갑골문 자료에서 '五行'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그 요소인 水·火·木·金·土에 대한 설명은 발견되지 않고, 五方 또는 四方과 같은 五行의 방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과거 胡厚宣은 갑골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五方과 관련된 용례를 통하여 '中國'이라는 국가 명칭의 기원을 연구하였고, 五行 관념의 原型이나 발생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특이한 용례를 제시하였다.<sup>4)</sup> 五方은 다섯 개의 방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五行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고,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좋은 단서이다.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辛亥卜, 內貞: 帝于北方曰(允)風曰(役), 𠄎(年). (『合』14295.7)

신해일에 균열을 내어 內가 점을 쳤다. 允으로 일컫는 北方과 役으로 일컫는 風에게 禘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辛亥卜, 內貞: 帝于南方曰崑, 風夷, 𠄎年. (『合』14295.8)


신해일에 균열을 내어 內가 점을 쳤다. 崑으로 일컫는 南方과 夷으로 (일컫는 風)에게 禘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貞: 帝于東方曰析, 風曰荔, 𠄎年. (『合』14295.9)

점치기를, 析으로 일컫는 東方과 荔으로 일컫는 風에게 禘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4) 胡厚宣, 「論五方觀念及「中國」稱謂之起源」, 『甲骨學商史論叢初集』上, 濟南, 齊魯大學國學研究所, 1944년.



貞：帝于西方曰彝，風曰東，年。（『合』14295.10）

점치기를, 彝로 일컫는 西方과 東으로 일컫는 風에게 帝

위 갑골 복사는 제사를 거행하는 공간에서 동서남북 네 방향과 바람을 호칭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제사를 거행하는 공간과 사방 즉, 영토적 관점을 다섯 공간으로 인식한 표현인 듯하다. 다시 말해서, 殷商시기에 이미 五行의 전신이나 일부 형태로 볼 수 있는 五方이라는 구체적인 형태가 제사 의식 행위로부터 구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五方에 대한 기록은 후대 五行 근원의 원시적인 형태로 추측할 수 있는 동시에 사방에게 명칭을 부여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한 부분은 萬象을 다섯 형태로 배당한 후대 발전된 五行의 초기 형태 자료로 파악된다. 五方과 관련된 또 다른 용례를 보도록 한다.

己巳王卜，貞(今)歲商受(年). 王曰：吉。（『合』36975.1）

기사일에 왕이 균열을 내어 점치기를, 올해 商은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왕이 점괘를 판단하여 말하길: 길하다.

東土受年。（『合』36975.2）

동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南土受年. 吉。（『合』36975.3）

남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길하다.

西土受年. 吉。（『合』36975.4）

서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길하다.

北土受年. 吉。（『合』36975.5）

북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길하다.

위 용례는 모두 하나의 갑골에 새겨진 내용으로 점치는 행위가 이뤄지는 중심지에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모종의 수확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기술되었다. 여기서 두 부분을 추측할 수 있다. 하나는 五行의 원류는 동서남북과 중앙을 의미하는 五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商이 바로 자신의 위치가 사방의 중심이 되어 점술을 진행하였다는 부분이다. 전자는

더 많은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고, 후자는 또 다른 갑골 용례를 통해서 당시에 이러한 인식이 바탕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巳卜, 王貞: 于中商乎禦方. (『습』20453.1)

□사일에 균열을 내어 왕이 점치기를 中商에서 敵方을 방어하라.

庚辰卜, 中商. 三 (『습』20587)

경진일에 균열을 내어 中商에서 제사를 지냈다. 三.

戊寅卜, 王貞: 受中商年. 十月. (『습』20650.3)

무인일에 균열을 내어 왕이 점치기를 中商이 수확을 얻을 것이다. 十月.

勿于中商. 一 (『습』7837)

中商으로 가지 말라.

위 제시한 『습』20453.1의 문장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습』20450의 '임오일에 균열을 내어 呂가 점치기를 商에서 敵方을 방어하라(壬午卜, 呂貞: 乎禦方于商).'라는 용례를 통하여 中商은 즉, 商을 의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胡厚宣은 商代에 이미 東·西·南·北·中이라는 五方 개념이 존재하였다는 견해를 밝혔다.<sup>5)</sup> 五行이 최초 五方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五行 관념이 이미 안정되는 과정 속에 五方이라는 관념이 생겨났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갑골 용례를 통하여 일찍이 은상시기부터 다섯 방향을 중시한 사실은 분명한 듯하다. 이는 예로부터 농업 중심의 사회로 구성된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색에 의하여 각 방위를 중시하는 형태로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sup>6)</sup>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전래문헌 『左傳』 成公13年の '국가의 대사는 제사와 전쟁에 있다(國之大事, 在祀與戎).'라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듯이 은상시기 제사와 전쟁 또한 중시되었고, 제사를 다섯 형태로 조직하여 거행하는 용례를 살펴볼 수 있다. 양동숙은 武丁을 선두로 한 舊과에서는 上帝를 비롯해 風·雨·山·河 등 자연과 조상들을 향해 다양한 제사를 거행하였고, 祖甲을 선두로 한 新과에서는 모든 제사를 다섯 가지로 정리한 五種祭祀를 주기에 따라 周祭를 거행하였다고 하였다.<sup>7)</sup> 더욱이 상대 말기

5) 胡厚宣, 「論五方觀念及「中國」稱謂之起源」, 『甲骨學商史論叢初集』上, 濟南, 齊魯大學國學研究所, 1944년, 385쪽.

6) 은상시기 갑골문에서 농업과 관련된 용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胡厚宣, 胡振宇, 『殷商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년, 235-279쪽.

에는 翫, 祭, 饗, 饗, 飠 등 다섯 가지의 제사를 정하여 오중제사로 나뉘어 지냈다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오중제사의 명칭에 대하여 정리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翫: 조류의 깃털을 들고 춤을 추며 진행하는 제례

祭: 육류를 제물로 진행하는 제례

饗: 곡물을 제물로 진행하는 제례

饗: 祭, 飠 등과 함께 진행되는 종합 제례

飠: 악기를 사용하는 제례

오중제사는 일정한 규칙에 근거하여 조상에게 끊임없이 순환하며 제사를 거행하는 것으로, 김경일은 祖甲의 오중제사를 원시적이지만 五行적 사유 방식의 최초 구체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9)</sup> 계속하여 갑골문에서 오중제사 용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한다.

乙丑卜, □貞: 王賓報乙翫, 亡尤. (『합』22689)

乙丑일에 균열을 내어 □가 점치기를 왕이 친히 報乙의 혼령을 맞으며 翫 제례를 지내면 우환이 없을 것이다.

甲辰[卜], 大貞: 翫乙巳祭于小乙亡它. 在九月. (『합』23128)

甲辰일에 균열을 내어 大가 점치기를 다음날 을사일에 小乙의 혼령을 맞으며 祭 제례를 지내면 우환이 없을 것이다. 9월에

壬申卜, □貞: 王賓示壬饗亡困. (『합』22706)

壬申일에 균열을 내어 □가 점치기를 왕이 친히 示壬의 혼령을 맞으며 饗 제례를 지내면 우환이 없을 것이다.

[甲]申卜, [行]貞: 王賓上甲饗, 亡尤. 在□[月]. (『합』22682)

甲申일에 균열을 내어 行이 점치기를 왕이 친히 上甲을 맞으며 饗 제례를 지내면 우환이 없을 것이다.

7) 양동숙, 『갑골문자전 갑골문해독』, 서울, 월간 서예문인화, 2007년, 292쪽.

8) 김경일, 「殷代 '出組' 5種祭祀 관련 갑골문 텍스트를 통한 유교 조상숭배 문화의 기원 연구」, 『中語中文學』第41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07년, 31쪽.

9) 김경일, 「殷代 갑골문을 통한 '五行'의 문화적 기원 연구」, 『中語中文學』第38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년, 135쪽.

乙酉卜, 尹貞: 王賓祖乙, 亡[尤]. (『合』22723.6)

乙酉일에 균열을 내어 尹이 점치기를 왕이 친히 조상 祖乙을 맞으며 乙의 제례를 지내면 우환이 없을 것이다.

오중제사의 의미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殷王 上甲을 시작으로 아래 선왕과 직계 亡母까지 반복 순환하며 제사를 거행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1년을 360일 또는 370일로 여겼던 殷商시기에 쫓와 乙는 단독으로, 祭, 壹, 齊는 서로 함께 묶어 쫓-祭, 壹, 齊-乙 등의 세 제사로 조직하여 반복적으로 거행하는 제사라고 하였다.<sup>10)</sup> 앞서 언급한 양동숙의 견해처럼 祖甲을 선두로 한 新과에서 이와 같이 제사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연유로 상대말기 오중제사에 집중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다섯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지 않고, 사회 범위를 일정하게 체계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판단된다.


이 밖에 갑골문에서는 五臣에 대한 용례 또한 확인할 수 있다.

辛亥卜□五臣□. (『合』30391.1)

辛亥일에 균열을 내어 □五臣□.

王又{侑}歲于帝五臣正, 佳亡雨. (『合』30391.2)



왕이 帝의 五臣에게 侑歲 제례를 지내면, 비가 없을 것이다.

□又{侑}于帝五臣, 又{有}大雨. (『合』30391.3)

帝의 五臣에게 侑 제사를 고하면 큰 비가 있을 것이다.

□帝五臣□. (『合』31061)

□帝의 五臣 □.

庚午貞: {蝗}大 {舉}, 于帝五珏{工}臣宁. 在祖乙宗卜.<sup>11)</sup> (『合』34148)

庚午일에 점치기를 메뚜기가 크게 일어나는데, 제 五臣에게 宁 제사를 거행해도 될 것이다. 祖乙의 종묘에 균열을 내다.

10) 李立新, 『甲骨文中所見祭名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博士學位論文, 2003년, 13-14쪽.

11) 문자 고석에 대하여 王進鋒의 견해를 참고하였다. 王進鋒, 「卜辭"五臣"與《史記·封禪書》"九臣"解」, 『考古與文物』第6期, 西安, 陝西省考古研究所, 2012년.

다섯 신하의 직책과 업무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帝五臣正', '帝五珏{工}臣'<sup>12)</sup>으로 기록한 구절과 다섯 신하에게 직접적으로 歲, 侑 제사를 거행했다는 기록에 근거한다면, 다섯 신하들을 政事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 듯하다. 『論語·泰伯』을 보면, "순이 신하 다섯 사람을 두어 天下를 다스렸다(舜有臣五人, 而天下治)."라고 하여 何晏의 注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禹), 직(稷), 설(契), 고요(皐陶), 백익(伯益)이라 하였다(孔曰: 禹, 稷, 契, 皐陶, 伯益).'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비교적 늦은 魏 시기의 주석이지만, 갑골에 나타난 五臣을 특수한 직책의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구절이다. 일찍이 胡厚宣은 商代에 각각의 방위에 제사를 거행하였다는 卜辭 용례를 통하여 帝五臣과 帝五工臣은 五方の 신이며, 각 지역 인간사의 운명을 주관하였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sup>13)</sup>

五臣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래문헌의 기록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左傳』 昭公17年에서 "오치는 다섯 가지 공예를 맡은 장관으로 기물을 만들어 이롭게 하고, 도량을 바로 잡아 백성들의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관직이다(五雉為五工正, 利器用, 正度量, 夷民者也)."라고 하여, 杜預 注를 보면, '五雉의 雉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西方의 鴝를 鷓雉라고 하고, 東方의 鴝를 鷓雉라고 하며, 南方의 鴝를 鷓雉라고 한다. 北方의 鴝를 鷓雉라고 하고, 이수와 낙수 남쪽의 鴝를 鷓雉라고 한다(五雉, 雉有五種, 西方曰鷓雉, 東方曰鷓雉, 南方曰鷓雉, 北方曰鷓雉, 伊洛之南曰鷓雉).'라고 하였다.

또한 『左傳』 昭公17年の 다른 구절에서는 "그러므로 새로써 기록하여 벼슬을 새의 이름으로 命名하였으니, 鳳鳥氏는 歷正(歷法을 맡은 長官)이다(故紀於鳥, 為鳥師而鳥名, 鳳鳥氏歷正也)."라고 하여, 杜預 注를 보면, '鳳鳥는 天時를 알기 때문에 鳥로써 歷正의 官名으로 삼은 것이다(鳳鳥知天時 故以名歷正之官).'라고 하였다. 위 문헌과 주석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五雉는 다섯 방향의 방위를 담당하는 관직을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左傳』 昭公17년에 기록된 '다섯 가지 공예를 맡은 장관(五工正)', '鳳鳥氏는 歷正이다(鳳鳥氏歷正也)'라는 문장 구절과 갑골문 『合』3039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절 '帝의 五臣(帝五臣正)'의 문장 표현이 동일하여 갑골문에

12) 두 구절의 의미에 대하여 王進鋒이 전래문헌 기록에 근거 서술하여 본고에서 중복 서술하지 않는다. 王進鋒, 「卜辭"五臣"與《史記·封禪書》"九臣"解」, 『考古與文物』第6期, 西安, 陝西省考古研究所, 2012년.

13) 胡厚宣, 「殷卜辭中的上帝和王帝(上)」, 『歷史研究』第9期,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1959년, 47-50쪽.

기록된 五臣 또한 동·서·남·북·중이라는 五方を 각각 담당하는 관직명을 의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은상시기 갑골문에는 동·서·남·북·중이라는 五方 그리고 五種祭祀, 五臣 등 다섯 가지로 조직된 형태를 볼 수 있는 동시에 모두 다섯 공간이라는 방위를 중시하는 형태로 서술되었다는 주목할 만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五行의 다섯 요소의 조화로 우주 만물의 생성과 자연계의 운동을 통한 상생을 설명하였거나 철학적 혹은 도덕적, 천문학적 영역과 결부하여 五行을 언급하는 용례는 확인할 수 없는 반면에 단지 제사 거행이나 다섯 방향의 대상을 강조한 단순히 영토적·지리적 관점의 五方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초 五行의 기원이 다섯이라는 분류법을 통한 위치 영역의 강조 혹은 생활상의 어떠한 분류 편의를 위하여 발생되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분류법이 시간이 지나며 확대되었고, 五材를 이용한 五行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淮南子·天文訓』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섯 동물 즉, 오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도록 한다. 전한 시기 劉安이 저술한 『淮南子』의 「天文訓」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수는 다섯 종류의 동물을 말하는 것으로 동방은 창룡(東蒼龍), 남방은 주조(南朱鳥),<sup>14)</sup> 중앙은 황룡(中黃龍), 서방은 백호(西白虎), 북방은 현무(北玄武)가 각각 배당되었다. 흥미롭게도 『淮南子』보다 이전 문헌으로 보이는 전래문헌에서는 위 동일한 부류의 五獸가 중앙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방에 각각 배치되었다. 예를 들어, 『吳子·治兵』에서 "반드시 왼쪽은 靑龍, 오른쪽은 白虎, 앞은 朱雀, 뒤는 玄武이다(必左靑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와 『禮記·曲禮上』에서 "앞은 朱鳥, 뒤는 玄武이고, 좌는 靑龍 우는 白虎이다(前朱鳥而後玄武, 左靑龍而右白虎)."라는 용례를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漢代 이전 전래 문헌에서는 四獸 즉,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을 상징하는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 이 네 동물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색깔을 의미하는 靑, 白, 朱, 玄을 제외하면, 龍, 虎, 雀, 武로 분리할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네 동물은 은상시기 갑골문에서 모두 각각 邦國의 명칭으로 나타난다. 살펴보면:

14) 高誘의 注를 보면, "주조는 주작이라고도 한다(朱鳥, 朱雀也)."라고 하였다. 黃暉, 『論衡校釋』(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0년, 150쪽.

(1) 龍

貞: 王夷{惠}龍方伐.. (『合』6476)

점치기를, 왕은 용방을 공격할 것이다.

王勿惟龍方伐. (『合』6476)

왕은 용방을 공격하지 말라.

(2) 虎

□□卜, □, 貞: 令望(乘)眾輿其窞(會)<sup>15</sup>虎方, 告于祖乙. 十一月. (『合』6667.1)

□□일에 균열을 내어 □가 점치기를, 望(乘)과 輿가 虎方을 영접할 것이다. 祖乙에게 고합니다. 12월.

□□卜, □, 貞: 令望乘眾輿其窞(會)虎方, 告于大甲. 十一月. (『合』6667.4)

□□일에 균열을 내어 □가 점치기를, 望乘과 輿가 虎方을 영접할 것이다. 大甲에게 고합니다. 11월.

□□卜, □, 貞: 令望乘眾輿窞(會)虎方. 十一月. (『合』6667.5)

□□일에 균열을 내어 □가 점치기를, 望乘과 輿가 虎方을 영접할 것이다. 11월.

(3) 雀

乙巳卜, 爭, 貞: 雀弗其隻{獲}巨, 二告. (『合』6952正)

乙巳일에 균열을 내어 爭이 점치기를, 雀은 巨을 포획할 수 없다.

두 번째 고하다.

癸丑卜, 賓, 貞: 于雀<sub>壙</sub>{壙}. (『合』13515)

癸丑일에 균열을 내어 賓이 점치기를, 雀에 성을 축조할 것이다.

(4) 武

乙未卜, 賓, 貞: 以武芻. (『合』456正.7)

乙未일에 균열을 내어 賓이 점치기를, 武 지역의 사람을 거느리고 짐승 사육의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상 제시한 갑골문 용례에서 후대 五獸로 대표되는 동물 중, 중앙을 제

15) 朱鳳瀚이 '窞'를 '會'로 고석한 견해를 참고하였다. 朱鳳瀚, 「再讀殷墟卜辭中的'衆」, 『古文字與古代史』(第二輯), 台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09년.

외한 나머지 龍·虎·雀·武라는 네 동물이 은상시기 邦國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대시기 토템을 이용하여 방국을 명명하였다는 통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물로 명명된 방국의 명칭과 五方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더욱이 五行에 배당된 각 동물의 선택 기준과 과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2) 서주 금문의 ‘五行’

앞서 제시한 『尚書·周書·洪範』에서 확인할 수 있는 五行 풀이에 근거하면, 西周시기 이미 水·火·木·金·土라는 五材를 내포한 五行 관념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출토된 西周 청동기에 나타난 명문 자료를 보면 아쉽게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殷商시기와 西周시기는 탄생 배경과 지배층의 문화 차이가 엄연히 다르지만, 『論語·為政』의 "주나라가 은나라 예를 인습하니 손익한 것을 알 수 있다(周因於殷禮, 所損益, 可知也)."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西周시기로 넘어오며 직·간접적으로 은상시기의 문화를 영향 받은 듯하다. 이는 殷商 甲骨 卜辭의 五方의 발전된 형태를 보이는 西周 명문 자료의 내용을 근거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西周 초기, 중기, 말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청동기 명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五方에 대한 용례를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五行의 의미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大孟鼎(『集成』2837): “9월에 왕이 宗周에 있었다. 왕이 孟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孟! 크게 빛나는 文王께서는 天으로부터 大命을 받았다. 武王은 文王을 계승받아 나라를 세우고, 감춰진 땅을 열고, 四方을 소유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렸다’ (隹{唯}九月, 王才{在}宗周, 令{命}孟, 王若曰: 孟! 不{丕}顯玟{文}王, 受天有大命{命}, 王{在}武王嗣玟{文}乍{作}邦, 闢{厥}土, 匍{撫}有{佑}三{四}方, 曠{駿}正{厥}民).”

保尊(『集成』6003): “을묘, 왕이 保에게 殷 東國의 五侯를 잡으라고 명하여 이에 여섯 물품을 하사하여 保가 치하 받고, 물품을 하사 받아 父癸의 종묘를 위한 보배로운 제기를 만들었으며, 四方이 조우하여 왕과 회합하여 주를 돕기를 제사하였다. 2월 보름(乙卯, 王令保及殷東或{國}五侯{侯}, 王誕{誕}兄{兄}六品, 蔑{錫}于保, 易{錫}賓, 用作{作}父癸宗寶{尊}彝, 邁{于}三{四}方, 王{會}王大祀, 王{于}周, 才{在}二月既{既}望{望}).”



大盂鼎 명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四方을 소유하고'라는 구절의 '四方'은 중원이라는 지배층이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단지 네 개의 방향으로 국한해 표현한 부분이다. 保尊의 명문 또한 四方 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여 지배층 이외의 공간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공간 관념은 갑골문에서 중심을 제외한 동·서·남·북이라는 일정한 범위를 중시한 지리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전해져 내려와 발생한 표현법으로 판단된다.

『後漢書·班彪列傳第三十上』에서 "五方에서 가장 특별하다(殊異乎五方)."라고 하여 李賢이 注를 보면, "五方은 四方과 중앙을 말한다(五方謂四方及中央也)."라는 풀이가 四方은 五方の 한 부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淮南子·原道訓』에서 "태고 때에 이황은 도의 근본을 얻어 중앙에 즉위하고 신을 따라 조화를 이루어 사방을 돌보았다(泰古二皇, 得道之柄, 立於中央, 神與化游, 以撫四方)."라고 하여 高誘의 注에서 "撫는 안이요, 四方은 天下를 말한다(撫, 安也. 四方, 謂之天下也)."와 『詩·周頌·執競』에서 "사방을 다스리다(奄有四方)"라고 하여 鄭玄의 箋에서 "사방이란, 천하를 말한다(四方, 謂天下也)."라는 풀이가 四方이란 지배층이 존재하는 공간인 중앙을 제외한 나머지 통치권 내의 공간을 의미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陳夢家是 保尊의 명문 '殷 東國의 五侯(殷東或{國}五侯{侯})'라는 구절은 蒲姑와 四國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四國은 반드시 네 개의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sup>16)</sup>

다시 말하면, 갑골문에서 동·서·남·북·중이라는 방위 개념의 五方이라는 표현에서 지배층이 있는 공간과 나머지 공간을 단지 네 방향으로 포괄하여 인식한 五方 관념의 성립 과정 속의 확대된 형태로 볼 수 있다. 四方과 관련된 전래문헌 시경의 내용을 보면, 『詩經·商頌·殷武』: "상 나라의 도읍이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여 四方의 본보기로다(商邑翼翼, 四方之極)", 『大雅·文王之什·下武』: "천의 복록 받으니 四方에서 하례를 드리다(受天之祜, 四方來賀)", 『大雅·蕩之什·常武』: "四方이 평정되니 서방이 와서 조공하네(四方既平, 徐方來庭)", 『大雅·文王之什·棫樸』: "부지런한 우리 임금, 四方의 기강이 되다(勉勉我王, 綱紀四方)", 『大雅·生民之什·卷阿』: "편안하고 단아한 군자는 四方의 본보기가 되네(豈弟君子, 四方為則)", 『大雅·生民之什·卷阿』: "편안하고 단아한 군자는 四方의 법도가 되네(豈弟君子, 四方為綱)", 『大雅·文王之什·皇矣』: "四方을 살피고 백성들의 고통을 구했다(監觀四方, 求民之莫)"라

16) 陳夢家, 『西周銅器斷代』, 北京, 中華書局, 2004년, 7쪽.

고 하여 명문의 용례와 유사하게 공간적인 부분을 五方 관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중앙과 사방으로 분리해 표현하였다. 여기서 四方은 방위사를 정치적 관점에 포함시켜 피지배층의 공간을 모두 아울러 지배층이 있는 공간으로 집중시키고 통치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속해서 중기 청동기 명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𠄎伯簋蓋(『集成』4302): “周王 정월 庚寅일에 周王이 말하였다. ‘𠄎伯아, 애초부터 네 선조는 周나라에 공로가 있고, 四方으로 영토를 개척하는데 보조하며 天命을 크게 보좌하였다.’ (佳{唯}王正月, 辰才{在}庚寅, 王若曰: 𠄎白{伯}𠄎, 𠄎{繇}自乃且{祖}考有𠄎{庸}于周邦, 右{佑}𠄎{關}三{四}方, 𠄎{助}𠄎{天}命{命})”

班簋(『集成』4341): “8월 初吉, 宗周에서 甲戌일에 王은 毛伯에게 虢城公의 직무를 이어받아 왕위를 보위하고 四方의 모범이 되며, 𠄎, 蜀, 巢 세 지역을 장악하도록 명하며 鸞鈴과 말 재갈을 하사함으로 책명을 마쳤다(佳{唯}八月初吉, 才{在}宗周, 甲戌, 王命{命}毛白{伯}𠄎{虞}虢{城}公{服}, 𠄎{屏}王立{位}, 乍{作}三{四}方{極}, 秉𠄎、蜀、巢, 命易{錫}鈴、𠄎{勒}, 咸).”

師匚簋(『集成』4342): “皇帝께서는 (周 왕실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 周를 굽어 살펴 보우하시니, 四方의 백성까지 안락하고 안정되지 않음이 없다’ (肆{肆}皇帝亡{敦}, 臨保我又{有}周, 𠄎{零}三{四}方民, 亡不康靜{靖}).”

番生簋蓋(『集成』4326): “番生은 감히 선조의 위대한 큰 덕을 본 받지 아니할 수 없고, 대명을 거듭 완고하게 하여 왕위를 보좌하고, 밤낮으로 경건하게 덕을 탐구하며, 四方을 다스려 먼 곳과 가까운 곳의 나라를 안정시킨다(番生不敢弗帥并{型}皇且{祖}考不{丕}𠄎{元}德, 用𠄎{申}𠄎{固}大命{命}, 𠄎{屏}王立{位}, 虔𠄎{夙}夜, 尊{溥}求不替{潛}德, 用諫三{四}方, 𠄎{柔}遠能𠄎{邇}).”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서주초기 대우정 명문에서는 사방을 소유한다는 의미로 서술되었다면, 서주중기 청동기에서는 지배층이 존재하는 공간인 중앙으로부터 사방을 향해 모종의 행위가 전해지고, 은덕을 전달하며 온전히 다스린다는 의미로 서술되었다. 이 또한 명문의 四方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방향을 구분했다기보다는 四方을 이용하여 주위를 의미하고, 중앙을 중시하며 중앙 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전래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尚書·堯典』에서 "따

로 羲仲에게 명하여 嶠夷에 거주하게 하시니, 暘谷이라고 한다(分命羲仲, 宅嶠夷, 曰暘谷)."라고 하여 疏를 보면 "羲仲은 東方의 거주하는 민족의 일을 주관한다(羲仲掌此東方居民之事也)."라고 하였고, "다시 羲叔에게 명하여 南交에 거주하게 하였다(申命羲叔, 宅南交)."라고 하여 注를 보면 "요가 남방의 交趾를 보호하다(堯南撫交趾)."라고 하였으며, 남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따로 和仲에게 명하여 서쪽에 거주하게 하시니, 昧谷이라고 한다(分命和仲, 宅西, 曰昧谷)."라고 하였고, "거듭 和叔에게 명하여 朔方に 거주하게 하시니, 幽都라고 한다(申命和叔, 宅朔方, 曰幽都)."라고 하였으며, 疏를 보면 "釋訓에서 '朔은 북방이다(朔, 北方也).'라고 한다."고 하여 지배층이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단지 동·서·남·북 네 방위로 함축해 중앙을 강조하고, 집권하는 공간을 모두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은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제시한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에 나타나는 용례 모두 五方이라는 공간적 구분을 토대로 서술되었고, 이러한 특징은 모두 갑골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五方에 대한 인식에서 발전된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주 말기 청동기 명문을 제시하고 부분적인 결론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五祀 鐘(『集成』358): “文王은 大命을 받아 四方을 다스렸다. 소자인 나는 선왕을 계승하여 上하(天地)와 조화를 이루고, 왕의 귀한 보물을 만든다(明 文, 乃 膺受大命, 匍撫右有三四方. 余小子肇嗣先王, 配上下, 乍作 厥王大寶).”

逯盤(『新收』757): “逯이 말하였다. ‘위대한 나의 선조 單公께서는 위엄 있게 진실로 덕을 널리 행하였다. 文王과 武王을 보좌하여 殷을 공격하고, 天으로부터 훌륭한 명을 받아 四方을 돌보고, 그 영토를 성실하게 통치하며 上帝와 조화를 이뤘다’ (逯曰: 不丕顯 朕皇高且祖單公, 迺克明 慎 德. 夾 召文王武王達 殷, 膺受天魯命, 匍撫有三四方, 竝宅 堇勤疆土, 用配上帝).”

南宮乎鐘(『集成』00181): “선조 남궁, 아조 공중, 필부의 집안은 천자의 만년 무병장수와 四方을 영원히 보우하며 황천과 조화를 이루길 빕니다.(先且祖 南公 亞且祖公仲 必父之家, 天子 其萬年費 晷, 晷永保三四方, 配皇天).”

禹鼎(『集成』2833): “우가 이르기를, ‘크게 빛나고 위엄 있는 皇祖 穆公이 선왕들을 곁에서 보좌하며 四方을 안정시켰네.’ (禹曰: 不{丕}顯{起}[起起]{桓桓}皇且{祖}穆公, 克夾{紉}紹先王, 奠三{四}方).”

大克鼎(『集成』2836): “크게 빛나는 천자는 만년동안 무강하여 주나라를 보호하고 통치하였으며 오랫동안 四方을 보살폈다(不{丕}顯天-子-[天子. 天子]{其}萬年無疆{疆}, 保辭{乂}周邦, 隳{峻}尹三{四}方).”

簠(『集成』4317): “나의 마음은 밝고 아름다워 사방에 미치게 하였다(簠{致}朕心, 墜{施}于三{四}方).”

師克盃(『集成』4467): “왕이 이르기를, ‘師克아. 크게 빛나는 문왕과 무왕의 大命을 받아 四方을 다스렸다(王若曰: 師克, 不{丕}顯文武, 膺{膺}受大命{命}, 匍{撫}有三{四}方).”

虢季子白盤(『集成』10173): “12년 정월 초하루 정해일, 虢季子白은 보배로운 반을 만들었다. 크게 빛나는 子白의 군대는 웅장하고 용맹하여 사방을 잘 관리했다(隹{唯}十又二年正月初吉丁亥, 虢季子白乍{作}寶盤, 不{丕}顯子白, 壯{壯}武于戎工{功}, 經{經}雍三{四}方).”

서주 청동기 명문의 용례를 종합해 보면, 앞서 언급한 水·火·木·金·土 즉, 다섯 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도덕적·철학적 관점에서 서술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단지 중심 공간과 四方을 이용하여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모든 공간을 나타낸 五方の 발전된 형태가 서술되었다고 판단된다.

정리하면, 갑골 복사와 청동기 금문 모두 五行이나 五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은상시기부터 五方, 五種祭祀, 五臣 등 이미 다섯 형태로 구분하려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동·서·남·북·중이라는 형태 즉, 五方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설정하고 모종의 행위가 발생하는 형식으로 서술된 부분에 근거한다면, 五行 본신의 형태가 본래 방위를 구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주시기 청동기 금문에서 지배층의 공간을 나타내는 중앙과 그 이외의 공간을 四方이라는 방위 표현을 사용하여 五方の 틀 안에 모든 공간을 대입하는 형태로 서술된 부분은 五行의 시원이 본래 방위 구분에서 형성되었음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념 아래 점차 사회 곳곳의 분야를 다섯 형태로 정리 배당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고, 동주시기에는 五行·五帝·五祀·五獸·五色·五味 등의 개념이 발생되었으며, 더욱이 철학적·도덕적 영역과 융화되어 사상·정치·경제·철학·천문·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적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3. '五行'의 의미 파생 과정 분석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주시기까지 다섯 개의 영역을 구분하여 영토적 관점 중심의 五方 자료가 대부분이었다면, 동주시기 이후의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에서는 사회 여러 분야를 다섯 형태로 구분하여 배당하려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전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주시기의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에 기록된 五行의 발전된 의미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五行의 기원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먼저, 출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五行에 대한 내용을 대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郭店<sup>17)</sup> 『五行』 1-4: 오행이란, '仁'이 내심에서 형성된 것을 '덕의 행위'라고 하고,……'義'가 내심에서 형성된 것을 '덕의 행위'라고 하고,……'禮'가 내심에서 형성된 것을 '덕의 행위'라고 하고,……'智'가 내심에서 형성된 것을 '덕의 행위'라고 하고,……'聖'이 내심에서 형성된 것을 '덕의 행위'라고 하고,……(五行: 仁{仁}型{形}於內胃{謂}之惠{德}之行,……義型{形}於內胃{謂}之惠{德}之行,……豐{禮}型{形}於內胃{謂}之惠{德}之行……[智形]於內胃{謂}之惠{德}之行,……聖型{形}於內胃{謂}之惠{德}之行……).

위 내용을 보면, 현재 익숙한 水·火·木·金·土와는 다른 형태의 仁·義·禮·智·聖이라는 다섯 방면의 인품 수양에 대한 단어를 '五行'으로 지칭하며 풀이 설명하였다. 이는 익숙하지 않은 독특한 분류법으로 동주시기 사람의 덕목과 심성, 인품에 대한 관점이 중시되기 시작하며 발생한 형태인 동시에 사회적 의미로 발전된 五行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말해 준다. 계속해서 전래문헌의 五行과 관련된 용례 또한 살펴보도록 한다.

『逸周書·小開武解』: “나의 선친 문왕께서는 삼극을 순중하고 몸소 바르게

17) 荊門市博物館, 『郭店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8년.

사방을 살피셨으며 오행을 따라 운용하였다.……오행은 첫째 흑색으로 수에 있고, 둘째 적색으로 화에 있고, 셋째 청색으로 목에 있고, 넷째 백색으로 금에 있고, 다섯째 황색으로 토에 있다(在我文考, 順明三極, 躬是四察, 循用五行, ……五行: 一黑位水, 二赤位火, 三蒼位木, 四白位金, 五黃位土).“

『管子·四時』: “동방을 星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봄이며, 그 기운은 바람이라고 한다. 바람은 木과 骨을 낳고, 그 덕은 기쁨으로 가득 차 만물을 시기에 맞게 나오게 한다. ……남방을 日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여름이며, 그 기운은 양이라고 한다. 양은 (오행의) 火와 氣를 낳는다. 그 덕은 은택을 베풀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중앙을 土라고 하는데, 토의 덕은 사시를 돕고, 바람과 비로 사시의 운행을 도우며, 토기를 조절하여 힘을 이롭게 한다. 토는 피부와 살을 낳는다. 그 덕은 화평하고 고르며, 中正하고 사사로움이 없어 참으로 사시를 돕는다. ……서방을 辰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가을이며, 그 기운은 陰이라고 한다. 음은 (오행의) 金과 생물의 껍질(甲)을 낳는다. 그 덕은 근심하고 슬퍼함, 고요하고 바름, 장엄하고 화순함, 거처함에 감히 방탕하지 않음이다. ……북방을 月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겨울이며, 그 기운은 추위라고 한다. 추위는 (오행의) 水와 생물의 血을 낳는다. 그 덕은 순박하고 청초함, 온량한 위세, 자세하고 세밀함이다(東方曰星, 其時曰春, 其氣曰風, 風生木與骨, 其德喜羸, 而發出節時, ……南方曰日, 其時曰夏, 其氣曰陽, 陽生火與氣, 其德施舍修樂 ……中央曰土, 土德實輔四時, 入出以風雨, 節土益力, 土生皮膚, 其德和平用均, 中正無私. 實輔四時, ……西方曰辰, 其時曰秋, 其氣曰陰, 陰生金與甲, 其德憂哀, 靜正, 嚴順, 居不敢淫佚 ……北方曰月, 其時曰冬, 其氣曰寒, 寒生水與血, 其德淳越溫怒周密).“

『左傳』 昭公29年: “그러므로 五行을 맡아 다스리는 관원이 있으니 이를 五官이라고 한다. 이 오관은 실제로 나란히 씨와 성을 받고, 작위를 받아 상공이 되었으며, (사후에는) 제사를 받는 귀한 신이 되어 사직과 오사의 제사되어 준봉을 받는다. 木正을 句芒이라고 하고, 火正을 祝融이라고 하고, 金正을 蓐收라고 하고, 水正을 玄冥이라고 하고, 土正을 后土라고 한다(故有五行之官, 是謂五官, 實列受氏姓, 封為上公, 祀為貴神, 社稷五祀, 是尊是奉, 木正曰句芒, 火正曰祝融, 金正曰蓐收, 水正曰玄冥, 土正曰后土). “

이상 예문을 통하여 殷商, 西周, 東周시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五行의 기본적인 체제와 제도 및 순환 체계가 상당 수준 정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管子·四時』의 내용에서 五方の 명칭과 특징을 설명하고, 水·火·木·金·土라는 다섯 요소와 함께 사계절의 성질을 풀이한 부분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을 다섯 형태로 정리 배당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더욱이 위 제시한 전래문헌의 내용과 유사한 형태로 서술된 출토 죽간 자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淸華簡<sup>18)</sup> 『筮法』의 내용을 보면 占筮의 원리와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 죽간에서 다섯 요소를 나열해 서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淸華簡 『筮法』: 동방은 목이다. 청색이다. 남방은 화다. 적색이다. 서방은 금이다. 백색이다. 북방은 수다. 흑색이다(東方也, 木也, 青色. [60] 南 [49] 方 [50] 也, [51] 火 [52] 也, [53] 赤 [50] 色 [51] 也. [52] 西方也, 金也, 白色. [42] 北 [49] 方 [50] 也 [51], 水 [52] 也, [53] 黑 [50] 色 [51] 也. [52]).

위에서 제시한 전래문헌과 출토문헌의 용례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방위를 중심으로 방위에 대표되는 관직·기운·물질·색깔 등을 배당하였다는 것이다. 단지, 청화간 내용의 특이한 부분으로 중앙에 대하여 언급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민대학 조용준은 淸華簡 『筮法』과 『周易·說卦』에서 확인할 수 있는 五行의 형태를 비교해 淸華簡 『筮法』에서 확인할 수 있는 卦位圖의 내용은 『周易』과 五行의 초기 단계 결합으로 여겼는데,<sup>19)</sup> 중앙이 언급되지 않은 청화간의 내용 또한 완전하지 않은 형태의 五行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검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 요소에 대한 허신의 『說文』<sup>20)</sup> 풀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水는, 고르다는 뜻이다. 北方의 五行이고, 여러 줄기의 물이 나란히 흐르고, 가운데에 미미한 양의 기운이 있는 것을 형상하였다(水, 準也. 北方之行, 象眾水並流, 中有微陽之氣也).

火는, 불이다. 南方의 五行이고, 불꽃을 내면서 타오른다. 상형자이다(火, 燬也. 南方之行, 炎而上. 象形).

木은, 내민다는 뜻이다. 땅을 뚫고 나서 자라나는 것으로 東方의 五行이다. 무로 구성되었고, 아래는 뿌리를 형상하였다(木, 冒也. 冒地而生, 東方之行).

18) 李學勤, 『淸華大學藏戰國竹簡(肆)』, 上海, 中西書局, 2013년.

19) 趙容俊, 「淸華簡所見的陰陽」, 『東洋古典研究』第74輯, 서울, 동양고전학회, 2019년, 87쪽.

20) 『說文』은 『說文解字』의 약칭이다. [漢]許慎 撰; [宋]徐鉉 校定,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63년.

从中，下象其根).

금은, 오색의 금속을 의미한다. 그중에서 황색이 으뜸으로 오래 묻어 두어도 녹이 생기지 않고, 백 번을 제련해도 가벼워지지 않으며 마음대로 바꾸어도 어긋나지 않는다. 西方의 五行이다. 흙에서 생겨나므로 토로 구성되었다. 좌우의 점은 금이 흙속에 있는 모양을 형상하였다. 今은 발음을 나타낸다(金, 五色金也. 黃爲之長, 久鍊不生衣, 百鍊不輕, 从革不違. 西方之行, 生於土, 从土. 左右注, 象金在土中形, 今聲).

토는, 땅이 만물을 내어 성장시키는 것이다. 二은 땅 위와 땅 속을 형상하였다. 丨은 만물이 나오는 형태이다(土, 地之吐生物者也. 二象地之上, 地之中. 丨物出形也).

이상 언급한 『說文』 기록 또한 五行과 관련된 다른 문헌 자료와 유사한 방식으로 五方과 五材를 함께 묶어 풀이하였고, 이는 水·火·木·金·土라는 요소가 다섯 방위를 각각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자연의 이치와 사회 구조를 다섯 형태로 정교히 분류하여 귀납한 문헌으로 『呂氏春秋』 十二紀와 『淮南子·天文訓』의 내용을 언급할 수 있다. 『呂氏春秋』 十二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음이 즐겁지 않을 때에는 오음이 앞에서 연주되어도 들리지 않는다(心不樂, 五音在前弗聽).', '마음이 즐겁지 않을 때에는 오색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目之情欲色, 心弗樂, 五色在前弗視).', '마음이 즐겁지 않을 때에는 오미가 눈앞에 있어도 먹지 않는다(心弗樂, 五味在前弗食).', '라고 하여 五音은 宮·商·角·徵·羽, 五色은 青·赤·黃·白·黑, 五味는 단 것·신 것·매운 것·쓴 것·짠 것 등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五行 구조에 배당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四時를 다섯 형태로 나누고 모든 제도와 만사 만물을 이 곳에 배당하는 형식으로 상세히 구분하였다. 『呂氏春秋』 十二紀와 『淮南子·天文訓』의 五行과 관련된 내용을 표로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呂氏春秋』 十二紀의 오행 분류표

오행	목	화	토	금	수
계절	春	夏	長夏	秋	冬
계절의 첫 달	孟春	孟夏		夢秋	孟冬



해의 위치	營室	畢		翼	尾
해의 저녁 위치	參의 중앙	翼의 중앙		斗의 중앙	危의 중앙
해의 아침 위치	尾의 중앙	婺女의 중앙		畢의 중앙	七星의 중앙
천간	甲乙	丙丁	戊己	庚辛	壬癸
帝	太皞	炎帝	黃帝	少皞	顓頊
神	句芒	祝融	后土	蓐收	玄冥
蟲	鱗	羽	倮	毛	介
音	角	徵	宮	商	羽
律	太簇	仲呂	黃鐘의 宮	夷則	應鐘
숫자	8	7	5	9	6
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냄새	누린내	탄내	향내	비린내	썩은내
제사	戶	灶	中霤	門	行
제물	비장	허과	염통	간	콩팥
천자의 거처	青陽 좌측(동쪽)	明堂 좌측(동쪽)	太廟의 太室	總章의 왼쪽	玄堂의 왼쪽
천자의 수레	鸞輅	朱輅	大輅	戎路	玄輅
천자의 수레 말	蒼龍	赤騮	黃駟	白駱	鐵驪
천자의 깃발	푸른 깃발	붉은 깃발	누런 깃발	흰 깃발	검은 깃발
천자의 옷	푸른색 옷	붉은색 옷	누런 옷	흰 옷	검은 옷
천자의 패옥	청옥	적옥	황옥	백옥	흑옥
천자의 주식	보리밥, 양고기	콩밥, 닭고기		삼[麻], 개고기	기장, 돼지고기
천자의 그릇	통풍이 잘 되는 그릇	높으면서 큰 그릇		모나고 깊은 그릇	항아리 형태의 입구가 작은 그릇

【표 2】 『淮南子·天文訓』

계절	春	夏		秋	冬
방위	동방	남방	중앙	서방	북방
오행	木	火	土	金	水
帝	太皞	炎帝	皇帝	少昊	顓頊
보좌	句芒	朱明	後土	蓐收	玄冥
神	歲星	熒惑	鎮星	太白	辰星
五獸	蒼龍	朱鳥	黃龍	白虎	玄武
音	角	徵	宮	商	羽
日	甲乙	丙丁	戊己	庚辛	壬癸

이상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과 인간계, 자연계 등의 모든 사물을 다섯 형태로 배당하려는 매우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五行과 사시 운행의 관계를 완벽하게 맞물릴 수 없는 한계 또한 드러내고 있다. 언급할 만한 부분으로 동주시기 이전 서주시기 청동기 금문에서 오색을 이용한 듯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同籀(『集成』4271)의 명문을 보면, '虜水로부터 동쪽으로는 黃河에 이르고, 그 북쪽으로는 玄水에 이른다(自虜東至于河。𠄎{厥}逆{朔}致{至}于玄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玄水の 玄은 검은색을 의미하고, 玄水가 북방에 위치한다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서주시기에 사물을 다섯 형태의 방위로 배당하는 발전된 방식을 운용하였고, 이에 따라 색깔을 이용하여 영토를 표시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용례의 부족으로 새로운 출토 자료의 발굴과 심도 있는 연구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갑골문과 금문, 동주시기 문헌 자료에 근거해 정리하면, 五行은 최초 중앙과 사방을 의미하는 지리적인 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채택된 방식으로 최초 동방·서방·남방·북방·중앙이라는 방위를 구분하는 역할이 중심을

이루다가 그 방위에 대표되고 상징되는 재료·색깔·동물·신·관직·德 등이 배당되었고, 더욱이 세상 만물과 도덕·정신·철학·천문 등의 범위까지 모두 다섯 형태로 배당하려는 발전된 형식이 발생되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은상 시기는 만물유생론을 믿는 시기로 水·火·木·金·土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뤄 만물을 기원한다는 사상은 재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左傳』襄公27년에서 '天이 五材를 내고, 백성들은 아울러 사용하니(天生五材, 民並用之)'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五材의 金의 경우 은상시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용품이 될 수 없어 당시 사회 환경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 하다는 것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21)</sup> 다시 말하면, 서주 이전에는 水·火·木·金·土라는 五材와 관련된 내용은 살펴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서주 이전과 이후에 사용된 五行 개념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농경과 전쟁, 제사가 중시되었던 고대시기에 중심과 사방이라는 영토적 관념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방위·영토·영역을 구분하는 五方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萬象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五材를 기반한 五行 또한 형성되어 각 방위에 배당되었으며, 세상 만물과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신·철학·도덕적 측면의 모든 영역까지 다섯 형태로 구분해 배당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첨언하면, 앞 절에서 제시한 갑골문 (『合』30391.2)의 용례 '帝의 五臣(帝五臣正)'을 『左傳』昭公17年の '오치는 다섯 가지 공예를 맡은 장관(五雉為五工正)'이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五方을 담당하는 관직명을 의미한다고 보았듯이 앞서 제시되었던 『左傳』昭公29年에서 蔡墨이 魏獻子の 물음에 응답할 때 확인할 수 있는 '木正, 火正, 金正, 水正, 土正' 또한 각 방위에 배당된 관직을 상징하여 설명한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새클러(Sackler) 미술관에 소장된 전국시기 子彈庫 楚帛書 파편에서 楚나라 月名을 기록한 同心圓으로 구성된 그림 아래 '木에 거주하면 어떠한가(居木如何)', '水에 거주하면 어떠한가(居水如何)', '土에 거주하면 어떠한가(居土如何)'<sup>22)</sup>와 함께 각각 색깔·물품을 조합한 사실에 근거해 보아도 五材를 방위에 배당하였고, 五材를 이용하여 방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리적 영역을 구분할 때 五材가

21) 龐朴, 「陰陽五行探源」, 『中國社會科學』第3期,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1984년, 80쪽.

22) 李零, 「讀幾種出土發現的選擇類古書」, 『簡帛研究』(第三輯),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98년, 97쪽.

동·서·남·북·중이라는 방위사를 대신해 구분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五材를 이용한 五行 즉, 水·火·木·金·土라는 다섯 요소가 끊임없이 순환·반복하며 인간계와 자연계의 흥망을 주재한다는 오행설은 구성 요소들의 갖고 있는 물질적 속성을 이용한 후대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五行의 원시 형태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진다. 殷商시기 갑골문과 西周 금문 자료의 종합적인 분석에 근거해 보면, 五行은 五方이라는 공간 방위를 중시하는 영토적 관점의 형태가 주로 나타나고, 동주시기로 넘어오면서 비로소 영토적 관점에 사시를 접목하여 인간계와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다섯 형태로 정리 배당하여 설명하게 된 동시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활용 범위가 추상적인 만물 상생론이라는 철학적이고, 우주적인 해석으로 변천이 이뤄진 듯하다.

#### 4. 결론

先秦 시기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의 기록을 통하여 五行의 초기 형태와 함께 萬象을 다섯 가지로 구분 배당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풀이한 형태를 살펴 보았다. 통상적으로 五行은 水·火·木·金·土라는 다섯 요소가 체계적으로 서로 맞물려 순환·반복하며 우주 만물의 상호 관계 이치·변화·원리를 풀이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殷商시기 동·서·남·북·중이라는 五行의 초기 형태로 보이는 공간적이고 영토적 관점의 五方이 중심되어 방위가 구분되었고, 각 방위를 중심으로 五種祭祀·五臣 등이 조직되는 형태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점차 후대로 오며 이를 바탕으로 四時와 접목하여 자연의 질서를 설명하였으며, 각각의 방위에 만물을 배당하여 풀이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동주시기로 넘어오면서 철학적·도덕적 형태로 발전되어 특정 정보를 제공하려는 五行이 전성케 되었고, 만물 상생론과 같은 사상적 의미가 형성되었으며, 五行의 배당 및 순환 또한 더욱 체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五行의 다양한 의미 확대는 한편으로 五行 본연의 의미가 모호해지는 과정이었다고 사료된다.

고대 문헌 자료의 부족으로 五行의 기원 탐색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지리적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 五行의 원시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갑골문, 금문

에서는 대부분 영토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된 부분과 관자, 회남자, 여씨 춘추 등의 전래문헌에서 동·서·남·북·중이라는 각 방위를 토대로 만물을 체계적으로 배당한 형태의 자료가 최초 영토적 관점에서 五行이 기인하였다는 입증 증거가 된다. 이 밖에도 갑골 복사와 금문 자료에서 水·火·木·金·土라는 五材를 기반한 五行을 살펴볼 수 없는 부분 또한 이상 논리의 간과할 수 없는 보충 자료로 판단되고, 이에 서주 이전 시기와 이후의 五行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달랐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정리하면, 농업과 제사, 전쟁을 중시하는 殷商시기에 五行은 최초 동·서·남·북·중이라는 공간적 구분을 위해 형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五種祭祀, 五臣 등의 의미가 조직되었으며, 차츰 체계적으로 萬象을 다섯으로 구성하는 발전 변화된 형태로 파생된 듯하다.

마지막으로 본고 논증 과정에서 설득력이 미흡한 부분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기대하며, 추후 연구를 통해 다시 보충하도록 한다.

## [參考文獻]

- 陳夢家,『西周銅器斷代』,北京,中華書局,2004.
- 陳佩芬,『夏商周青銅器研究』,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4.
- [日]池田知久 著,王啓發 譯,『馬王堆漢墓帛書五行研究』,北京,線裝書局,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5.
- 董蓮池,『新金文編』,北京,作家出版社,2011.
- 董作賓,『殷墟文字甲編』,台北,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1948.
- 董作賓,『殷墟文字乙編』,台北,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1948.
- [宋]范曄 撰,[唐]李賢 等注,『後漢書』,北京,中華書局,1965.
- 方述鑫,林小安,常正光,彭裕商編著,『甲骨金文字典』,成都,巴蜀書社,1993.
- 高明·涂白奎,『古文字類編(增訂本)』,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8.
- 郭沫若主編,『甲骨文合集』,北京,中華書局,1982.
- 洪家義,『金文選注釋』,南京,江蘇教育出版社,1988.
- 黃德寬主編,『古文字譜系書證(全四冊)』,北京,商務印書館,2007.
- 黃暉,『論衡校釋』(全四冊),北京,中華書局,1990.
- 黃懷信,『逸周書校補注譯』,西安,西北大學出版社,1996.
- 黃天樹,『說殷墟甲骨文中的方位詞』,『黃天樹古文字論集』,北京,學苑出版社,2006.
- 胡厚宣,『論五方觀念及『中國』稱謂之起源』,『甲骨學商史論叢初集(上)』,濟南,齊魯大學國學研究所,1944.
- 胡厚宣,『殷卜辭中的上帝和王帝(上)』,『歷史研究』第9期,北京,中國社會科學院,1959.
- 胡厚宣,『甲骨文合集釋文』,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9.
- 胡厚宣,胡振宇,『殷商史』,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3.
- [漢]賈誼撰;閻振益,鍾夏校注,『新書校注』,北京,中華書局,2000.
- 荊門市博物館,『郭店楚墓竹簡』,北京,文物出版社,1998.
- 김경일,『殷代 갑골문을 통한 '五行'의 문화적 기원 연구』,『中語中文學』第38輯,서울,한국중어중문학회,2006.
- 김경일,『殷代 '出組' 5種祭祀 관련 갑골문 텍스트를 통한 유교 조상숭배 문화의 기원 연구』,『中語中文學』第41輯,서울,한국중어중문학회,2007.
- 李立新,『甲骨文中所見祭名研究』,北京,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博士學位論文,2003.
- 李零,『讀幾種出土發現的選擇類古書』,『簡帛研究』(第三輯),南寧,廣西教育出版社,1998.
- 李學勤,『清華大學藏戰國竹簡(肆)』,上海,中西書局,2013.
- [清]梁啓超,『梁啓超全集』,北京,北京出版社,1999.
- 林義光,『文源』,上海,中西書局,2012.
- 林澧,『古文字研究簡論』,吉林,吉林大學出版社,1986.
- 劉安 編者,安吉煥 編譯,『淮南子』,서울,명문당,2013.
- 劉釗等編纂,『新甲骨文編』,福州,福建人民出版社,2014.

-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三』, 北京, 文物出版社, 1988.
- 龐朴, 「陰陽五行探源」, 『中國社會科學』第3期,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1984.
- 彭華, 『陰陽五行研究(先秦篇)』, 上海,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
- 秦永龍, 『西周金文選注』, 北京, 師範大學出版社, 1992.
- 裘錫圭, 『文字學概要(修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3.
- 上海古籍出版社編, 『十三經注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 [清]孫星衍撰 陳抗, 盛冬鈴點校, 『尚書今古文注疏』, 北京, 中華書局, 1986.
- 唐蘭, 『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 北京, 中華書局, 1986.
- 王輝, 『商周金文』, 北京, 文物出版社, 2006.
- 王進鋒, 「卜辭“五臣”與《史記·封禪書》“九臣”解」, 『考古與文物』第6期, 西安, 陝西省考古研究所, 2012.
- [漢]許慎 撰; [宋]徐鉉 校定,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63.
- [漢]許慎 撰; [清]段玉裁注,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 徐中舒, 『甲骨文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89.
- 양동숙, 『갑골문자전 갑골문해독』, 서울, 월간 서예문인화, 2007.
- 張玉清, 「試論五行起源於上古立杆測影特殊點位的軌迹周期」, 『漢字文化』第16期, 北京, 北京国际汉字研究会, 2019.
- 趙容俊, 「清華簡所見的陰陽」, 『東洋古典研究』第74輯, 서울, 동양고전학회, 2019.
- 周法高, 『金文詁林』, 香港, 香港中文大學, 1975.
- 朱鳳瀚, 「再讀殷墟卜辭中的‘衆」」, 『古文字與古代史』(第二輯), 台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09.





# 5 출토문헌 자료에 보이는 '服'과 '五服'에 관한 내용

- 土山盤 명문의 '服'과 西周 시기 '服制'의 '名'과 '實'

이유표(동북아역사재단)

## 목 차

1. 들어가며
2. 土山盤 명문의 내용과 '服'
3. 서주시기 '服制'의 '名'과 '實'
4. 나오며

## 1. 들어가며

土山盤(『銘圖』 14536)<sup>1)</sup>은 中國國家博物館에 소장된 청동기로, 횡단면이 둥근 반이다. 높이는 11.5cm, 圈足の 높이는 4cm, 직경은 38cm다. 口沿部는 방형을 띠면서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기물 복부의 외벽은 둥글게 아래로 수렴되는 형식이다. 기물을 받치고 있는 다리는 圈足으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종단면을 보면 밑변이 긴 사다리꼴 모양을 띠고 있다. 그리고 기물 양 옆으로 기물의 '귀'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파손되었다. 기물 복부의 외벽에는 S자 형태의 夔龍紋이 좌우 대칭적으로 장식되어 있고, 圈足 외벽에는 目紋과 삼각형 勾雲紋이 장식되어 있다.<sup>2)</sup>

1) 吳鎮烽 編, 『商周青銅器銘文暨圖像集成』, 上海古籍出版社, 2012년(본문은 『銘圖』로 약칭).

2) 朱鳳瀚, 「土山盤銘文初釋」, 『中國歷史文物』 2002-1.



土山盤의 내벽에는 8행 97자(중문 1자 포함)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그림 2 참조). 이 명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학계의 활발한 토론을 일으켰다.

먼저, 이 명문이 학계에 소개된 2002년은 ‘夏商周斷代工程’이 마무리된 시점으로, 당시 西周 연대학 연구가 정점에 달한 시기였다. 본 명문에는 “왕 16년 9월 既生霸 甲申”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는데, 이 연대가 어느 왕에 귀속되느냐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본 명문을 학계에 소개한 朱鳳瀚은 夏商周斷代工程의 성과<sup>4)</sup>를 기초로 본 명문의 연대를 共王 16년(기원전 907년)으로 비정하였다.<sup>5)</sup> 이는 李學勤의 검증을 거쳐, 많은 학자들이 이 설을 따랐다.<sup>6)</sup> 그러나 朱鳳瀚은 그후 師酉鼎(『銘圖』 2475), 覲公簋(『銘圖』 4954), 吮簋(『銘圖』 5386), 斲簋(『銘圖』 5295) 등 날짜가 기록된 새로운 기물들이 공개되면서, 기존 夏商周斷代工程의 성과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각 청동 명문의 연대를 새롭게 연구하여, 土山盤의 연대를 懿王 16년(기원전 892년)으로 수정하였다.<sup>7)</sup> 朱鳳瀚 외에도, 劉啓益과 張聞玉 등도 또한 土山盤의 연대를 懿王 16년으로 비정하였지만, 그 연대는 각각 기원전 929년<sup>8)</sup>, 기원전 901년<sup>9)</sup>으로 다르다. 비록 각 학자들이 내린

3) 朱鳳瀚, 「土山盤銘文初釋」, 『中國歷史文物』 2002-1, 5쪽, 圖二·圖三.

4) 夏商周斷代工程은 기원전 922년을 共王 원년으로 설정하였다(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 編, 『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簡本), 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北京公司, 2000년).

5) 朱鳳瀚, 「土山盤銘文初釋」, 『中國歷史文物』 2002-1.


6) 李學勤, 「對“夏商周斷代工程”西周曆譜的兩次考驗」,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2002-5; 「論土山盤——西周王朝干預諸侯政事一例」, 『文物中的古文明』, 商務印書館, 2008년판.

7) 朱鳳瀚, 「關於西周金文曆日的新資料」, 『故宮博物院院刊』 2014-6.

8) 劉啓益, 「西周懿王時期紀年銅器續記」, 『中原文物』 2009-5.

절대적인 연대는 서로 다르지만, 土山盤 명문에 보이는 ‘周新宮’이라는 장소가 서주 중기 명문에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산반의 상대적 연대를 서주 중기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한다.

다음으로 본 명문에 보이는 ‘服’자 또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徂造蠶荆尹服眾大盧服履服六蠶服葺灰蠶尹”라는 구절 속에, ‘服’자가 모두 네 차례 보이는데, 이 ‘服’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제각기 많은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의견은 ‘服’자를 동사로 보느냐, 아니면 명사로 보느냐의 두 가지로 귀납시킬 수 있다. 먼저 ‘동사’로 보는 학자들은 ‘服’을 ‘降服’, ‘服從’ 등으로 해석하며, ‘服’자 뒤에 나오는 명사를 주왕실에 ‘降服’ 혹은 ‘服從’한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고,<sup>10)</sup> ‘服’을 명사로 보는 학자들은 ‘服’자 앞에 나오는 정치체의 주왕실에 대한 ‘職事’ 혹은 주왕실에 바쳐야 할 ‘貢賦’의 종류로 파악하기도 한다.<sup>11)</sup> 특이한 것은 朱鳳瀚의 해석으로, 朱鳳瀚은 ‘服’을 ‘職事’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를 동사로 여겨 土山이라는 인물의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였다.<sup>12)</sup>

	<p>             佳王十又六年九月即生霸甲              申王才周新宮王各大室即立              土山入門立中廷北卿王乎乍冊尹              冊令山曰于入葺灰徂造蠶荆  <u>尹服眾大盧服履服六蠶</u>  <u>服葺灰蠶尹</u>實貝金山捧頤首              畝對甄天子=不顯休用乍文              考釐中寶隣般盃山廿萬年永用         </p>
사산반 명문	사산반 명문 석문

9) 張聞玉, 「關於土山盤」, 『貴州社會科學』 2003-2.  
 10) 李學勤, 「論土山盤——西周王朝干預諸侯政事一例」, 『文物中的古文明』, 商務印書館, 2008년판; 黃錫全, 「土山盤銘文別議」, 『中原歷史文物』 2003-2 등.  
 11) 董珊, 「談土山盤銘文的“服”字義」, 『故宮博物院院刊』 2004-1; 晁福林, 「從土山盤看周代“服”制」, 『中國歷史文物』 2004-6; 陳英傑, 「土山盤銘文再考」, 『中國歷史文物』 2004-6; 黃愛梅, 「土山盤銘補義」, 『中國歷史文物』 2006-6 등.  
 12) 朱鳳瀚, 「土山盤銘文初釋」, 『中國歷史文物』 2002-1.

흥미로운 것은 ‘服’을 명사로 여긴 여러 학자들이 ‘服’을 이른바 ‘服制’와 연관 지어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陳英傑은 士山盤 명문의 ‘服’자를 王畿 이외의 지역을 가리키는 ‘服’으로 보았고,<sup>13)</sup> 晁福林과 董珊 등도 ‘服’자를 주대의 ‘服制’와 유관한 것으로 인식했다.<sup>14)</sup> ‘服制’는 흔히 이른바 ‘五服’(『周禮』의 ‘九服’) 제도라 불리기도 하는데, 바로 주나라 관념 속의 天下를 구조화한 것으로 주왕의 도읍을 중심으로, 그 외의 지역을 각 500리마다 ‘甸服’, ‘侯服’, ‘賓服’, ‘要服’, ‘荒服’으로 나눈 것으로, 각 ‘服’마다 주왕에 대한 직무와 공납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근현대 疑古思潮와 마르크스사학의 영향으로, 이러한 ‘服制’는 春秋戰國時期的 儒家가 날조한 것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sup>15)</sup> 따라서 역사학적으로 ‘服制’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다 士山盤 명문의 공간으로 인해, 관련 논의가 한바탕 활발히 진행된 것이다.

그렇다면 士山盤 명문의 ‘服’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西周 시기에 ‘服制’가 있었을까? 필자는 먼저 士山盤 명문의 考釋을 진행한 후,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2. 士山盤 명문의 내용과 ‘服’

士山盤 명문은 내용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명문에 기록된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를 기록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周王의 士山에 대한 冊命과 士山の 활동을 기록한 부분이며, 세 번째 부분은 ‘嘏辭’ 부분으로, 본 기물의 헌정대상을 기록한 부분이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1) 冊命의 시공간적 배경: 隹(唯)王十又六年九月即(既)生霸甲申, 王才(在)周新宮, 王各(格)大(太)室, 即立(位), 士山入門, 立(中)廷, 北(嚮)嚮。

왕 16년 9월 既生霸 甲申일, 왕이 周新宮에 있었다. 왕이 太室에 이르러 자리로 나아가니, 士山이 문을 통해 들어와 뜰 가운데 서서 북쪽을 향하였다.

13) 陳英傑, 「士山盤銘文再考」, 『中國歷史文物』 2004-6, 13쪽

14) 晁福林, 「從士山盤看周代“服”制」, 『中國歷史文物』 2004-6, 5-7쪽; 董珊, 「談士山盤銘文的“服”字義」, 『故宮博物院院刊』 2004-1.

15) 郭沫若, 『中國古代社會研究』, 『郭沫若全集』(歷史篇 第1卷), 人民出版社, 1982년판, 262쪽.

‘既生霸’, 王國維의 四分說에 의하면, 既生霸는 음력 초7-8일에서 보름까지의 기간으로, 달의 모양이 상현에서 보름의 형태로 변해가는 기간을 말한다.<sup>16)</sup>

이 부분에는 본 명문의 상대적 연대를 짐작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서가 보인다. 첫 번째는 冊命儀禮가 거행된 ‘周新宮’으로, 師遽簋蓋(『명도』 5236), 七年趙曹鼎(『명도』 2433), 十五年趙曹鼎(『명도』 2434), 師湯父鼎(『명도』 2431) 등의 명문에 보인다. 이 기물은 모두 서주 중기의 후반, 곧 共王時期에서 孝王時期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명문의 연대가 서주 중기 후반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7)</sup> 두 번째는 土山이 周王을 알현하러 들어갈 때 ‘右者’가 보이지 않는 점이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서주는 共王時期를 거치면서 책명의례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冊命者’와 ‘被冊命者’ 사이에 ‘右者’가 등장한다는 점이다.<sup>18)</sup> 이러한 면에서, 본 명문에 ‘右者’가 보이지 않는 점을 봤을 때, 土山盤의 연대는 共王時期 혹은 그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 두 가지 단서를 종합하여, 본 명문의 연대를 共王 16년으로 파악한다.

(2) 周王의 冊命과 土山의 使行: 王乎(呼)乍(作)冊尹冊令(命)山, 曰, “于入萁侯(侯).” 衞(遂)造(懲)蠶, 荆(刑)尹(方), 服(服), 眾大盧服(服), 履服(服), 六蠶(孳)服(服). 萁侯(侯)·蠶·尹(方)賓貝·金.

王은 作冊尹을 불러 山을 冊命하게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萁侯를 <나라로> 들여라.” <土山은> 이에 都를 징치하고 方을 징벌하여 <각각의> 직무, 곧 藉田의 직무, 토지 측량의 직무, 六穀 재배의 직무를 살폈다. 萁侯와 郟, 方이 賓禮를 베풀어 <土山에게> 貝와 구리를 증정하였다.

(2-1) 周王의 冊命: 王乎(呼)乍(作)冊尹冊令(命)山, 曰, “于入萁侯(侯).”

‘作冊尹’은 師晨鼎(『銘圖』 2481), 走簋(『銘圖』 5329), 免簋(『銘圖』 5268) 등에 보이는 內史의 長으로, 西周 중기 많은 冊命儀禮에 참여하여

16) 西周 金文에는 ‘初吉’, ‘既生霸’, ‘既望’, ‘既死霸’ 등의 月相이 자주 보이는데, 王國維는 이를 한 달을 구성하는 각각의 날짜 범위로 여겨, ‘初吉’은 음력 초하루에서 초7-8일까지, ‘既生霸’는 ‘初吉’ 이후 보름까지, ‘既望’은 보름에서 음력 22-23일까지, ‘既死霸’ 이후에서 말일까지를 ‘既死霸’로 보았다(王國維, 「生霸死霸考」, 『觀堂集林(附別集)』, 中華書局, 1959년판, 19-26쪽).

17) 朱鳳瀚, 「土山盤銘文初釋」, 『中國歷史文物』 2002-1; 李學勤, 「對“夏商周斷代工程”西周曆譜的兩次考驗」,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2002-5.

18) 陳漢平, 『西周冊命制度研究』, 上海, 學林出版社, 1986년.

王의 명을 宣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sup>19)</sup>

‘于入萁侯(侯)’, 이는 周王의 土山에 대한 冊命辭다. ‘于’는 어기사로,<sup>20)</sup> 『尚書』「堯典」의 “아! 말은 잘하나 행동은 다르고, 길으로는 공손하나 속으로는 하늘을 가볍게 보고 있소(吁! 靜言庸違, 象恭滔天.)”와 “아! 안되오! 명을 어기어 일을 그르치리다(吁! 咈哉! 方命圯族).” 등에서 어기사로 쓰였다.<sup>21)</sup> ‘入’, 朱鳳瀚은 ‘于’와 ‘入’을 모두 동사로 파악하여, ‘萁侯’의 영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했다.<sup>22)</sup> 그러나 李學勤은 『春秋左氏傳』에 보이는 여러 사례를 근거로 ‘入’을 ‘納’으로 考釋했다. 예컨대, 『春秋左氏傳』 僖公 9년의 “9월, 晉獻公이 죽자, 里克과 丕鄭이 문공을 들이고자[納] 하였다.”<sup>23)</sup> 또 成公 17년의 “<齊 나라의> 高氏와 鮑氏가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고[不納] 公子角을 세우고자 하였다.”<sup>24)</sup>의 ‘納’은 곧 어떠한 연고로 인해 임금이 부재한 나라에 임금을 들여보내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李學勤은 이를 근거로 ‘入’을 ‘納’으로 해석하여, 周王이 土山을 시켜 萁侯를 그 나라에 들여보내 임금으로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였다.<sup>25)</sup> 필자도 李學勤의 의견에 동의한다. ‘萁侯’는 萁侯簋 명문(『銘圖』 4346)에 보인다. 그 지리적 위치에 대해, 朱鳳瀚은 지금의 陝西省 商洛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파악했는데, 학계에 큰 이견은 없다.

## (2-2) 사산의 사형 내용: 衿(遂)造(懲)蠶, 荆(刑)尹(方), 服(服), 眾大盧服(服), 履服(服), 六纛(孳)服(服).

이 부분의 끊어 읽기에 대해, 학자들은 제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 吳鎮烽 編, 『金文人名彙編(修訂本)』, 中華書局, 2006년, 150쪽.

20) 朱鳳瀚 등은 ‘于’를 동사로 이해하여 ‘가다[往]’고 풀이하였다(朱鳳瀚, 「土山盤銘文初釋」, 『中國歷史文物』 2002-1).

21) 그러나 陳英傑은 보다 세밀하게 논증하여, 본 명문의 ‘于’는 『尚書』의 ‘于’와 용법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오히려 宜侯矢簋(『銘圖』 5373)의 ‘繇’와 용법적으로 더 비슷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陳英傑, 「土山盤銘文再考」, 『中國歷史文物』 2004-6, 12쪽).

22) 朱鳳瀚, 「土山盤銘文初釋」, 『中國歷史文物』 2002-1

23) 『春秋左傳正義』 권13, 阮元刻『十三經注疏』本, 北京, 中華書局, 1980년판, 1800쪽, “九月, 晉獻公卒, 里克·丕鄭欲納文公.”

24) 『春秋左傳正義』 권28, 1921쪽, “高·鮑將不納君, 而立公子角.”

25) 李學勤, 「論土山盤——西周王朝干預諸侯政事一例」, 『文物中的古文明』, 商務印書館, 2008년판.

학자	석문
朱鳳瀚	𡗗(出)造蠶·荆(荊)𡗗, 服眾大盧, 服履, 服六孳, 服萁侯·蠶·𡗗賓貝·金
黃錫全	𡗗(出)徵(懲)蠶(都)·荆(荊)·方, 服眾大盧, 服履, 服六孳, 服萁(苜)侯·蠶(都)·方, 賓貝·金.
李學勤	𡗗(遂)徵(懲)·蠶(都)·荆方, 服, 眾(暨)蔡盧, 服, 履, 服, 六蠻, 服. 萁侯·蠶(都)·方賓貝·金
陳英傑	𡗗徵(懲)蠶(都)·荆(荊)·𡗗服·眾大盧服·履服·六孳(子)服. 萁(苜)侯·蠶(都)·方賓貝·金.
晁福林	出, 徵(懲)蠶(都)·荆(荊)·方服, 暨大藉服, 履服, 六孳服. 中侯·都·方賓貝·金.
黃愛梅	出, 造(徵)蠶·荆(荊)方服, 眾大盧服·履服·六孳服. 萁侯·蠶方賓貝·金

이처럼 각 학자들의 의견이 다른 것은, 필자가 생각했을 때, ‘服’자와 ‘眾’자에 대한 이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구절에 대한 구체적인 석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학자들의 ‘복’과 ‘眾’에 대한 인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朱鳳瀚은 ‘服’을 동사로 파악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 ‘服’의 주체를 ‘土山’으로 파악하고, 周王이 土山을 시켜 萁侯의 영지를 거쳐서 都과 方을 징치하고, ‘大盧’, ‘履’, ‘六孳’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眾’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석은 하지 않았다.<sup>26)</sup>

黃錫全도 ‘服’을 동사로 파악하고, ‘복종하다’로 해석하였다. 그는 土山이 周王의 명을 받아 萁侯에게로 가서, 都, 荊, 方을 징치하자, ‘大盧’, ‘履’, ‘六孳’ 등이 그 威名을 듣고 와서 복종했다는 것이다. 黃錫全도 ‘眾’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석하지 않았으나, 문맥을 보면 미칠 ‘及’자로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sup>27)</sup>

李學勤 또한 ‘服’을 동사로 파악하고, ‘복종하다’로 해석하였으나, 죄를 인정하고[服罪] 따랐다는 맥락에서 黃錫全의 해석과는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李學勤도 ‘眾’에 대해 별도의 고석을 하지 않았지만, 앞 구절과 뒷 구절을 연결해 주는 ‘連辭’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sup>28)</sup>

陳英傑은 ‘服’을 명사로 파악하고, 문헌에 보이는 ‘采服’의 ‘服’, 곧 王畿 이외의 지역을 가리키는 용법, 곧 ‘服制’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했다. ‘眾’은

26) 朱鳳瀚, 「土山盤銘文初釋」, 『中國歷史文物』 2002-1.

27) 黃錫全, 「土山盤銘文別議」, 『中原歷史文物』 2003-2.

28) 李學勤, 「論土山盤——西周王朝干預諸侯政事一例」, 『文物中的古文明』, 商務印書館, 2008년판.

‘及’으로 해석했다.<sup>29)</sup>

晁福林 또한 陳英傑과 마찬가지로 ‘服’을 ‘服制’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奠侯’를 방백으로 인식, 주변의 郟, 荊, 方 등의 나라를 관리하는 직무를 담당한 것으로 여겼다. 그의 해석대로 보면, 周王은 士山을 명하여 奠侯를 독촉하여 郟, 荊, 方 등의 方國을 관리하고, 이들의 ‘大盧’, ‘履’, ‘六孳’를 감독하게 한 것이다.<sup>30)</sup>

黃愛梅는 ‘服’을 ‘職事’로 파악하고, ‘眾’을 ‘卽’으로 해석하여, 앞 구절과 뒷 구절을 ‘同位關係’로 연결해 주는 용법으로 파악했다. 黃愛梅의 해석대로 보면, 앞 구절의 ‘郟荊方服’이 곧 뒷 구절의 ‘大盧服, 履服, 六孳服’을 의미하는 것이다.<sup>31)</sup>

이러한 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誥’, 李學勤은 周王의 冊命과 士山의 使行을 연결하는 용법으로 파악하여, ‘遂’로 考釋하였는데,<sup>32)</sup> 본문도 이를 따른다. ‘郟’과 ‘方’에 대해서는 대체로 나라 이름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刑’에 대해서는 ‘荊楚’의 ‘荊’으로 해석하기도 하고,<sup>33)</sup> ‘형벌’, ‘肉刑’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34)</sup> ‘荊’을 명사로 보아 ‘荊楚’로 해석해도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2-3) 부분에서 ‘奠侯’와 ‘郟’, ‘方’이 士山에게 賓禮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과 연관 지어 보면, 賓禮 부분에서 ‘刑’이 빠져있기 때문에, 使行 부분에서도 ‘刑’을 나라로 파악하는 것은 앞뒤 문맥상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본문은 이를 동사로 해석하여, 朱鳳瀚과 李學勤을 따라 ‘징벌’ 혹은 ‘육형’으로 파악한다. ‘造蓋, 刑方’의 ‘造’에 대해서는 ‘懲治하다’,<sup>35)</sup> ‘徵收하다’,<sup>36)</sup> ‘警戒하다’<sup>37)</sup> 등 많은

29) 陳英傑, 「士山盤銘文再考」, 『中國歷史文物』 2004-6.

30) 晁福林, 「從士山盤看周代“服”制」, 『中國歷史文物』 2004-6.

31) 黃愛梅, 「士山盤銘補義」, 『中國歷史文物』 2006-6.

32) 朱鳳瀚은 ‘동사’로 파악하여 ‘出’로 고석하였다(朱鳳瀚, 「士山盤銘文初釋」, 『中國歷史文物』 2002-1), 李學勤은 앞의 ‘于入奠侯’와 다음 구절을 연결해 주는 용법으로 파악하여 ‘遂’로 고석하였다(李學勤, 「論士山盤——西周王朝干預諸侯政事一例」, 『文物中的古文明』, 商務印書館, 2008년판).

33) 黃錫全, 「士山盤銘文別議」, 『中原歷史文物』 2003-2; 陳英傑, 「士山盤銘文再考」, 『中國歷史文物』 2004-6; 晁福林, 「從士山盤看周代“服”制」, 『中國歷史文物』 2004-6; 黃愛梅, 「士山盤銘補義」, 『中國歷史文物』 2006-6; 董珊, 「談士山盤銘文的“服”字義」, 『故宮博物院院刊』 2004-1; 李凱, 「從〈士山盤〉看西周中期周王室的南方經營」, 『四川文物』 2015-4.

34) 朱鳳瀚, 「士山盤銘文初釋」, 『中國歷史文物』 2002-1; 李學勤, 「論士山盤——西周王朝干預諸侯政事一例」, 『文物中的古文明』, 商務印書館, 2008년판.

35) 朱鳳瀚, 「士山盤銘文初釋」, 『中國歷史文物』 2002-1; 李學勤, 「論士山盤——西周王朝干預諸侯政事一例」, 『文物中的古文明』, 商務印書館, 2008년판; 黃錫全, 「士山盤銘文別議」, 『中原歷史文物』 2003-2.

36) 晁福林, 「從士山盤看周代“服”制」, 『中國歷史文物』 2004-6.



의견이 있지만, ‘造蠶’과 ‘刑方’이 대구가 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刑’이 ‘징벌’ 혹은 ‘육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造’ 또한 비슷한 의미로 ‘懲治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어 보인다.

‘大盧，履，六孳’，전술한대로 ‘眾’을 連辭로 파악하는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大盧’，‘履’，‘六孳’ 또한 ‘郡’，‘方’ 등과 같은 성격의 지역정치체로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가 黃錫全<sup>38)</sup> 董珊<sup>39)</sup> 陳英傑<sup>40)</sup> 등이다. 물론 문자만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보면 결코 간단치 않다. 만약 이 셋을 지역정치체로 인식하면, 앞의 ‘郡’，‘方’ 등과 병렬이 되는데, 賓禮를 행할 때는 ‘奠侯’，‘郡’，‘方’만 언급될 뿐, 이 셋은 보이지 않는다. 李學勤은 ‘大盧’의 ‘大’를 ‘蔡’로 考釋하고, ‘六孳’를 여섯만인 부족으로 이해했다.<sup>41)</sup> 李學勤 또한 뒤의 賓禮 부분을 의식하여, 人名과 蠻人 집단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사인 ‘蔡’는 ‘大盧’，‘履’，‘六孳’까지 걸리는데, ‘服’은 각각 개별적으로 쓰이는 것을 보면, 句法에서 서로 모순되는 감이 없잖아 있다. 따라서 본문은 이를 따르지 않는다.

한편 朱鳳瀚은 ‘大盧’의 ‘盧’를 ‘飭’로 읽었다. ‘飭’는 곧 ‘藉田’으로 백성들이 공전을 경작하고 수확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大飭’는 곧 ‘大藉’，대규모의 藉田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履’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 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토지를 측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의 영역을 勘定하는 것이다. ‘六孳’는 『周禮』 「春官·小宗伯」의 “六齋의 명물과 그 쓰임을 분별한다”의 ‘六粢’，곧 黍，稷，稻，粟，麥，苽의 ‘六粢(六穀)’로 해석했다.<sup>42)</sup> 晁福林 또한 朱鳳瀚의 설을 따랐는데, ‘履’에 대해서는 경계를 획정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파악했다.<sup>43)</sup> 黃愛梅는 ‘大盧’와 ‘六孳’에 대해서는 대체로

37) 陳英傑, 「土山盤銘文再考」, 『中國歷史文物』 2004-6.

38) 黃錫全은 ‘大盧’를 ‘睢山’ 일대에 있었던 부족의 이름으로 보았고, ‘履’는 지금의 湖北省 南漳縣에 있었던 ‘盧’국, ‘六孳’는 西周 金文에 ‘叨孳’, ‘𠄎孳’ 등의 사례를 근거로, ‘孳’라고 불리던 여섯 부족 집단으로 보았다(黃錫全, 「土山盤銘文別議」, 『中原歷史文物』 2003-2, 64쪽).

39) 董珊은 ‘履’를 乖伯簋 명문에 보이는 ‘眉敖’의 ‘眉’로 보고, 이를 『尚書』 「牧誓」 중의 ‘微’, 그리고 『春秋』 文公 11년의 ‘麋(麋)’와 같은 방국으로 보았고, ‘六孳’는 『春秋』 文公 5년 “楚人이 六을 멸하였다”의 ‘六’국으로 보았다. ‘六’은 지금의 安徽省 六安 일대다(董珊, 「談土山盤銘文的“服”字義」, 『故宮博物院院刊』 2004-1).

40) 陳英傑은 ‘大盧’와 ‘六孳’에 대해서는 대체로 黃錫全의 설을 따랐지만, ‘履’에 대해서는 『路史後紀』 「疏仡紀·小昊」에 보이는 ‘履氏’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았다(陳英傑, 「土山盤銘文再考」, 『中國歷史文物』 2004-6).

41) 李學勤, 「論土山盤——西周王朝干預諸侯政事一例」, 『文物中的古文明』, 商務印書館, 2008년판.

42) 朱鳳瀚, 「土山盤銘文初釋」, 『中國歷史文物』 2002-1.

43) 晁福林, 「從土山盤看周代“服”制」, 『中國歷史文物』 2004-6. 8쪽

朱鳳瀚의 해석을 따랐으나, ‘履’에 대해서는 신발 ‘履’자와 互訓 관계임을 강조하며, 많은 사례를 들어 신발을 공물로 규정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현실 생활뿐만 아니라 제사 등 儀禮 활동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sup>44)</sup>

비록 朱鳳瀚과 晁福林, 黃愛梅 등이 ‘大廬’, ‘履’, ‘六孳’를 지역정치체가 아닌 공물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그 행위 주체에 대한 인식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朱鳳瀚은 이를 土山의 임무로 보았다. 다시 말해, 土山이 周王의 명을 받고 鄴와 方에서 농사를 크게 일으키고[大廬], 토지를 측량하거나 강계를 획정하고[履], 六穀을 생산하도록 도왔다고 이해했다[六孳].<sup>45)</sup> 晁福林은 ‘蕞侯’의 方伯으로서의 지위를 논한 후, ‘鄴’, ‘荊’, ‘方’ 등의 지역정치체를 관리하고, 이들의 농사와 疆界 劃定, 그리고 六穀 생산을 감독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sup>46)</sup> 黃愛梅는 ‘衆’의 앞 구절인 ‘鄴荊方服’과 뒷 구절의 ‘大廬服, 履服, 六孳服’을 ‘同位關係’로 파악하고, ‘鄴方’과 ‘荊方’의 구체적인 역할, 다시 말해 이들의 주왕실에 대한 ‘職事’를 ‘大廬’, ‘履’, ‘六孳’를 올리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sup>47)</sup> 그 올리는 주체는 ‘鄴方’과 ‘荊方’이고, 징수하는 주체는 土山이 된다.

이러한 여러 해석 방안 모두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으나, 두 가지 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본 冊命이 9월에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본 명문의 편찬자가 土山이라는 점이다. 土山은 周王의 명을 받아 ‘蕞侯’를 나라로 들여 옹립하고, ‘鄴’과 ‘方’을 懲治하였다. 만약 朱鳳瀚의 해석처럼 ‘藉田’을 크게 일으키고, 토지를 측량하거나 강계를 획정하고, 六穀의 생산을 돕는 일은 9월에 적절치 않고, 오히려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에 알맞을 것이다. 그리고 晁福林的 해석처럼 이 세 가지 일을 蕞侯가 담당한다면, 土山이 굳이 자신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작성한 명문에 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보면, 추수가 끝난 후, 土山이 鄴와 方의 직무이행을 감독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藉田’은 잘 하고 있는지, 농지는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六穀은 제대로 수확했는지를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4) 黃愛梅, 「土山盤銘補義」, 『中國歷史文物』 2006-6. 『周禮』 「天官·履人」, “履人掌王及后之服履, 為赤舄·黑舄, 赤纒·黃纒, 青句, 素履·葛履, 辨外內命夫命婦之命履·功履·散履. 凡四時之祭祀, 以宜服之.”

45) 朱鳳瀚, 「土山盤銘文初釋」, 『中國歷史文物』 2002-1.

46) 晁福林, 「從土山盤看周代“服”制」, 『中國歷史文物』 2004-6.

47) 黃愛梅, 「土山盤銘補義」, 『中國歷史文物』 2006-6.

(2-3) 賓禮: 萁侯(侯)·蓋·卬(方)賓貝·金.

‘賓貝·金’, 李學勤은 萁侯 등의 답례로 인식했다. 西周 金文에 보면 ‘賓貝’ 혹은 ‘賓馬兩, 金十鈞’ 등 본 명문과 유사한 사례가 보이는데, 모두 왕이 파견한 사신에 답례한 용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본 명문의 ‘賓貝·金’ 또한 같은 용례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萁侯’ 등이 답례품으로 패와 구리를 증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48)</sup> 黃錫全은 士山이 使行중에 가져온 공납물 가운데 ‘貝’와 ‘金’을 주왕이 다시 士山에게 하사한 것으로 여겼다.<sup>49)</sup> 이는 ‘賓’을 ‘증정하다’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陳英傑은 ‘賓’이라는 글자를 ‘증정하다’ 혹은 ‘증정품’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賓’이 가진 함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貝’ 혹은 ‘구리’ 등을 주고받는 것은 ‘賓禮’이라는 儀禮 속에서 나타난 부산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陳英傑은 ‘賓’을 賓禮를 거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문도 이를 따라, 萁侯와 郟, 方國이 士山에게 賓禮를 베풀어 주었고, 이 때 貝와 구리를 증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3) 嘏辭: 山擗(拜)頤(稽)首, 叀(敢)對凱(揚)天子=不(丕)顯休, 用乍(作)文考釐中(仲)寶隣(尊)般盃, 山其萬年永用.

山은 절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감히 천자의 크고 빛나심을 드날리면서, 문채로우신 아버지 釐仲을 위한 보배로운 기물인 盤과 盃를 만드노니, 山은 만년동안 영원히 사용할 것이로다.

이 부분은 嘏辭 부분으로, 본 기물의 헌정 대상, 및 그 용도에 대해 간단히 기술되어 있다. 士山은 周王의 冊命을 받았기 때문에, ‘天子’를 드날리고 있고, 아버지 釐仲을 위한 盤과 盃를 제작했다는 내용에 따라, 본 盤 외에도 이른바 ‘士山盃’라는 기물의 존재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다.

명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왕 16년 9월 기생패 갑신일, 주왕은 주신궁에서 사산에 대한 책명의례를 거행하였다. 주왕은 작책윤을 불러 사산을 책명하면서, “중후를 나라로 들이라”는 명령을 하였다. 이 부분을 통해 봤을 때, 萁侯는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나라를 떠나 있었고, 그 사건에 郟國과 方國이 개입되어 萁侯의 귀국을 방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

48) 李學勤, 「論士山盤——西周王朝干預諸侯政事一例」, 『文物中的古文明』, 商務印書館, 2008년판.

49) 黃錫全, 「士山盤銘文別議」, 『中原歷史文物』 2003-2

서 士山은 周王의 명을 받아 蕞侯를 나라로 귀국시켜 군주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郟國과 方國을 징치하고, 이들의 직무, 곧 ‘藉田’을 잘 하고 있는지, 농지는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六穀의 생산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蕞侯와 郟國, 그리고 方國은 모두 士山에게 賓禮를 베풀어 패와 구리를 증정하였다. 사산은 이를 기념하여 천자를 드날리며, 아버지 이중을 위한 반과 화를 제작하였다.

여기서 ‘服’자는 그동안 많은 해석이 제기되었으나, 그중 필자는 ‘服’을 명사로 인식하여, ‘職事’로 해석하는 설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懲郟, 刑方服’의 ‘服’은 士山이 郟과 方을 懲治한 후 그들의 職事를 확인한 것이고, 그 ‘服’은 곧 ‘大盧服, 履服, 六孳服’으로, 郟과 方이 이행해야 할 周王室에 대한 職事다. 이 ‘職事’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지방정치체의 임무와 공물을 규정지었다는 점에서 문헌에 보이는 ‘服制’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의 ‘服’이, 문헌에 보이는 ‘服制’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는 보다 상세한 논증이 필요하다.

### 3. 서주시기 ‘服制’의 ‘名’과 ‘實’

서주시기 ‘服制’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 문헌 사료 몇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먼저 『尙書』 「禹貢」의 기록이다.

〈도읍에서〉 사방 500리가 전복이다. 백 리는 ‘總’을 부세로 납부하고, 이백 리는 ‘銓’을 납부하며, 삼백리는 ‘秸服’을 납부하고, 사백리는 ‘粟’을, 오백리는 ‘米’로 한다. 〈甸服 다음의〉 오백리가 侯服이다. 백리는 ‘采’, 이백리는 ‘男邦’, 삼백리는 ‘諸侯’다. 〈侯服 다음의〉 오백리가 綏服이다. 삼백리는 ‘文教’로 법도를 삼고, 이백리는 무력으로 나라를 보위한다. 〈綏服 다음의〉 오백리가 要服이다. 삼백리는 ‘夷’, 이백리는 ‘蔡’이다. 〈要服 다음의〉 오백리가 荒服이다. 삼백리는 ‘蠻’, 이백리는 ‘流’이다.<sup>50)</sup>

이 기록은 전설 속의 禹임금이 치수를 완수한 후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기

50) 『尙書正義』 권6, 153쪽, “五百里甸服, 百里賦納總, 二百里納銓, 三百里納秸服, 四百里粟, 五百里米. 五百里侯服, 百里采, 二百里男邦, 三百里諸侯. 五百里綏服, 三百里揆文教, 二百里奮武衛. 五百里要服, 三百里夷, 二百里采. 五百里荒服, 三百里蠻, 二百里流.”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禹임금은 春秋戰國時代를 거치면서 聖王化 된 인물로,<sup>51)</sup> 「禹貢」의 기록 또한 일러도 戰國時代 중기보다 이르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다음에 살펴 볼 『國語』와 『周禮』의 관련 기록 또한 「禹貢」과 거의 동시대에 편찬된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國語』 「周語上」의 기록을 보도록 하자.

선왕의 제도에 邦內는 ‘甸服’ 이고, ‘邦外’ 는 ‘侯服’ 이며, 侯와 衛 사이는 ‘賓服’, 蠻과 夷는 ‘要服’, 戎과 狄은 ‘荒服’ 이라 하였습니다. 甸服은 ‘祭’ 를, 侯服은 ‘祀’ 를, 賓服은 ‘享’ 을, 要服은 ‘貢’ 을, 荒服은 ‘王’ 을 합니다. ‘日祭’, ‘月祀’, ‘時享’, ‘歲貢’, ‘終王’ 은 先王之 가르침입니다. ‘日祭’ 를 드리지 않는 자가 있으면 <天子는> 스스로를 수양하고, ‘月祀’ 를 드리지 않는 자가 있으면 호령을 내려 바로잡으며, ‘時享’ 을 드리지 않는 자가 있으면 법령을 정비하고, ‘歲貢’ 을 바치지 않으면 명분을 바로잡으며, ‘終王’ 을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德을 같고 닦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이에 ‘日祭’ 를 드리지 않는 자를 징치하고, ‘月祀’ 를 드리지 않는 자를 공벌하며, ‘歲貢’ 을 오지 않는 자를 견책하고, ‘終王’ 하지 않는 자를 타일렸습니다. 이에 형벌하는 법이 있게 되었고, 攻伐하는 무력이 있게 되었으며, 征討하는 武備가 있게 되었고, 위엄을 세워 견책하는 호령이 있게 되었으며, 글로 타이르는 文辭가 있게 되었습니다. 명령을 반포하고 말로 타이르는데도 이르지 아니하면, <天자의> 덕을 더욱 닦아서 백성들이 먼 곳에 가서 수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니, 이로써 가까이로는 <天자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없었고, 멀리로는 복종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sup>52)</sup>

이는 周穆王이 犬戎을 정벌하려고 할 때, 祭公이 穆王에 올린 간언이라고 한다. 앞의 「禹貢」과는 다른 각도에서 서술한 것으로, 각 지방의 ‘服’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周王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본 후, 그래도 직무를 다하지 않을 시에 이들을 정토하고 견책하는 일을 담고 있다. 어떻게 보면, 士山盤 명문에서 士山이 郟과 方을 징치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51) 성시훈, 「유교적 성왕(聖王)으로 변용되는 세계의 개척자 - 禹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4집, 2021년.

52) 徐元誥 撰, 王樹民·沈長雲 點校, 『國語集解』(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2002년, 1-9쪽, “夫先王之制, 邦內甸服, 邦外侯服, 侯·衛賓服, 蠻·夷要服, 戎·狄荒服. 甸服者祭, 侯服者祀, 賓服者享, 要服者貢, 荒服者王. 日祭·月祀·時享·歲貢·終王, 先王之訓也. 有不祭則修意, 有不祀則修言, 有不享則修文, 有不貢則修名, 有不王則修德, 序成而有不至則修刑. 於是乎有刑不祭, 伐不祀, 征不享, 讓不貢, 告不王. 於是乎有刑罰之設, 有攻伐之兵, 有征討之備, 有威讓之令, 有文告之辭. 布令陳辭而又不至, 則增修於德而無勤民於遠, 是以近無不聽, 遠無不服.”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國語』 「周語」의 기록은 春秋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西周時期的 실정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이어서 『周禮』 「職方氏」에 기록된 내용을 보도록 하자.

사방 千里를 ‘王畿’라 하고, 그 밖으로 사방 오백리를 ‘侯服’이라 하며, 또 그 밖의 사방 오백리를 ‘甸服’이라 하고, 또 그 밖으로 사방 오백리를 ‘男服’이라 하며, 또 그 밖의 사방 오백리를 ‘采服’이라 하고, 또 그 밖으로 사방 오백리를 ‘衛服’이라 하며, 또 그 밖의 사방 오백리를 ‘蠻服’이라 하고, 또 그 밖으로 사방 오백리를 ‘夷服’이라 하며, 또 그 밖의 사방 오백리를 ‘鎮服’이라 하고, 또 그 밖으로 사방 오백리를 ‘藩服’이라 한다.....무릇 방국은 크고 작은 나라를 서로 유지시킨다. 왕은 그 ‘牧’을 설치하고 그 직무를 제정하되, 그 능력 있는 바로 하고, 그 공물을 제정하되, 그 갖고 있는 바로 한다. 53)

여기서는 「禹貢」, 「周語」에서 ‘服制’를 ‘五服’으로 규정지은 것과는 달리, 『周禮』 「職方氏」에서는 ‘九服’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직무’를 부여하고, 그 지역의 생산물을 ‘공물’로 바치도록 제정하는 이상적인 메커니즘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周禮』 「大行人」에서는 이들의 공납 의무를 규정하기도 하였다.

邦畿는 사방 천리로, 그 밖으로 사방 오백리를 ‘侯服’이라 하고, 1년에 한 번 알현하는데 그 공물은 ‘祀’에 필요한 물품이고, 또 그 밖의 사방 오백리를 ‘甸服’이라 하고, 2년에 한 번 알현하는데, 그 공물은 ‘賓禮’에 필요한 물품이며, 또 그 밖으로 사방 오백리를 ‘男服’이라 하고, 3년에 한 번 알현하는데, 그 공물은 ‘器物’이고, 또 그 밖의 사방 오백리를 ‘采服’이라 하고, 4년에 한 번 알현하는데, 그 공물은 ‘服物’이며, 또 그 밖으로 사방 오백리를 ‘衛服’이라 하고, 5년에 한 번 알현하는데, 그 공물은 ‘材物’이고, 또 그 밖의 사방 오백리를 ‘要服’이라 하고, 6년에 한 번 알현하는데, 그 공물은 ‘貨物’이며, 九州 밖을 일러 蕃國이라 하고, 한 세대에 한 번 알현하는데, 각각 그 귀중한 보배를 폐백으로 삼는다.54)

53) 『周禮注疏』 권33, 863쪽, “方千里曰王畿, 其外方五百里曰侯服, 又其外方五百里曰甸服, 又其外方五百里曰男服, 又其外方五百里曰采服, 又其外方五百里曰衛服, 又其外方五百里曰蠻服, 又其外方五百里曰夷服, 又其外方五百里曰鎮服, 又其外方五百里曰藩服.”

54) 『周禮注疏』 권37, 892쪽, “邦畿方千里. 其外方五百里謂之侯服, 歲壹見, 其貢祀物. 又其外方五百里謂之甸服, 二歲壹見, 其貢嬪物. 又其外方五百里謂之男服, 三歲壹見, 其貢器物. 又其外方五百里謂之采服, 四歲壹見, 其貢服物. 又其外方五百里謂之衛服, 五歲壹見, 其貢材物. 又其外方五百里謂之要服, 六歲壹見, 其貢貨物. 九州之外謂之蕃國, 世壹見, 各以其所貢寶為

「職方氏」는 각 ‘服’ 별로 周王을 알현하는 주기와 공물을 규정지은 것으로, 주왕실이 분봉했거나 주천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지역정치체는 모두 주왕실에 대한 공납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周禮』 또한 주지하다시피 후대에 편찬된 것으로, 결코 周代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國語』의 내용에 반영된 천하 유지의 메커니즘, 곧 周王의 ‘德’이라는 것이 반영하듯, 이러한 ‘服制’는 결국 儒家에 의한 날조라는 혐의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服制’는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날조된 것일까?

‘五服’ 제도든 아니면 ‘九服’ 제도든 간에, 그 핵심은 도읍에서부터 거리에 따라 각기 직무와 공물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를 ‘名’과 ‘實’이라는 개념으로 도식화 해 보면, ‘服制’라는 명칭 자체는 ‘名’이 되고, 각기 그 직무와 공물을 규정한 것은 ‘實’이 된다. 여기서는 각각 ‘服制’의 ‘名’과 ‘實’을 살펴서, 서주시기 실제 시행 여부를 논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名’이라는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다. 西周時期 청동 명문에 보이는 ‘服’의 용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명 혹은 족 집단으로 쓰인 사례를 들 수 있다.

기물명	『銘圖』 편호	명문
服尊	11753	服肇夙夕明享
裘衛盃	14800	司土微邑·司馬單旗·司工邑人服
呂服余盤	14530	唯正二月初吉甲寅, 備仲內(入)右呂服余.
詢簋	5378	成周走亞·戍秦人·降人·服夷

둘째, 동사로 ‘마시다’의 의미로 쓰였다.

기물명	『銘圖』 편호	명문
小盃鼎	2516	三左三右多君入服酉(酒), 明, 王格周廟, □□□邦賓, 延邦賓尊其旅服, 東卿(嚮).

셋째, 관직명으로 쓰인 용례도 있다.

기물명	『銘圖』 편호	명문
番生簋蓋	5383	丕顯皇祖考, 穆穆克誓(哲)厥德, 嚴在上, 廣啟厥孫子于下, 擢于大服
由鼎	2453	王曰, 由, 命汝作服. 錫汝金車
靜簋	5320	王令靜司射學宮, 小子眾服·眾小臣·眾夷僕學射

擊.”

넷째, ‘직무’ 혹은 ‘관직’의 의미로 쓰인 용례로, 대체로 冊命 명문에 많이 쓰인다.

기물명	『銘圖』 편호	명문
班簋	5401	唯八月初吉, 在宗周, 甲戌, 王令毛伯更號城公服
趨解	10659	王乎(呼)內史冊命趨, 更厥祖考服, 錫趨織衣
親簋	5362	王乎(呼)作冊尹冊申命親曰, 更乃祖服作冢司馬
吮簋	5386	哉乃祖考繇有共(功)于先王, 亦弗忘乃祖考, 登裏厥典, 奉于服
大克鼎	2513	天=子=(天子, 天子)明哲, 景孝于申(神), 罔(經)念厥聖保祖師華父, 擢克王服, 出內(納)王命, 多錫寶休, 丕顯天=子=
毛公鼎	2518	汝毋敢彖(惰)在乃服
逯盤	14543	零朕皇高祖零伯, 葬明厥心, 不墜口服
逯鐘	31028	罔(經)朕先祖服

다섯째, ‘納貢’ 혹은 ‘貢物’의 의미로 지방정치체의 직무로 쓰인 용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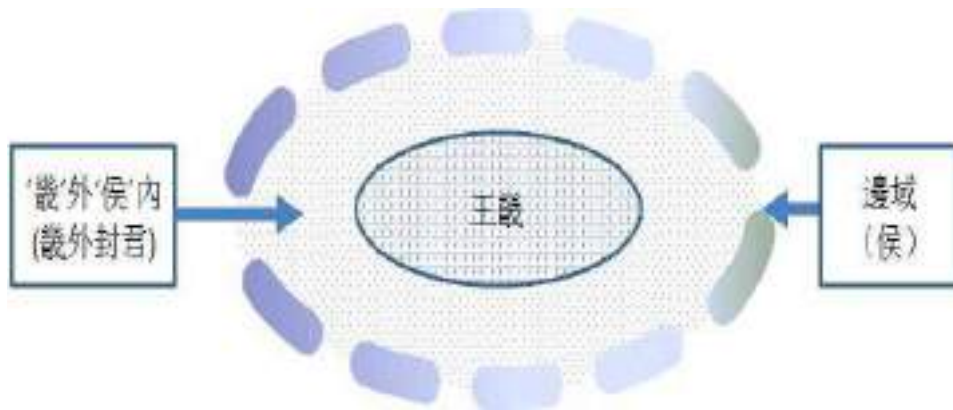
기물명	『銘圖』 편호	명문
作冊虺卣	13344	唯公太史見服于宗周年. 在二月既壘乙亥, 公太史咸見服于辟王, 辨于多正.
邢侯簋	5274	唯三月, 王令榮眾暨內史曰, 介邢侯服, 錫臣三品
駒父盨蓋	5675	南(仲)邦父命駒父即南諸侯, 率高父視南淮夷, 厥取厥服, 至夷俗遂不敢不敬畏王命, 逆(迎)視我, 厥獻厥服. 于入葬侯. 遂懲蓋, 刑方, 服, 眾大盧服, 履服, 六孳服. 葬侯·蓋·方·寶·貝·金.
士山盤	14536	

이와 같은 여러 용례를 놓고 봤을 때, ‘服’은 책명의례에 자주 보이는 기내 귀족의 ‘직무’ 혹은 ‘관직’의 용례로 가장 많이 쓰였고, 이밖에 관직명으로서의 ‘服’의 용례, 그리고 ‘納貢’ 혹은 ‘貢物’의 용법으로도 쓰였다. 이 가운데 ‘服制’라는 이름의 제도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용례는 없다. 다만, ‘納貢’ 혹은 ‘貢物’의 용례로 쓰인 사례 가운데, ‘服制’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하는 실마리가 존재하기는 한다. 예컨대, 士山盤 명문의 ‘복’이 ‘服制’와 관련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駒父盨蓋 명문을 들 수 있다. “南仲 邦父가 駒父를 명하여 남쪽 諸侯로 가게 하니, 高父를 이끌고 南淮夷를 만나니, 이들이 그 공물을 취하였고, 夷俗을 감히 존중하니, 이에 감히 왕명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맞이하여 그 공물을 바쳤다.”<sup>55)</sup>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주왕실



과 南淮夷 사이에 서로 공물을 주고받는 의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양자 간에 제도화된 것이었다면, 여기서의 ‘服’의 서로 규정된 것이 된다. 그렇다면, 비록 西周時期에 ‘服制’라는 ‘名’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주왕실과 지방 여러 정치체 사이에 서로 규정된 ‘服制’의 ‘實’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實’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전술했듯이 ‘服制’의 ‘實’은 주왕실과 지방정치체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것으로, 주왕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각기 다른 지방정치체에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고, 또 그들로부터 소정의 공물을 취하는 것이다. 물론 그 실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西周時期 동시대 자료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림 1】 西周 시대의 ‘畿外封君’과 ‘侯’의 정치 지리적 위치

정치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방정치체는 주왕이 직접 통제하는 ‘王畿’와 邊域의 ‘諸侯’를 기준으로, 王畿와 邊域 사이의 ‘畿外封君’, 邊域의 ‘諸侯’, 그리고 邊域 외에 자리한 기타 ‘邦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56)</sup> 이들 여러 지방정치체에 대한 주왕실의 기대 및 임무 부여는 분명 달랐을 것이다. 제후 같은 경우,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고, 지방 유력자로서, 주변의 작은 정치체를 통할하는 임무도 맡았다.<sup>57)</sup> 그리고 중요한 것은 ‘諸侯’는 王朝 중앙에서

55) ‘南(仲)邦父命駒父即南諸侯, 率高父視南淮夷, 厥取厥服, 至夷俗遂不敢不敬畏王命, 逆(迎)視我, 厥獻厥服’

56) 李裕杓, 『西周王朝軍事領導機制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18년.

57) 朱鳳瀚, 「關於西周封君君主稱謂的幾點認識」, 陝西省考古研究所·上海博物館 編, 『兩周封國論衡 - 陝西韓城出土芮國文物暨周代封國考古學研究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上海古籍出版社, 2014년; 김정열, 「西周的 異姓諸侯 封建에 대하여」, 『동양사학연구』 제77집, 2002년.

‘王官’을 역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58)</sup> 이는 諸侯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여 준다. 반면에 ‘畿外封君’은 ‘呂伯’과 ‘吳伯’의 사례를 통해, 이들은 諸侯와는 달리 王官을 역임하기도 했고,<sup>59)</sup> 또 柞伯의 사례를 통해 군사적인 역할보다는 王朝 중앙과 邊域 사이의 요지에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sup>60)</sup> 그리고 邊域 외에 자리했던 기타 ‘邦國’은 때때로 군사적으로 주왕실과 연합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왕실에 완전히 臣屬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尙孟 명문에 보이는 주왕실의 사신과 패국 사이의 의례에서 서로 ‘聘禮’를 주고받은 것을 통해, 양자 간에는 의례적으로 서로 동등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61)</sup>

이처럼 정치지리적인 입지에 따라, 왕조에서의 역할이 달랐다는 것은, 주왕실과 冊命 혹은 맹약을 통해 맺은, 모종의 규정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당시에 ‘服制’라는 ‘名’이 실재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片鱗을 통해 ‘服制’의 ‘實’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 4. 나오며

이상으로, 士山盤 명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西周時期 ‘服制’의 ‘名’과 ‘實’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士山盤은 共王時期의 기물로, 그 명문 내용을 통해 周王이 使臣을 파견하여 지방정치체를 안정시키는 한편, 그들의 ‘服’, 곧 주왕실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기제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본 명문에 보이는 ‘服’이, 정치지리적인 입지조건에 따라 주왕실에 대한 직무와 공물을 규정짓는 ‘服制’와 관련짓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검토에 의하면, 사산반 명문만 가지고 서주시기에 ‘服制’라는 이름의 제도가 존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西周時期 동시대적 문자 자료를 정리해 봤을 때, ‘服’이라는 용례 가운데, 지방정치체의 納貢 혹은

58) 王治國, 「西周諸侯入爲王官有無考」, 『史學月刊』 2014-5.

59) 李裕杓, 『西周王朝軍事領導機制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18년, 226-229쪽.

60) 이유포, 「柞伯鼎 명문에 보이는 전쟁과 柞伯의 ‘畿外封君’적 지위」, 『중국고중세사연구』 제43호, 2017년.

61) 高木智見, 「春秋時代の聘禮について」, 『東洋史研究』 47-4, 1989년, 109-138쪽; 黎虎, 「周代交聘禮中的對等性原則」, 『史學集刊』 2010-2; 김정열, 「橫北村과 大河口」, 『동양사학연구』 제120집, 2012년, 44쪽.

貢物을 내포하고 있는 용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비록 이러한 사례가 西周時期 ‘服制’라는 이름의 제도가 존재했음을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주왕실과 지방정치체 사이에, 일정하게 규정된, 모종의 職事 혹은 貢物을 주고 받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따라서 필자는 ‘服制’의 ‘名’과 ‘實’이라는 개념을 통해, 西周時期 ‘服制’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西周時期에 ‘五服’ 혹은 ‘九服’ 제도와 같은 이상적인 ‘服制’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지방정치체의 지리적 입지에 따라 주왕실의 각 지방정치체에 대한 기대는 분명 달랐을 것이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諸侯는 지방에서 軍事重鎮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왕실의 관직을 역임하지는 않았다. 지리적으로 王畿와 諸侯 사이에 자리했던 이른바 ‘畿外封君’은 비록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으나, 왕실의 관직을 역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타 ‘邦國’은 비록 주왕실에 군사적인 지원을 하였으나, 의례적으로 상호 간에 ‘聘禮’를 치른 것으로 보아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다만, 각 지방정치체의 구체적인 職事와 貢物은 제각기 달랐을 것이다. 이 직사와 공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리적 입지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주왕실과 각 지방정치체 사이의 ‘冊命’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西周時期 ‘服制’라는 이름의 제도, 곧 그 ‘名’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으나, ‘服制’의 내용, 곧 지리적인 입지에 따른 職事와 貢納의 의무를 규정짓는, 그 ‘實’은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이는 春秋戰國時代 사상가들이 구상한 이상적인 ‘五服’ 혹은 ‘九服’ 제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 6 先秦시기 年月日 표기방식에 대한 고찰 - 『三國遺事』 「古朝鮮」조의 紀年 표기방식을 함께 논함

박재복(경동대)

### 목 차

1. 머리말
2. 전래문헌의 연월일 표기방식
3. 출토문헌의 연월일 표기방식
4. 맺음말

### 1. 머리말

우리나라는 현재 서구의 영향을 받아 예수가 태어난 해를 元年으로 하는 西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年號를 사용했으며, 그 이전에는 다양한 형태의 紀年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한 해를 의미하는 한자로 ‘載’, ‘歲’, ‘祀’, ‘年(季)’, ‘稔’ 등이 있는데, 『삼국유사』 「紀異·古朝鮮」조에서도 ‘載’, 年, 歲 등을 확인할 수 있다.

魏書<sup>1)</sup>云: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經云: 無葉山, 亦云: 白嶽, 在白州地. 或云: 在開城東, 今白嶽宮是.], 開國號朝鮮, 與高<sup>2)</sup>同時.

1) 魏書: 北齊 魏收가 쓴 『魏書』(130권)는 29편이 망실되었으며, 현존 『魏書』에는 이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2) 高: 고려 定宗의 이름인 ‘堯’를 避諱해 바꾸어 쓴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 堯임금을 지칭한다.

古記云：〈壇君王儉〉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唐堯卽位元年戊辰，則五十年丁巳，非庚寅也，疑其未實.]，都平壤城[今西京]，始稱朝鮮。又移都於白嶽山阿斯達。又名弓[一作方]忽山，又今彌達。禦國一千五百年。周虎王<sup>3)</sup>卽位己卯，封箕子於朝鮮，壇君乃移於藏唐京，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壽一千九百八歲。

고대 중국과 한국의 전래문헌과 출토문헌 자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기년 표기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전래문헌의 연월일 표기 방식

先秦시기의 전래문헌에서도 기년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래문헌은 후대에 편집되어 그 형식과 내용이 당시의 표기방식인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전래문헌 중에서 역사적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는 최초의 문헌은 『춘추』이라고 할 수 있다. 『춘추』桓公元年：“夏，四月，丁未，公及鄭伯盟於越。”과 같이 노나라의 ○公 ○年 春(혹은 夏·秋·冬) ○月，干支日을 맨 앞에 표기하고 관련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前漢 이래로는 왕의 즉위와 함께 年號를 사용해 근대에까지 사용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전래문헌에 보이는 기년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載

堯典：往，欽哉！九載，績用弗成。

堯典：咨！四嶽，朕在位七十載，汝能庸命，巽朕位？

舜典：二十有八載，帝乃殂落。百姓如喪考妣，三載，四海遏密八音。

舜典：舜生三十徵庸，三十在位。五十載，陟方乃死。

大禹謨：格，汝禹！朕宅帝位三十有三載，耄期倦於勤。汝惟不怠，總朕師。

禹貢：厥田惟中下，厥賦貞，作十有三載乃同。

3) 虎王： 고려 惠宗의 이름 ‘武’를 피휘해 바꾸어 쓴 것이다. 여기서는 서주 武王을 지칭한다.

이와 같이 『상서』에 기록된 堯舜시대에서 ‘○載’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년’ 혹은 ‘○세’라는 의미로 생존연수, 재위기간 등을 표기하였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 보면, ‘載’자는 年과 祀와 같이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뒤에 기년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禹貢은 夏나라 우임금의 내용이지만 순임금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載로 쓰고 있다.

## 2) 歲

周月解: 凡四時成歲, 歲有春夏秋冬, 各有孟仲季, 以名十有二月.

‘歲’는 한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3) 祀

伊訓: 惟元祀十有二月乙丑, 伊尹祠於先王.

太甲中: 惟三祀十有二月朔, 伊尹以冕服奉鬯王歸於亳.

說命上: 王宅憂, 亮陰三祀.

洪範: 惟十有三祀, 王訪於箕子.

『尚書』「多方」: “今爾奔走臣我監五祀”

『逸周書』「柔武」: “維王元祀一月既生魄”

豐保解: 維二十三祀庚子朔, 九州之侯咸格於周, 王在豐, 昧爽, 立於少庭.

小開解: 維三十有五祀.

柔武解: 維王元祀一月既生魄.

大開武解: 維王一祀二月.

小開武解: 維王二祀一月既生魄.

寶典解: 維王三祀, 二月丙辰朔.

豐謀解: 維王三祀. 王在豐, 謀言告聞.

大匡解: 惟十有三祀, 王在管.

文政解: 惟十有三祀, 王在管.

武倣解: 惟十有二祀四月, 王告夢, 丙辰, 出金枝郊寶開和細書, 命詔周公旦, 立後嗣, 屬小子誦, 文及寶典.

『설문』「示部」에 “祀는 제사가 끊어짐이 없는 것이다.(祭無已也.)”라고 하였으니, 제철에 알맞은 것이나 절기를 살펴서 신에게 제사하는 뜻이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래문헌에서는 종종 ‘祀’를 ‘年’과 같이 한 해를 의미

하는 글자로 사용되었다.

#### 4) 年

##### (1) 年으로 기년을 표기한 경우:

伊訓: 成湯既沒, 太甲元年, 伊尹作《伊訓》, 《肆命》, 《徂後》.

太甲上: 太甲既立, 不明, 伊尹放諸桐. 三年復歸於亳, 思庸, 伊尹作《太甲》三篇.

泰誓上: 惟十有一年, 武王伐殷. 一月戊午, 師渡孟津, 作《泰誓》三篇.

泰誓上: 惟十有三年春, 大會於孟津.

畢命: 惟十有二年, 六月庚午, 肫. 越三日壬申, 王朝步自宗周, 至於豐.

成開解: 成王元年, 大開告用.

成開解: 成王元年.

嘗麥解: 維四年孟夏, 王初祈禱於宗廟, 乃嘗麥於太祖.

재위 왕 ○년, 뒤에 ‘春’과 같은 四時를 표기하거나 ‘六月庚午肫’과 같이 ○월+간지일+月相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太甲元年’, ‘成王元年’과 같이 앞에 임금을 표시하는 방식은 후대에 문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2) 중요한 사건으로 年을 표기한 경우:

金縢: 既克商二年, 王有疾, 弗豫.

金縢: 周公居东二年, 则罪人斯得.

『逸周書』「文傳」: “文王受命之九年, 時維莫春, 在郟.”

위와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기준으로 기년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 (3) 年을 생략하고 月이하만 표기한 경우:

武成: 惟一月壬辰, 旁死魄. 越翼日, 癸巳, 王朝步自周, 于征伐商.

世俘解: 維一月丙午旁生魄, 若翼日丁未, 王乃步自於周征伐商王紂越若來. 二月既死魄, 越五日甲子, 朝至接於商, 則咸劉商王紂, 執矢惡臣百人, 太公望命禦方來. 丁卯望, 至告以馘俘. 戊辰, 王遂禦循追祀文王時日王立政. 呂他命伐越戲方. 壬申, 荒新至告以馘俘侯來命伐靡集於陳. 辛巳, 至告以馘俘. 甲申, 百弇以虎賁誓命伐衛, 告以馘俘.

世俘解: 時四月既旁生魄, 越六日, 庚戌, 武王朝至燎於周, 維予冲子綏文.



皇門解: 維正月庚午, 周公格於左闕門.

諡法解: 維三月既生魄.

전래문헌의 상당부분은 年을 생략하고 月이하의 간지일과 월상 등을 기록한 경우도 상당수 보인다. 주대의 전래문헌에서는 ‘旁生魄’, ‘旁死魄’, ‘既生魄’ 등과 같은 월상을 자주 사용하였다.

#### (4) 年이 생존연수나 재위기간을 나타낸 경우:

无逸: 文王受命惟中身, 厥享國五十年.”

呂刑: 惟呂命, 王享國百年, 耄, 荒度作刑, 以詰四方.

『爾雅』「釋天」에 “당우 때는 ‘載’라 하고, 夏에서는 ‘歲’라 하고, 商에서는 ‘祀’라 하고, 周에서는 ‘年’이라 한다.(唐虞曰載, 夏曰歲, 商曰祀, 周曰年.)”라고 하여 하상주 3대에 기년을 달리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래문헌에서 상나라의 ‘祀’, 주나라의 ‘年’은 자주보이지만 요순시기의 ‘載’와 하나라의 ‘歲’로 기년을 표기한 용례는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기년방식이 존재하고 ‘祀’와 ‘年’이 시기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출토문헌의 연월일 표기 방식

#### 1) 중국의 출토문헌

##### 1) 殷商시기

① 갑골문: 문장의 맨 앞에 干支로 날짜를 표시하였다.

② 금문: ㉠대부분 연월일이 문장의 뒤에 온다. ㉡年자를 祀자로 썼다. ㉢ 일부 명문에서는 맨 앞에 干支로 일을 표시하지만, 년 혹은 월은 문장의 끝에 배치하였다.

丁子(巳), 王眚(省)夔京, 王易(賜)小臣兪夔貝. 隹(唯)王來正(征)人方, 隹(唯)王十祀又(有)五, 彡(彤)日.

정사(丁巳)일에 왕이 기경(夔京)을 시찰하고 왕이 소신(小臣) 유(兪)에게 기(夔)의 패화(貝貨)를 하사하였다. 왕이 인방(人方)을 정벌하고 돌아오니, 왕 15

년 용일(彤日)이었다.

이는 <小臣兪尊>(『集成』 11· 5990)<sup>4)</sup>의 명문 내용으로 문장 맨 앞에 간지로 일을 기록하고 문장의 맨 끝에 연월을 기록하였다.

상후기 명문은 맨 앞에 60 간지로 날짜를 기록하고 맨 뒤에 년과 월을 기록하였고, 상말기에 <我方鼎>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맨 앞에 몇월 간지일로 기록하는 방식이 처음 출현하여 상말 주초에 이러한 양식이 유행하였다. 서주 초기 후단계에서 금문의 맨 앞에 唯○年○月月相干支日로 연월일을 기록하는 방식이 출현하여 서주 중후기에 전형적인 특징으로 형성되었다.

## 2) 西周시기

### ① 갑골문:

② 금문: ㉠일반적으로 명문의 맨 앞에 연월일과 월상을 동시에 기록하였다. ㉡일부는 명문의 맨 마지막에 연월일을 기록하였고, 祀자로 연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殷遺民과 관련된 기물로 판명되었다.

<班簋>에 “隹(唯)八月初吉, 才(在)宗周. 甲戌, ....”라는 표기가 보인다. 이와 같이 初吉과 日辰 사이에 “왕이 종주에 계셨다[王在宗周].”와 같은 말을 삽입하는 기일법(紀日法)은 목왕 전후에 상당히 유행하였다.

<五祀衛鼎>(『集成』5· 2832)에 “隹(唯)正月初吉庚戌,.....본문 내용.....隹(唯)王五祀.”

<구위화(裘衛盃)> 북부 안쪽 벽에 명문 19행 207자가 주조되었다. 본 명문에서 기년(紀年)이 명문 말미에 있고, 글머리에는 달·월상(月相)·간지(干支)가 있어서 기시(紀時)의 4요소를 모두 갖추었다.

<九年衛鼎>: “隹(唯)九年(年)正月既死霸庚辰.”

<師 鼎>(『集成』5· 2830)의 북부 내벽에 19행 196자의 명문이 주조되어 있다. 맨 앞부분에 “왕 8년 정월 일진(日辰)이 정묘일에 있었다.(唯王八祀正月, 辰才(在)丁卯.)”라는 기년 표기가 보인다. 이 기물은 공왕 8년 정월에 주조된 것인데, ‘祀’로 연도를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상나라의 풍속이지만 서주중기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신유준(小臣兪尊)은 小臣兪尊이라고도 한다. 상대 말기에 속하는 기물이다. 淸 道光 年間(1820~1850)에 山東 壽張縣 梁山에서 출토되었다. 길이는 37cm이고 높이는 23.2cm, 명문은 4행 27자. 鐘養田, 曲阜 聖公府, 潘祖蔭이 소장하였었고 지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전형적인 형식은 명문 앞부분에 “佳(唯)王+○季(年)+○月+月相+日辰.”을 모두 갖추었지만 王, 年 등을 생략한 경우도 종종 확인된다.

<商尊>: “5월 정해일, 帝司가 庚姬에게 貝30봉과 絲 20鈔를 하사했다. 商은 이에 아버지 日丁의 보배로운 제기를 만든다.(佳(唯)五月, 辰才(在)丁亥, 帝司(後)賞庚姬貝卅朋·茲(絲)廿鈔, 商用乍(作)文辟日丁寶尊彝.)”

<商尊>에도 ‘辰在丁亥’과 같은 형식이 보이는데, 이는 ‘朔日’을 가리키는 것이다.

서주 초기 <厚趙方鼎>의 내벽에 “佳(惟)王來格成周年, 厚趙有饋於濂公, 趙用作厥文考父辛寶, 其子子孫孫永寶. 束.”라는 5행 34자의 명문이 구조되어 있다. 맨 앞부분에 “주왕이 성주에 도착한 해”라고 기년을 표기하고 있다. 주왕은 서주 초기 成王으로 추정된다. 명문의 맨 마지막 ‘束’자는 厚趙의 族徽이고, 부친의 이름을 ‘父辛’과 같이 간지로 쓰는 방식은 商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厚趙 일족은 殷遺民으로 추정되면 서주 초기에서도 상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東周시기

<楚王畬章罇>: “佳(唯)王五十又六祀, 返自西陽, 楚王畬章乍(作)曾侯乙宗彝, 寘(寶)之於西陽, 其永時(時)用享.”

北宋시기 安陸에서 이 罇鐘의 명문과 일치하는 楚王鐘 2점이 출토되었다. 이는 초왕이 증후후에게 종을 보낸 것이 1점에 그치지 않고 1세트가 됨을 알 수 있다.

曾侯乙墓에서 출토된 청동기도 <楚王畬章罇>와 같이 祀로 되어 있다.

기년에 ‘王立事’를 사용하거나 冶尹 뒤에 ‘執齊(劑)’의 글자가 있는 것은 대부분 趙나라 기물이다.

초나라 병기 명문의 내용은 큰 변화가 없고, 다만 앞에 기년을 기록할 때 ‘×××歲’라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비록 기년을 기록하였으나 명문은 이미 구조하는 것에서 새기는 것을 위주로 전환하였고, 또한 결구도 느슨하고 산만하며 심지어 초술하기까지 하였다.

청화간 『程寤』에 “佳(唯)王元祀貞(正)月既生魄”

기본적인 형식은 왕+연월+월상으로 서주시기의 청동기 명문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年자를 祀자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文王시기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낭야대각석>에 “남으로 琅邪山에 올라 크게 기뻐하며 석 달을 머물렀다. 이에 黔首 삼만호를 낭야대로 옮기고, 십이년 간 세금을 면제시켜 주었다.(南登琅邪, 大樂之, 留三月. 乃徙黔首三萬戶琅邪臺下, 復十二歲)”라는 하였다. ‘歲’를 ‘年’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新莽시기의 도량형기에 “歲在大梁龍集戊辰戊辰...”라는 내용이 보인다.

東晉시기 王羲之의 <蘭亭序> 맨 앞부분에 “永和九年, 歲在癸丑, 暮春之初, 會於會稽山陰之蘭亭, 脩禊事也.”永和는 東晉 穆帝의 年號(345~356)이고, 영화9년(353), 歲는 太歲(干支 甲子年號)로는 癸丑年이고 暮春之初는 3월의 초순을 의미한다. 會稽 山陰의 蘭亭에 모여 한 해의 禊事를 닦는 시회를 열었다.

또한 왕희지의 <黃庭經> 맨 뒷부분에는 “永和十二季五月廿四日五山陰縣寫”, <孝女曹娥碑> 맨 뒷부분에는 “昇平二年八月十五日記之”라고 기년을 표기하고 있다.

<劉阿素墓誌>(520년)은 전체 명칭은 <宮內監劉阿素墓誌>이며 전형적인 北魏 묘지에 속한다. 묘지명 맨 앞부분에 “北魏正光元年, 歲在庚子.”이라고 연호를 기록하고 있다.

‘祀’는 은상시기에 한 해를 표기하는 방식이었는데, 서주시기에 은유민과 관련된 출토문헌에서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주시기에는 주변지역에 한자문화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는데, <楚王龔章鑄>의 ‘唯王五十又六祀’, 청화간 『程寤』의 ‘唯王元祀貞(正)月既生魄’와 같이 楚, 曾과 같은 주변 정치체에서 서주의 전형적인 기년 표기방식을 사용하면서도 ‘年’자의 위치에 ‘祀’자를 사용해 지역적 특징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위진시기 ‘歲在干支’의 형식은 전국시기 楚나라 명문의 ‘×××歲’ 등에서 기원하였으며, 新莽시기 도량형기의 ‘歲在大梁龍集戊辰’ 등에서 이미 그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은 남방의 기년 표기방식이 중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 2) 한국의 출토문헌

### 1) 낭랑

평안남도 용강군 해운면의 어을동 고성 근처 운평동 점제현(粘制縣) 비 앞부분에 “○○○年4月戊午”라고 되어 있다.

기년명 벽들:

- <光和五年銘塼>: “光和五年, 韓氏造<sup>牟</sup>.” 182년.
- <景元元年銘塼>: “景元元年七月二十三日.” 260년.
- <泰始七年銘塼>: “泰始七年四月.” 271년.
- <泰始十年銘塼>: “泰始十年七月二十二日造.” 274년.
- <咸寧元年銘塼>: “咸寧元年三月造.” 275년.
- <太康元年銘塼>: “太康元年三月八日王氏造.” 280년.
- <元康三年銘塼>: “元康三年三月十六日韓氏.” 293년.

낭랑에서 출토된 문자자료에 기록된 기년 표기 방식은 서한에서 위진시기의 중국의 연호 기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2) 고구려

- <太寧四年瓦>: “太寧四年太歲△△閏月六日己巳, 造吉保子宜孫.”
- <丁巳○年瓦>: “丁巳△△△△歲△△△△△△, 萬世太歲在丁巳五月廿四日. △四時興詣△△△△萬世太歲在丁巳五月廿四日.”
- <張撫夷塼>: “大歲在<sup>戊</sup>, 漁陽張撫夷塼.”, “大歲<sup>戊</sup>在, 漁陽張撫夷塼.”, “大歲(申), 漁陽張撫夷塼.” 등 모두 7종이 황해도 봉산군 소왕리 벽돌무덤에서 발견되었다. 전돌을 만든 시기는 여러 전돌의 글자를 합치면 ‘戊申’이 되는데, 대체로 348년으로 비정한다. 이는 고구려에서 중국 유이민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sup>1)</sup>

- <永和九年銘塼>: “永和九年三月十日, 遼東韓玄菟太守領佟利造.” 353년.
- <建元三年銘塼>: “建元三年<大>△△△△” 345년.
- <建始元年銘塼>: “建始元年△△△△” 407년.
- <建興四年銘塼>: “建興四年會景作造.” 316년.
- <元興三年銘塼>: “元興三年三月二十日王君造.” 404년.

- <농오리산성마애석각>: “乙亥年八月, 前部小大使者於九婁治城六百八十四間.”
- <平壤城石刻>: “乙丑年五月廿八日, 始役西向十一里小兄相夫若牟利造作.”

1) 국립청주박물관,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통천문화사, 2000, 38쪽.

“丙戌十二月中，漢城下後β(部)小兄文達節自此西北行涉之。” 등과 같이 5종의 평양성 석각이 확인되는데, 이는 고구려 長安城 축성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성돌이다. 평양성은 『삼국사기』「」에 양원왕 8년(552)에 쌓았고, 평원왕 28년(589)에는 大城山 일대의 長安城으로 천도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성돌은 6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된다.<sup>2)</sup>

<德興里古墳墨書>: 永樂十八年戊申年十二月.

<廣開土王壺杆>: “乙卯年國罌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 경주 노서동 140호 분에서 출토되었다. 청동기물의 밑바닥에 양문으로 구조되어 있다. 장수왕 3년(415)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銀製合杆>: 기물 본체 밑바닥에 “延壽元年太歲在申三月△, 太王教造合杆三斤”, 뚜껑 안쪽에 “延壽元年太歲在卯三月中, 太王教造合曷用三斤六兩”이라는 내용이 구조되어 있다. 경주 노서동 瑞鳳塚에서 출토되었다. 고구려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391년, 451년설이 제기되고 있다.

<延嘉七年銘金銅如來立像>: “延嘉七年太歲在己未, 高麗樂郎(浪)東寺主敬弟子僧演師徒卅人,.....”

<建興五年銘金銅光背>: “建興五年歲在丙辰, 佛弟子清信女上部[兒]奄.....”

### 3) 백제:

<七支刀>: “泰和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 造百練鑊七支刀....” 369년에 백제에서 만들어졌으며, 일본서기에 의하면 근초고왕대에 일본에 전해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武寧王墓誌石>: “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年六十二歲, 癸卯年五月丙戌朔七日壬辰崩, 到乙巳年八月癸酉朔十二日甲申, 安厝登冠大墓立志如左.”

<武寧王妃墓誌石>: 앞면에 “丙午年十日月, 百濟國王太妃壽終, 居喪在酉地己酉年二月癸未朔十二日甲午, 改葬遺大墓, 立志如左.”라 하고, 뒷면에 “錢一萬文右一件. 乙巳年八月十二日, 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

<多利銘銀釧>: “庚子年二月, 多利作大夫人分二百卅主耳.”

<昌王銘石造舍利龕>: “百濟昌王十三年, 太歲在丁亥, 妹兄公主供養舍利.” 567년..

### 4) 신라:

<順興邑內里壁畫墨書>: “己未中墓像人名..”

2) 국립청주박물관,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통천문화사, 2000, 41쪽.

<迎日冷水里新羅碑>: “癸未年九月廿五日, 沙喙至都...” 눌지왕 27년(443) 혹은 지증왕 4년(503)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蔚珍鳳坪新羅碑>: “甲辰年正月十五日, 喙部牟卽智寐....” 법흥왕 11년(524)에 건립.

<永川菁堤碑>: “甲辰年二月八日, 另邑?夫...”

<大邱戊戌銘塢作碑>: “戊戌年十一月朔十四日, 另冬里村...”

<丹陽新羅赤城碑>: “△△△△月中, 王敎事大衆等喙部....”

<明活山城作城碑>: “辛未年十一月中, 作城也....”

<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 “辛巳年二月一日立.”

<慶州南山新城碑>: “辛亥年二月廿六日, 南山新城...”

<蔚州川前里刻石>: “過去乙巳年六月十八日昧, 沙喙部徙夫知....”

<壬申誓記石>: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임당동 출토 석각, 송림사 출토 명문석,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 기년 없음.

<황초령신라진흥왕순수비>: “△△△△八月廿一日癸未, 眞興太王....”

<마운령신라진흥왕순수비>: “太昌元年歲次戊子△△廿一日△△△眞興太王....”

####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기년의 표기방식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데, 그 주요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주시기 王의 즉위 연수를 기록하는 방식과 춘추시기 제후 公의 즉위 연수를 기록하는 방식이 확인된다.

둘째, 연호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 武帝가 처음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해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 연호를 바꾸어 기년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후대에는 여러 연호를 사용하는 황제도 있다.

셋째, 간지로 기년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삼국시대 출토문자에서 자주 보이는 방식이다.

넷째, 연호와 간지를 겸용하는 방식이다. 위진시기에 출현하여 한국의 삼국시대 출토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다섯째, 歲星으로 기년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전국시기에 처음 출현하였



다. 歲星은 木星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해 약 12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게 된다. 星紀, 玄枵, 娵訾, 降婁, 大梁, 實沈, 鶉首, 鶉火, 鶉尾, 壽星, 大火, 析木과 같이 12개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목성이 위치하는 별자리로 기년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歲在大梁’과 같은 용례이다. 太歲 기년 표기 방법도 목성의 운행을 이용한 것에 속한다.

위고문 『尙書』에 각 편 앞부분에 “惟元祀十有二月乙丑”와 같이 연호와 간지를 쓰는 방식은 서주시대 청동기 명문의 앞부분에 “唯○王○年○月干支”과 같은 형식을 모방한 것으로, 상후기 청동기 명문의 뒷부분에 “○月○祀”와는 다른 기년 표기방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명은 東晉시기 梅賾이 재구성한 위고문임을 알 수 있다.

서주시대 이래의 전래문헌과 출토문헌에서 ‘祀’와 ‘年’를 기년 표기에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爾雅』「釋天」에 보이는 내용에 입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唐虞때는 ‘載’라 하고, 夏에서는 ‘歲’라 하고, 商에서는 ‘祀’라 하고, 周에서는 ‘年’이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시기가 늦은데도 이전 대의 복고적인 성향도 나타나는데, 이는 중심지역의 왕조와 구성원(族屬)이 다르거나 주변지역에서 한자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紀異·古朝鮮」古記에 “단군 왕검은 요임금이 즉위한 50년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朝鮮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또 白嶽山 阿斯達로 도읍을 옮겨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周나라 武王이 즉위한 기묘년에 箕子를 朝鮮에 봉하니, 壇君은 이에 藏唐京으로 옮겼다가 뒤에 阿斯達로 몰래 돌아와 산신이 되어 1908세를 살았다.”라고 했다. 앞의 1500년은 단군조선으로 기자조선 이전의 연수를 계산한 것이고, 뒤의 1908세는 단군이 산신이 되어 생존한 연수가 아니라 기자조선에서 고려시대 一然이 『삼국유사』에 인용한 古記의 편찬시기 이전까지의 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3)</sup> 그리고 이들 연수는 단군이 아니라 단군으로 대표되는 군주가 고조선을 통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중국의 경우 ‘楚子’, ‘陳子’, ‘秦子’라는 호칭이 보이는데, 이는 주왕조와 다른 나라들의 통치자에 대한 호칭이다. ‘秦子’라는 칭호는 기원전 7세기 초기에서 중기 후단계까지 사용되었는데, 이시기 진나라 제후는 5명이 있었다.<sup>4)</sup>

3) 『삼국유사』에서 古記를 인용하고 있는데, ‘百濟古記’, ‘新羅古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의 古記는 古朝鮮古記로 추정되며, 고려 때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李峰, 『青銅器和金文書體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8, 11-12쪽.



# 메모1

홍익재단

## 메모2

홍익재단

## 메모3

홍익재단

## 메모4

홍익재단

- 일시: 2021년 8월 20일(금) 13:00 - 18:00
- 장소: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
- 주관·주최: 홍익재단([www.hongikf.org](http://www.hongikf.org))